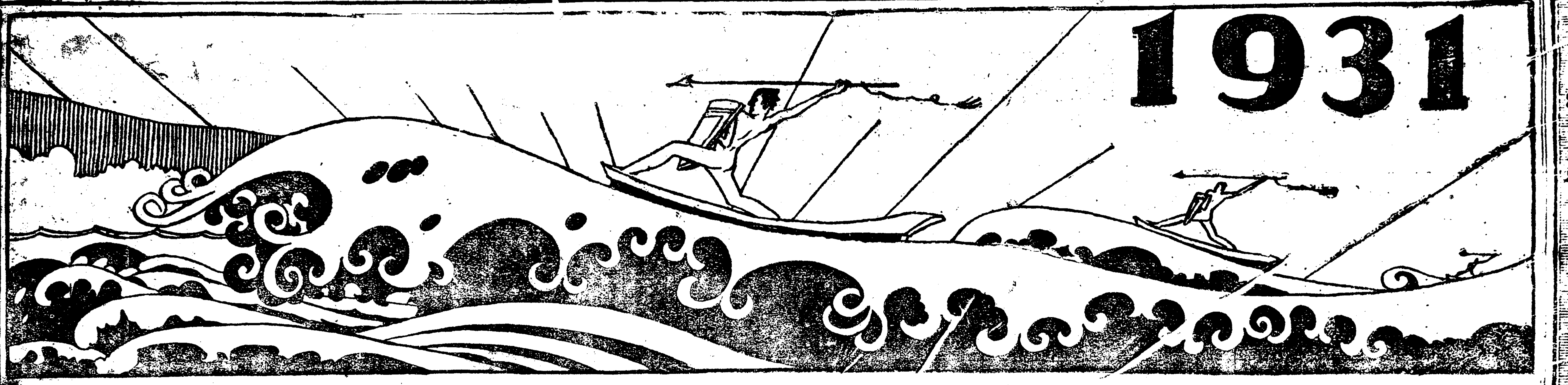
朝鮮日報
京城府堅志洞 朝鮮日報社
電話光化門二三〇〇番



社說

總出·總結·總察!

力量動員의初一年

一

進出을밟으고企圖을가다듬는者에게는 언제나항상生新한 躍動하는 劃時期的 新一年이잇는것이다 이것은觀念의創造에서 獨自의 主觀的인 心境을 法悅하는自己幻覺的의닭지못한 遊戲로서는아니오 奮鬪의實踐的인日常의生活에서 體驗하고 洗鍊되는 尊貴한具體的인企圖이 又一年의 過程을過程하면서 深化또賓驗化하는 當面的新推移로되는것이다. 唯一한 根本的인最高의目標가 萬衆의無意識的渴望그것처럼 先驅者의深刻또白熱한가슴속에 不滅의靈火로서타오르고잇슬스록歷史的形勢의窮새업는 變遷에策應하야서의 各모멘트的의指導精神 맛그政策은 同質이고그러나異體의새로운推移로서 把握實踐 및具現되어야하는것이다이러한意味에서 마지되는一九三一年의 希望의새해가가장生新한 劃時期的一年으로서——沈鬱에서 오히려光明의彼岸을 追求하야나아가는——잠자는듯 實상은澳惱의奔放을가지는 朝鮮人大衆에게 躍動의序幕으로展開되기를 預感喚醒및高調하는것이다

二

安全한 保障된生存의길을追求하야나아가는人類의努力은깁고크고또또출기찬것이다그리고政治的社會的의客觀的諸條件이分離 決裂의갈팡머는 途程에 沈滯되어잇는 人民에게는 各層各方面의 部門的인諸力量을昂揚 進出 및集中케하야 全國的으로協同的인 强固한總力量으로 맨드는데에서비롯오生存의眞正한 序曲이그의압헤行進되는것이다 動作의嚴肅한過程으로너어야할것을强固한結成과 多難한時局에處한 一人民은 그의極히不利한 行進의途程에서 飛躍의길을억지로회모는것보담一定한企齊과生長의 자즌階段을一步一步식 차허나아가야하게되는것이다 그것은洗鍊的인 生長및結成의過程이어야할것이다 數道並進의新一年으로서 各層各方面의 그處地와意識을 小異로한사람들이각각自己들의處地에서出發한最善및最强大한打開의意志로서 同一한目標을견우고나아가는 몃줄기의各실에서同志的또는政界的의 呼應과協同의進出을할것을 承認및具現하지아니하면아니될것을 외친바가잇섯다 이러한意義깁흔當面의問題는 短促한年光과한서번에 해마다훌더보냄바아니나그러나 이新一年에잇서 더욱意義깁게 各層各方面에向해서의 總出 總結및總察의努力이잇서야할것을외치는것이다

三

「各길로서한곳에!」 이것은一「슬로간」으로서 결거에依依適當한者이다 그러나그것은 全然分散的인 自然放任的인形態로는 結局의아름다운觀念으로밧게 아니되는것이다 隱然또現然히 領導的權威를把握하고一種의 基本力量으로서 社會的으로 機動하는 眞正確固한陣營을 樹立한고서의일이다 이것은 보담더當爲論的傾向으로 치우치기쉬운바이나 그러나昂揚과 銷沈이항께生長하고 分散과集結이서로마주처大衆의意識을 混亂케하고잇는 現下의當面하는過程에서는 先驅者 識者 및其他의 有心人이 한가지로 覺醒 企圖및協進하여야할것이다 朝鮮의社會는 적은만흔後進性을가지고잇다 自己의自身이社會的 政治的의領導制의潛力을 掌握하지아니한만큼 各層各方面의사람들은 커멋대로의 跛行的또는過誤的의 別乾坤에 愛着躊躇하고잇다 그의 先驅的인尖端이 國際的인最高의水位에까지 躍進的 或는高踏的의 進出을하고잇는反面에서 人民은 冷笑 觀望 隱遁 斷念 離叛 墮落및過誤 焦燥의各自的인分野에 籠城하고잇다 先驅者의尖端的인進出은 그들에게 理解 領得 把握合流로果敢한 出發을斷行케하기前에 돌이어 懷疑의退嬰과不安의 決裂을誘致하고 或은失望的인 反動의거름을밧비하게까지도된다여기에서 洗鍊된奮鬪的인先驅者識者들은 一層의綿密및嚴肅한 新一年의企圖을가저야할것이다

四

모든意識分子는 表現的인結成에서 그의可能한最大力量을樹立할것이다 오늘이그날이란 純情的인突進으로만은아니오 前夜의또前前夜의 兩層的인자즌階段에서 그後方의또脚下의基本勢力을敎訓 誘導및招集하는退却的인前進을의할것이다 상투와白衣로서 으스레한獨自의風月에 잠긴者들에게 無識과貧窮이 漫然한愁嘆만을기진者들에게그리고새로운狹少한許興된世界에서 離叛으로부터離脫에 迎合으로因한反動에의 趨走者들을爲하야서도 綿密및嚴肅한 歸心및對應이잇서야할것이다 遼遠한生存의大道를向하야 이新春의年九과함께 모든識者 先驅者는總出할것이다 觀望 隱遁의各層을 ㅆ올어서 進步와飛躍의길도 總出할것이다 그리하야各部分에로나 또는協同體에로나 거름거름總結의길로動作시킬것이다 그리고또諸方面에向하야 並進및檢察의努力을멈추지말것이다 光明의길은依然히人類生存의前野에 展開되는것이다 積極的으로또 樂觀的으로 그리하야 初一年의 生新한意氣로 이해를마지하며 力量動員의길을곳처 出發할것이다

一九三一年과 東洋國際情勢展望【一】

三個重心과中國의現下

安在鴻

◇ 國際와民國은 不可分의것이다 더욱히一九三一年은 一九三〇年의 等價의延長이다 이點에서 便宜上今年의이記事는一九三一年과東洋國際情勢展望이라고劃斷한다 國際情勢는 世界的으로물어가는큰聯鎖的인一個向이다 世界의 政治的諸情勢에잇서英米 兩各國이 三個의重心으로되는것처럼 東洋情勢에잇서서는 中國 印度 및日本의三個國民이 隱然히그重心을일우어서 마치三個의衛星과가티 回轉과旋渦의中心을 그웃고잇다 歷史的意味에잇서서는 抑壓에지질린弱者로서 몰이어强者의「철도우(戎國)」을엇수잇스나 强者로서는 어든것을 몹거진이기에 조무심을할때 弱者로서는아모것도엇는데서 일할것을갓지못한데서 그의비비대고일어나는 抗爭과옹옥임이물니어그물을 暖取侵源으로삼고잇는 强者인列國에게崩壞의恐怖을주어언키울수잇다. 이러한點에서日·中·印三個國民은그本質로서각각간다르고 그國際的地位가서로갓지안홈에不拘하고모다一定한勢力으로 東洋國際關係에大小의波動을일으키고잇다

◇ 中國의新興한民族的資本階級을基盤으로한 부르的民主主義의成長및그和平統一傾向의進展와 國民主義的國權回收運動의發展性 이러한努面의政治的機構외및그成長하는政治的權勢미테依存하는 蔣介石獨裁의可能性等 印度民英帝國主義運動의大衆化躍進化 그의擴大强化또그隣近民族에의傳播性 日本帝國의經濟恐慌의深刻化 農業恐慌에依한 中小地主와小農의急激한貧化및農民大衆의無產階級化 產業資本의急度의衰弱化및그沒落과金融資本의統制力의確立및强化等은一九三〇年度의過程으로부터一層또强하여진 具的인特殊情勢로되어잇다 이모든것은 [illegible]에의展開으로 된것이다

◇ 一九三〇年은 南京政府의中央[illegible] 勢力의[illegible]에 分서하게하엿다 한편으로는前年의[illegible]來의總撤으로 封建的인最大한地方軍閥인 閻錫山 馮玉祥및山西西北의反蔣戰에다다치고또한편으로는 湖南 江西 湖北河南및東山[illegible]地方에 共產軍또는所謂共產土匪의活躍에걷리어 長沙는數次그支配下에걸어갓고 南京政權과및그出征軍은 모다腹背로敵을맛는苦境을 지나온것이엇다. 南京政權은 共同의目標로서法統을위한 國民黨의左派및國民黨과 西山派까지合함으로써 獨裁에抗爭하여 封建的인勢力의가장乙怯한 閻錫山과 馮玉祥과野合하여 가면서 新春(一月)으로부터秋期(九月)까지前後八個月에 더하야激烈한大戰鬪를演出하여가면서 最後的인勝利를得하엿다 畢竟은中央政權의有利한地位와 그에服從함을[illegible]

[illegible] 實상은또旋風一過以上으로 [illegible]天下의心膽을 서늘케하는듯 『파쇠산』的出沒의形跡도[illegible] 毛澤東、朱德等의共產軍은[illegible]

◇ 殘存北方軍閥로도 [illegible]軍十五萬 馮軍八萬合計二十三萬에達하는大軍이어서 張學良으로써 [illegible] 아즉까지의平定되고以後大擧掃蕩에 北方의終決되지아니하엿고 北方戰間의平和를[illegible] 『쏘베트』의 南方의共產軍도 依然跋扈中 中央政權을 樹立한다고서돌음이나 中國의 天地도아직은兵亂이 한참가신편도아니다 그러나 이러한一般의大戰鬪가北方의最大軍閥을넘어트리고 西南의殘存勢力도 집어치우며 共產軍의그人배기를후려어 그關係의鎖鋼를꺽근것으로되엇다

國民會議 代表選擧法

國府中央會議通過

全文廿三個條로構成되어

【上海卅日發】明年五月五日南京에서召集될는國民會議代表選擧法은昨日中央常務會議를通過하엿는데同法은全文二十三個條로構成되엿스며主要點은左와如한者이다

一、代表總數五百二十名(各省으로부터四百五十名 各特別市西藏及蒙古、海外在留民으로부터七十名)

二、國會代表는左의五團體로부터選出함 農會、工會、商會及實業團體教育會國立大學教育部立案의大學、國民黨

三、左의一에該當한者는被選擧權이無함

(一)反革命行爲잇는者

(二)處罰된者

(三)公權을褫奪된者

(四)精神病者及阿片吸飮賭博常習等의惡癖잇는者

(五)國民黨員으로서黨籍을除籍當한者

四、本法은公布의日(明年元旦)로부터施行함

天皇陛下

宮中에서 四方拜의御儀

【東京電】天皇陛下에압서는元旦早曉 賢所神嘉殿南庭에出御하사四方拜의御儀를맛치신後午前十時부터正殿에서皇族殿下以下內外使臣의拜賀를바드옵신다

◇……和睦！協親！……◇

列國의注意를끄는

列車襲擊事件

…八十名即死 重輕傷者百數十名

【北平三十日發】京奉線錦朝支線(錦州、朝陽間)의土匪襲擊事件은列車顚覆과火災로발미암아乘客乘務員等八十餘名이即死하고重輕傷者百數十名을내엇스며二十餘名이또人質로된것을判明하얏다 最近二個月間에京綏線의列車掠奪事件을爲始하야廣東、湖北、湖南、江西省의列車襲擊事件等이接踵함으로列國側은治外法權撤廢를떠드는이판에이러케頻繁한不祥事件의續發함에對하야深甚한注意를쏫고잇다

叛民百餘名射殺

◇…緬甸叛亂後報

【蘭貢卅日發】「싸루마」官憲은「크리쓰마쓰」以來 當地北方에이러난「타라와디ー」地方의叛民을討伐中이엇는데卅日叛民은機關銃으로外猛射하야死者百餘名을내인後叛民은密林中으로逃亡하얏다

拓務次官後任

堀切氏受諾

(東京電)前東京市長堀切善次郎氏는卅日政府로부터拓務次官後任就任의交涉을바든바此를受諾하야卅一日閣議에서決定한後即日發令케되것다

日本汽船遭難

【사세보二十九日發】日本汽船洋仁丸은二十三日木材를積載하고當港에서解纜하야 大阪으로 向하얏는바 『루락타리ー』岬의西方七百哩의海上에서舵機를失하야漂流中이라고하며그리고洋仁丸의乘組員은四十名이라고

諸威汽船遭難

【오스로三十日發】諸威汽船『세토르펜ー드』號는三十日諸威南方海岸附近에서暴風雨에遭難하야沈沒되야乘組員二十四名은溺死한模樣이다

再次開會된 英印圓卓會議

新地方憲法制定을討論

【倫敦廿九日發】英印圓卓會議는「크리쓰마쓰」의休會를終了하고本日부터再開되얏는데가장活氣를띈것은西北國境地方委員會에서現在의行政官으로부터法律命令의權限을移管하는等의問題도包含하는新地方憲法의制定에對하야討論하얏다散會後委員會의代表者는『西北國境地方의住民이他의英領印度諸地方에比較하야자못劣等의立場下에서잇는바此差別的待遇를廢止하라고和當한討論과協議가잇섯다』고述하얏다

移民停止通牒

【칸베라卅日發】濠洲聯邦政府는卅日當地駐在各國總領事에對하야近來의不況深刻化에依하야『오ー스트라리아』에는外國으로부터의移民에對하야職業을與할餘地가全無함에對하야移民을停止하야令旨를通牒하얏다 이에一般의解釋에依하면右通牒은事實上移民禁止令과同樣의效果를發하는者라고본다

八面峯

一九三一年은 羊의해이다 ○ 羊은몰켜산다、무리에서、떠나는법이업나 ○ 저들이몰켜살매、牧者의막대기의方向을따라、東으로、西으로、南으로、北으로、徐徐히、또는急速히、움지기고停止하야、흠으는물과、푸른풀잔디를찻는다 ○ 저들이허러저살메、或은힐히에 게몰려가고、或은바랑에떠려저 애처롭게죽는다 ○ 人生도또한、그러하다!

謹賀新年
一月元旦
朝鮮日報社
社員一同
支分局員一同

謹賀新年

京城府公平洞
典洞食堂
電話光二四五〇番
同洋食部
電話一三二番

京城府瑞麟洞三十一番地
京城布木商組合
電話光化門六三八番

京城組合銀行

日本콜럼비아蓄音器株式會社
株式會社 日本蓄音器商會
京城府黃金町一丁目九七

淋疾 帶下症 專門
神聖堂大藥房
京城府西大門町二丁目八六
電光三三四番
振替京城四九五〇番

18062

◇새해를맛는이해의주인공 (동물원에서)

一九三一

이해의主人公 世界에五億

—화평의상증양의이야기—

辛未年맛는動物園의羊族

◇……용맹하고일만흔말(馬)의해경오년(庚午年)은지나고평화로운 새봄과가티 복스럽고또 탐스러운양(羊)의해가왓습니다 그들이 살고잇는 곳은언제나평화하고 부드러운고요만 바람이불고 잇습니다 여러분과가티일만흔 지난해를 보내고 화평스러운 새해를 맛는양(羊)을동물원(動物園)으로 차저 양에대한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양의력사는상세한것을 알수업스나 대개는 삼천오백여년전부터 인류의손에 길듸워왓다고합니다 그리고 양의종류로는 암수양을 비롯하야 어린양(羔)검은양(羭)여섯자되는키큰양(羬)뿔업는양(羖) 배냇양(羜)털쓰는양「메리노우」(毛用羊)각목장(牧場)등여러가지가 잇스며 에저일만흔양이「멜리노프」이람니다

◇……그런데현재세계각국에 잇는양의수효는 약오억머리(五億頭)로십수여인구가세사람이한머리식의양을가진세음에요 그분포(分布)상황은(오스트라리아) 에서길르는것이구천만머리쯤되고 그다음은 남북아메리카(南北米洲)남 아불리가(南阿弗利加)영국(英國)등이라는데이양들의 성질(性質)이야말로참으로 우리가 찬미하고동경하는진선진미(眞善眞美)한것입니다

喜悲交錯의新年

囹圄의몸一萬八千 鐵窓에서送舊迎新

◇서대문과경성형무소에

◇……三千八十餘名

온천하에는 새해가오고 모든사람은 봄이온다고 춤추고노래하는이때에 이세상의 지옥인감옥(監獄)에서 자유와 모든권리를 일코철쇄(鐵鎖)를 차고과 세하는사람이전조선을통하야일만팔천명에달한다는데시내에잇는서대문형무소(西大門刑務所)와경성형무소(京城刑務所)에금삼십일일 현재의 재감자(在監者)총수를보면 서대문 형무소에일천구백 오십칠인 중에서강절도범인(强竊盜犯人)이구백여명과사상범(思想犯)이오백여명이며 경성형무소에는 총수일천일백삼십삼인으로로역장(勞役場)에잇는 형명을제외 하고는모다 기결수(旣決囚)라 는데그중에는 무기징역(無期懲役)자가일백오명이나 되며 사십만부민(府民)이 신년의 노리로연하(年賀)를 교환하고도소주(屠蘇酒)를나누며 떡국한그릇이라도 먹으며환희(歡喜)하는 이때쓸쓸한 철창에서 새해를마지하는 삼천팔십칠인의 가슴은 엇더하며 그들의가족의 수심은 얼마일는지모다이생의비극이라 한다

各署留置場에 一百三十名

차듸찬류치장에도새해 東門署卅六名最多

신년을 마지하는 깃붐의소리가 천지에 넘치는 일월일일유독깃붐을 등지고 쓸쓸한경찰서류치장에서 수심과몸안으로써 신년을맛는사람은 경성시내에 모다일백삼십명인데 가로(街路)를 당하야 그들의 심정은 더욱 비창할것이다 지금 각서별로 그들의수효를구분하면

▲京畿道警察部 류치장에는 두사람이옹송그리고 신년을마지것는데 경찰부에서는 특별한 호의로 이사람에게일본떡국을 한그릇식 난호아주엇다는바 그들은 모다사상에관한혐의로류치된사람이라고한다

▲本町警察署 류치장에는 멀두사람의 류치인이공구(恐懼)중에서신년을마지것스며

▲鐘路警察署 류치장에는 어제까지에 미체(微罪)한「스리」범인들은 방면하고 현재삼십일명은 절도가대부분이라고한다

▲東大門署 류치장에는삼십륙명의류치인이잇섯는데도박범이대부분이오

▲西大門署 류치장에는삼십오명의 류치인이잇섯는데 사상에관한협의자 세명을 제하고는모다 잡범이라하며

▲龍山警察署 류치장 에는어제까지에 대개방면 이되고현재는열명만이 쓸쓸한 가운데새해를마지것다한다

出發三千七百 到着者二千

송여객만일천삼백여명 大京城門戶京城驛

대경성(大京城)의 문호(門戶)가되어 매일출입하는 수천명의승강객과 수백명의 송영자(送迎者)로 가지각색의희비(喜悲)를 연출하는 경성역 구백삼십년의 마지막 삼십일일에 승강한 사람을보면 동역을떠난사람이 삼천칠백사십삼인이오 도착한사람이 이천구백칠십사인이며 그들을 송영하기위하야 입장(入場)한사람이 일천삼백 구십구인으로 철마목로(鐵馬木路)에서 희(喜)와우슴으로 과세하는사람이 [illegible]에달한다한다

病室寒窓에 五百名多數

몸의건강을일허버리고 新年도깃븜도만든듯

반가운 새해를 천하사람들이마지하는이때 새해의 령나루에서오히려 인생의가장 보배인건강의자유를 일허버리고 병원의옹산한병실 침대에서 창살을새여드러오는 부드러운 햇빗을처다보며쓸쓸히 새해를마지하는 병자들은 얼마되는가 서대문밧적십자병원(赤十字病院)에는

▲內科二三人▲外科二三▲小兒科一五人▲婦人科一八人▲計八三人

인데다점으로도가는 삼십일일 에새로히입원한분이그우에네사람이나잇스며세부란스병원에는

▲內科四〇人▲其他五二人

인데 수만리 타국에서 병든몸으로 오히려 마지 하는서양사람이 오인잇고의전병원(醫專病院)에는 외과(外科)십이인 기타가십구인이며철도병원(鐵道病院)에는외과칠인 내과십인 기타이십인이고대학병원에는 이백일명 으로 전기시내의유수한큰병원에잇는환자수효만이사백오십삼명인바 이외에도 시내각처에 흐터져잇는 의사들의병원에 잇는수효를잘물튼 환자수를합산하면 적어도 사백칠팔십명 내지 오백명외지는되더라 한다

對岸의恐怖로 會寧人心不安

회령사회각계인사청하야 警察은一場演說

【會寧】 북간도(北間島)연변일대에 번발하는 공산당(共產黨)습격사건으로 인하야 국경(國境)지방에는류언비어가속출하고사실의 근거도업는 허무밍랑한 풍설이류행함으로 인심은로불안에 싸히고 채무(債務)관계까지 성적이매우 불호하다하야 회령경찰에서는 민간유력자들을공회당(公會堂)에소집하고 회녕서장(會寧署長)의훈유가잇섯다고하는데 서장의 말가운데 「적(敵)은 간도에잇는것이아니라 회녕에 잠재하고 잇는것을 알라」라는말이잇서서이말을들은일반은모다가화당하엿다고한다

崔承萬氏出發

일본동경(東京)에서기독교청년회(基督教青年會)사업에다년간종사하고잇던최승만(崔承萬)씨는 금번도다시 재동경조선기독교청년회(在東京朝鮮基督教青年會)총무(總務)로 취임하게되여 삼십일일 오전열시발 렬차로경성을떠나서동경(東京)으로향하엿다한다

兩大財閥의系爭 韓一側勝訴

한일은행과경일은행간 五萬圓請求訴落着

시내남대문통(南大門通)에잇는한일은행(韓一銀行)과대구부시장정(大邱府市場町)에잇는경일은행(慶一銀行)간의 오만원소송은세상의 이목을놀나게 하고량은행의대표자인 한상룡씨와장길상(張吉相)씨의조선두재벌(財閥)간에대치하야 오든바동소송은제일심인경성지방법원에서는 원고측 한일은행이패소(敗訴)하고나 다시복심에공소하야 승소되고 피고측에서 다시고등법원에상고(上告)한것이고등법원에서는 복심으로 회부되엇든바복심민사 합의부에서는 다시심리하여 일심판결을 번복하야 피고는 원고에게대하야 오만원과소화삼년칠월 삼일부터백원에대하야 일일이전칠리식의리자를지불할것을판결언도하엿다는데 동소송의내용은 소화삼년 삼월이십오일에 한일은행이 경일은행의주(株)일만오천주를대금 만이천오백원에매매(賣買)계약을진행하든중 그대금의 일부로 금오만원을선보낸것에 비롯한것으로수년을 끌러오든 동사건은이제원결이 단락을지엇다한다

도 사백칠팔십명 내지 오백명외지는되더라 한다

「藝術行進」 創刊號不許可

시내영락정(永樂町)일정목육십오번지에 사무소를둔 예술행진사(藝術行進社)에서는평론(評論)、시(詩)、소설(小說)、영화(映畵)、연극(演劇)、미술(美術)음악(音樂)등각계의중진자께서의집필로 월간예술잡지 예술행진(藝術行進)을발행하려고이미 그창간신년호 원고를 경무국도서과에 제출하엿든바 마츰내불허가되여 원고전부를 압수당하엿다한다

金堤騷擾事件 三氏滿期出監

【金堤支局】 재만동포의학살구축이라 소식을듯고 닐어낫든 전북김제(全北金堤)의 소요사건으로 김토상(金土相) 정석출(鄭錫述) 김혁진(金革進) 등 세사람은 소요급방화상해(騷擾放火傷害)라는 죄명으로 각이래전주형무소(全州刑務所)에서 복역중이든바 만삼년이개월인 지난 이십구일에 만기되야 다수친지의 출영리에 출감하야당일오후 삼시렬차로 금제에 도착하엿다 한다

叺檢查員暴行으로 數百農民이示威

수원군발안장날의대소동 警察制止로解散

【水原記者同盟】 지난이십구일수원군 향남면발안리(水原郡鄕南面發安里) 장날(市日)에군농회(郡農會)에서온가마니검사원모(叺檢查員某)와장보러온다수한농민 들사이에는 충돌이생기여 수원경찰서발안주재소(水原警察署發安駐在所) 압흐로몰려온 수백군중은 한참동안이나소란을 이르킨일이 잇섯다는데그자세한내용을 탐문하면 동군양감면 대양리(揚甘面大陽里) 에사는량모(梁某)가 가마니검사를 바돗는데 검사원의검사가 불공평하다고 말썽한즉 닷치곳하며 검사원은 [illegible]으로 권고랑모의 면부(面部)를엇모를 한것이라하며피해자는 당장에류혈(流血)이랑자하게맨드러노앗슴으로이것을본 장보러온수백농민들이분개하여 그검사원에 복수하는일방주재소(駐在所)로몰려가서 그가티엄대 즉시발안의원(發安醫院)에서응급치료를하고군중들은경찰의제지로해산하엿다는바장내의조처가일반의주목시되는바이라한다

債務에못견듸어 中流富豪가自殺

天安郡稷山의慘事

【天安】 천안군직산면판정리(稷山面板井里)김○현(金○鉉)(□)그은 동리에서는 일등가는 부자란말을 [illegible] 드르며 그생활이군색하지는 아니하엿섯는데 금번에는 여러해 계속되는 흉년과 미가폭락(暴落)으로 인하야 엄마의채무와비료대 기타농사비용을 면치못하야 비관을하고잇든중 근자에 와서는채권자의 독촉이 급함으로그만이세상에 살기실은 생각이나서 삼십일 오전 아홉시반경 자긔집 사랑방에서 아모도업는 틈을타서 가락를가라세처먹는 삭도로자긔의목을 네번이나찔너 경동맥(頸動脈)이 끈허져 만히출혈(出血)이 되어 거외죽게되엿든데 마침그 안해되는김씨(金氏)가 웬세박망이를차즈려고 그방으로 드러갓다가이를발견하고 공의를불럿스나 그만절명이되고 말엇는데 그가족의 애처러워하는것은 참아볼수업스며 일반동리들도 그의죽엄을 가긍히생각 한다고한다

物價는나려도 食價만은不下

【平澤】 경기도 평택시장(平澤市場)에는요사이 음식갑시나리지안는다고 일반에 비난이자자하다는데 례를들어말하면 백미일두에 삼원이십전할때 국밥 이십전 밧는것을 그대로 음식점에서 밧는 렴량 십전밧든것만도 못한것을 십오전식바드며 술도 진의군주조합으로부터 십이월초부터 주가를 감하하여 청주일두에 일원감하 탁주일두에 사십전감하여 양조소에서는 감하한갑스로 사다가 소매음식점에서는 그전에 한순배에 반수전자되는것을 지금은 반수전자도 못된다는데 음식대 여하급조절에 잇서서는 본평국의 노력을바란다한다

謠言出處嚴探 主義者는避難

【會寧】 루루히보도한간도공산당(間島共產黨)사건으로인하야 나날이요언비어가 류행하고 불안한인심은 진정키 어려운바잇슴으로 당황한 경찰서에서는 이러한풍설의 출처를 조사중인데 필연코간도공산단원의 잠입활동이아니면 간도공산당과련락을취하는 회녕(會寧) 사회주의자들의 소위가아닌가하야 극력조사하는일편 요시찰인들을 엄중감시하고 잇슴으로 어느때에검거선풍이 나릴는지 알수업는 회녕의주의인물들은 면저피미를꾀고 경찰의수배를 버서나서 남선으로피란하는이들도 잇다고한다

牧島製絲工 八十名盟罷

임금사할인하가원인 今日午前부터斷行

【釜山支局電話】 부산(釜山)목도(牧島)에잇는목도제사공장(牧島製絲工場)에서는 삼십일일오전 칠시경에 이백오십명직공에대하야 임금(賃金)사할인 처를발표한데대하야 직공(女職工)팔십인은즉시동맹파업(同盟罷業)을단행하엿다는데 년말인만큼형세가주목된다한다

渭原農民夜學

「渭原」 위원군서태면송계동(渭原郡西泰松溪洞)에서는농민들이집합하야 농민야학을 설치하고 삼십여명의생도가 지금공부를하고잇다한다

펀셋트

▲여러분새해에복만히바드섯다니감사합니다!▲오늘부터일천구백삼십일년은시작됩니다▲작년는말해이니와 반듯이그려타는것은 아니지만은 비약적진전이 잇스리라하드니 ▲과연세계는 작년일년동안에 비단히 비약적 진전으로보이엇습니다 ▲그러나조선은과연얼마나한 진전을 보이엇는지? 그것은 미지수!▲금년은어떠한 조흔일과 궂은일과반가운일과 슬흔일로써 또다시닥쳐오는해를 준비할는지 ▲그것은다만 여러분의 지금부터의준비여하에 달려잇슬것 입니다▲일천구백삼십일년을의 미잇게마지합시다

咸興萬歲橋서 短銃强盜逮捕

형사대와장시간격투후 ◇一黨三人組就縛

【咸興】 지난이십팔일오후세시경함흥만세교상(咸興萬歲橋上)에서함흥경찰서원이 출동하야단총(短銃)가진강한(强漢)세사람과 장시간격투후 드듸여체포하얏다는데 이제 그자세한 것을 탐문하면 원적을충남공주군(忠南公州郡)에둔 김기옥(金基玉)(二七)과강원도양구군(江原道楊口郡)에둔 장증준(張曾俊)(三〇)과강원도고성군(江原道高城郡)에둔 김갑수(金甲洙)세명이공모(共謀)하야부내모일인집에서 오련발단총(五連發短銃)한자루와 탄환수십발을절취하여 아모데도 사용치못하고그와가티 체포되엿는데 전기단총과탄환은모다 그자리에서압수되엇다한다

蓬坪에怪火 三回七棟全燒

【大和】 지난십일월하순경강원도 평창군봉평시장(江原道平昌郡蓬坪市場) 림태성(林泰成)상점에서 불이나서 그이웃박용구(朴容九)봉양주소(釀酒所)리명현(李明玄)신재희(辛在熙)집권무다섯집이 전소하야 다수한 손해를보게되엿다고한다 그런데이십일이 넘지못하야 지난이십일날 이십일도당시장신화실(申化實)집에서 불이나서 전소되엿는데 전부집이 리중호(李曾浩)상점에서 불이나서 전소되고 또금월십구일 당시장원동업이 소실되며 당지원반은대불안중에잇다는데 일부에서는 반드시귀신의불이라고하야 우매하게도 치성을들이며 또경찰에서는 방화도인줄하고 범인을엄탐중에 잇다고한다

青年의屍體 平澤市場에

성명주소불명

【平澤】 지난이십칠일오전두시경평택시장(平澤市場)노점(露店)에는나히이십사오세 되여보이는청년의원인모를 시체가잇슴으로 본경찰에급시로 본면사무소에전기엿다는바 아모 증거물이업슴으로주소와씨명도아지못한다고한다

謹賀新年

趙俊鎬

京城鍾路二丁目八二 圖書文具 博文書館 電話光化門一一六九番 振替京城二〇二三番

京城鍾路一丁目二一番地 理髮器具 和洋金物 佐藤商店 振京六〇三八番

京城三角町(曲橋)一番地 咸錫泰齒科醫院 電話光化門七九番

京城苑南洞 李起春

京城西大門町一丁目三十番地 文善社 電光一一〇番

京城公平洞二五番地 設備完全 旅客本位 典洞旅館 電光六九九 七七一番

仁川府內里二〇八 仁川洋服店 主 宋壽安

京城府黃金町二丁目 藥材貿易 鍼灸賣藥 黃金堂藥房 電話本一六四七番

笠井町二八 李鍾澤

笠井町一八 徐相旭

京城竹添町二丁目二 漢城精米所 主 曹秉學 電話光化門二三番

京城仁寺洞一七九 最新式 和洋料理 カフエベビ

中央商工株式會社

大陸護謨工業株式會社

株式會社 서울護謨工社

京城府南大門通一丁目 (前元金屋跡) 各宮家御用 內外食料 和洋酒類 松月堂 電話光化門一八五〇番

(度量衡器販賣部新設) 建築用、家庭用、醫療用、學生用、共他修理材料 各種度量衡器販賣 京城南大門通一丁目百三番地 營業課目 綢緞布木商 雜貨 共同貿易株式會社 電話光化門長六二五番 三三九番 振替口座京城一八三九番

京城府武橋町 織物雜貨商 海信商會 主 李海承 店 金九培 織物部主任 申善浩 雜貨部主任 光化門長七五〇番

京城南大門通一丁目一百二十七番地 內外國綢緞 紬布綿布 毛織布木商 京城商會 主 金潤秀 長電話光化門三八四 振替京城一〇四七番 電信略號(ケイ)

京城府南大門通一丁目一一二地 各種毛物被服 布類雜貨 南昌商店 主 金汝完 電話光化門九一一 振替京城五九七七番

朝鮮京城府鍾路五丁目三十三番地 花柳病及 强壯劑專門 百中院 振替京八七七四

遮湖近海暴風으로 廿餘漁船行方不明
明太잡이나갓다가暴風을맛나 이미破船된것도만허

【遮湖】 함남 리원군 근해(咸南利原郡遮湖近海)에는지난이십팔일정오부터 눈이날이기 시작하엿는데그날밤여덟시경이되어별안간 모진동풍이 불어서명태어(明太魚)잡이를나갓든배들이 행방을일코 바람에밀려그양 풍에내려가어진배도 잇스며 행방불명(行方不明)된배가 스무척의 아워가펴의심되는동시에 가족들은 망극한가운데 잇다하며 어민조합(漁民組合)에서는구제책을 강구중이나 경비문제로탐색선을 내보내지못하여 고심중에잇다고한다

江界의禁酒 懸賞雄辯大會
禁酒軍의主催로

【江界】 평북강계읍내(平北江界邑內)에잇는소년금주군에서는 일반무산아동을 위하야교육에 긔관을 창립하고문맹의부녀들을 위하야 야학을개시하야여러방면으로 만흔 활동을하든바 지난 이십칠일오후칠시에동군명상층에서금주(禁酒)연제로 현상웅변대회를개최한바사방으로 운집한 청중은무려오백명에달하야 립추의 여지가업는데 성황을 일우엇스며 예상이상으로 가입자가 만허일반은각연사의입으로 나오는말만 기다리고 잇다 연설이 시작되자 어린학생들의 하는말이라도 각자의가슴에 견디는말이라 … 오스며 새로창립된금주단연회에 만히가입하자는 … 성길(金錫吉)오씨의심사로 동금을정하야 심판의머 표로김성길씨가심판하자 금주군장성심현(禁酒軍長成甚鉉)씨의 수상식이잇슨후 대성황리 폐회하엿는데 금번금주강연회에 만흔효과를본 금주군에서는 종종이런일을 개최하야 선전에 한바식으로도 하리라하며 연사의씨명과 등급은다음과 갓다 한다

演題 禁酒
一等 金貞三
二等 金成壎
三等 李成實
等外 崔仁國
同 金學善
同 金昌熙

元山支廳兩大事件 咸興으로移送
공청사건과군민대회사건

【元山】 서울공산청년회(서울共産靑年會) 사건과문천군민대회(文川郡民大會)두사건이지난이십칠일부로 함흥 지방법원원산지청(咸興地方法院元山支廳)에서예심이종결되엿다함은이미 본보에보도한바어니와 두사건관계자오인은 지난삼일 오전십시 원산역발렬차로 함흥으로 이송하얏다는데 관계자의씨명은다음과갓다고한다

◇서울共靑關係者 李宗徹 康雲鉉
◇文川郡大關係者 李亨祚 張炳讚 朴容煥

江界邑에서 禁酒斷煙宣傳

【江界】 평북강계읍내(平北江界邑內)에서는 일반청년들이 회합하야 금주단연회를 창립하엿다함은 본보를통하야 보도한바와갓거니와 우리가 창립한지금에는 회원을만히 모집할분안이라 강계일반사회인사들에게 우리회가 창립되엿다는것을 널리 선전하는것이 유익하다하야 소년금주군과 련합하야 지난이십칠일오후이시에 군악을 선두로금주단연선전이란 긔빨을 날니며일반회원들은 시내로 며선전을하엿다는데 일반강계인사들은 하루에담배술갑이 얼마하여 업시하는돈이 근백만원에달한다는것을 볼때에는 반다시이회에 입회하야 우리의쪼들어진경제에 조곰이라도 도움이되겟다하야 입회자가만타는데 누구던지 하로밧비 입회하기를바란다 한다

靈武에서 多數少年을檢擧
소년세사람과부인한사람 이십칠일에홍원서로호송

【靈武】 지난이십오일이른새벽에모험문과과격한격문이령무(靈武)전시가골목마다부치어잇섯슴으로 홍원경찰서에서는 그로인하야피의자로윤윤손(尹允孫)외십여소년을붓잡어다가엄중한취조를마다함은긔보한바어니와 그중윤윤손외여러소년은무사히석방되고 유력한피의자로 령무(靈武)에잇는리재근(李在根)(一六)과령수리(靈水里) 박인홍(朴寅洪)(一八)과김문환(金文煥)(二二)등삼명을홍원서로 취조하든바이십칠일 오후열시발 렬차로홍원보안서로 호송하엿다고하며 그외윤윤손 모친도한께 홍원서로 호송되엿다 고한다

本壤의聖誕紀念救濟

【平壤】 심각화한불경긔로로동자급의 실직자는 날로증가되는 추세에 잇거니와 어름동장하야 식량조차 엇지못하는 그들은궁주린배를 움켜쥐고 어데로갈가 평양에도 서성리(西城里) 기림리(箕林里) 일대에는 극도의빈궁에무처어 암담한 그날그날을 보내고잇는 비참한것이 만어뜻잇는사람들의 탄식을 자아내게 하는데 이제이들을위하야 평양부선교리(船橋里)에 잇는 평원(平元)고무공장의 남녀직공칠십명은 그들빈민에게 다만한때의따뜻한음식이라도도움겟다는 뜨거운 정성으로 하로의몃십전식되는 임금을모아 륙십원을기부하엿다는아름다운일이잇섯다 그리고 또한편으로 평양소년척후대(少年斥候隊)와녀자긔독청년회에서도 빈민구제의 긔금을 엇기 위하여 【동정폐당】을 필고잇섯고 숭실전문학교(崇實專門學校)과독창년회 에서도 동정긔금을 모엇든바 이비꼿이 모다 가튼뜻에서 나온데서합의되어 처탄과벼련구제회(聖誕紀念救濟會)를 조직키로되엿다 그리고이것을 상설긔관으로하야 매거울마다 구제긔금을 모집키로 하엿는데 사무소는평

長津에酷寒 零下卅五六度!

【長津】 함남장진군(咸南長津郡)은 해발삼천여척의광막한 고원지대로 겨울이면 원근산천에 언제든지 수척의눈이라는말이 … 수십여 … 요새의 일긔는 매우따뜻한편이라고 하는바 평소같으면 이십오도에달하며 더욱히심한때는 삼십여도에하락하여 하천은 물론하고도로에까지 결빙하여 자동차는물론하고 일반하마우차와 통행은 대단곤난이며 그러도부로 통행하기에도 한번밧만 바로주의하여 움지기도안되면 수십여척의 젛먹에 떠러지기쉽다하여 하갈경찰서(下碣警察署)에서는 군토목과(郡土木課)에 보고하여 처리하리라고한다

讀者優待

【독자】 … 자제의 독자 여러분의 일이 … 라는 보담을가하며 도는건축으로 생활곤난에 일·라도 도움이될가하야 … 행한바 독자쉬워는 만이사용하야 주기를바란다고한다

永興農會費 重復徵收問題
주민들이당국에진정타가 農民組合에다一任

【永興】 함남영흥군순녕면소(咸南永興郡順寧面所)에서군농회비를 흑은착오도 되엿는지는 알수업스나 전긔농회비를 수십처에서 재삼중수한사실이 그곳면민에게 발각되어 민간의시비가나날이 자자하자 도립당국에서문검사차로 출장한시에부근면민들은 이를기회로 즉접동출장원에게 말한동시 책임자인면장에게도 말한바 동면장은말하기를 모든것은 자긔감독이잘못된것도 잇겟지만 너무여러해된것을 단시일에 밧는중그와가든착오가 만혓다고 질문간사람들에게말은 하엿스나 면민들은다시 영흥농민조합에다가 위탁하여 이문제를 철저히해결작정이라한다

茂朱消組擴張

【茂州】 전북무주상계(全北茂州商界)는 살인적불경긔로인하야 공황의긔분이 농후하다는데오죽소비조합(消費組合)만은 업무(業務)가 점차 진전됨을따라 지난십이월 이십오일에 종래점포(店舖)를 동군읍내(同郡邑內九九一番地)로이전(移轉)하고 그의피로(披露)로는 종예삼백여원으로 지난십이월 이십오일부터 일원에 물품을사는손님에게경품권 한장식을 준다는데시작한지 몃칠이못되엿스나쳑쳑이매우량호하다는데모든규정은다음과갓다한다

抽籤期間 自十二月二十五日 至二月十六日
一等 廣木一疋一人 鏡臺一 化粧品道具一人
二等 人造絹等二十人
三等 化粧品等六十人
四等 手巾等二百人
五等 石鹸等六百人
六等 齒磨等三千百十七人

南浦商校放火生 三年懲役言渡

【平壤】 자긔학교에방화하엿든 진남포상공학교(鎭南浦商工學校)사학년에 재학중이든윤선권(尹善權)(二九)에관한방화피고사건은 진일평양 지방법원에서림(林)검사로부터 징역오개년의구형이 잇섯든바 이십칠일본다(本多)재판장으로부터 방화미수죄로 징역삼년의 판결언도가잇섯다 변호인은 곳일심판결에불복하고 복심에 공소키로하엿다

佐藤巡查殺害者 四人中二人逮捕
二人은國境을넘은듯 두문서흥의역에서

【慶興】 지난십이월경흥군로서면중산주재소 좌동순사(慶興郡蘆西面甑山駐在所 佐藤巡查)가도문선서흥의역(圖們線西興儀驛)에서 약이십리되는 산중에서참살된사실은 긔보한바어니와 소관서수라경찰서에서범인수색에 뻔방으로 고심한 결과범인네명중두명을체포하얏다는데부근솔봉(松峰)이란농리사람박모와안모라는바 방금 엄중취조중이라 한다

兄을쏘라고함으로 아우가巡查를斫殺
巡查被事件에原因

【慶興】 범행좌동순사 참살사건에 대하야 그참살된원인을 드르면아래와갓다 지난십이월 좌동순사는 산림취체의목적으로부근산중에 갓든바 마츰불기이매(井車材料)를맨들기위하야벌목(伐木)하는 사람을맛나 취조하려고 하든중 그사람은 뭇돌녀가서 고생할것을 생각하엿든지 도망하려고 하는것을 좌동순사는 권총을 쏘려고 겨누는것을본 그뒤에 잇든 그사람의동생된 사람은 그형이 권총에 마저죽을것을 생각하고 부득이하여 쥐엇든독긔로써 순사의두눈을 찍어너멋드리고 그만도망하여 버린것이라한다

關北스겟드大會

【新昌】 금년도례년과가티본보신창분국(本報新昌分局)주최와신창체육협회(新昌體育協會)의후원으로 제삼회 관북스켓트대회를 좌긔요항에 의하야개최한다고한다

一、時日 一月三日午前十時부터
一、場所 新昌南大川스켓트場
一、賞品 一萬米[illegible]一等銀컵 二個
一、加入金 每名三十錢
一、申請期限 一月三日午前九時外지
一、申請場所 新昌現代[illegible]

保險社外務員 食價지고逃走
자전거까지 어더타고서

【安東】 약 어개월전에 명치(明治)생명보험회사의외무감독(外務監督)이란 박모(朴某)(假名)와 음수도(?)와 김모(金某)라는자와가티 모다보험가입권유(保險加入勸誘)의 문제로 안의(安義)까지와서 안창려관(安昌旅館)에서숙박하고 잇는중 … 려관식비도 주지안코 자전거점에서 자전거까지두대(二臺)를 어더분승(分乘)하고 잠간거창(居昌)까지 갓다온다고 한지반개월이 넘어도 상금소식은 업는때 려관과자전거주에서는 각각 주재소(駐在所)에 고발하엿다고 하는데 소위외무원(外務員)이란자로서 이와가튼것을 한다고 일반은매우비난하는 중에잇다 하라

盈德의小火

【盈德】 경북 영덕군 읍내(慶北盈德郡邑內) 영덕군 읍화개동(?) … 서준삼(徐春三) 조덕재(趙德在)가항에잇는큰방갯밤으로 살림하는집 뒤편하에는 지난이십육일 하오십일시경에 불이붓허 맹렬이라난것을 이웃사람이발견하야 곧 면소 동을 이르켜즉시영덕소방대(盈德消防隊)가 출동하야얼마후에 진화한바 불난원인도 미상하고 큰손해도 나지아햇스나 맛츰부 일는일긔가 온화하고풍세가고요한고로불행중다행이라고한다

南旨協組開業

【南原】 경남창녕군남지(慶南昌寧郡南旨)에서는지방유지들의 발긔로협동조합을 조직하고 구금모집과 개업준비에 분망중이든바 지난십일날에 제반준비를맛치고 개업하야 오래동안 지방에새의 긔대를 다하던것가튼 감을 늣기게되엿다하며 게임회에당선된역원은다음과갓다한다

組合長=崔演洙 常務理事=丁大守 理事=張吉和 監事金炳國 黃錫根 辛泳斗

道立醫講所 新築計劃
재해에신축할듯

【平壤】 평양의도립의학강습소(道立醫學講習所)는현재태반의설비는 되여잇서 의학전문학교의체재를 가지고잇스나 한가지유감인것은 림상의학강당(臨床醫學講堂)과 해부실(解剖室)이업서그필요를 늣기고 잇다그리하여 동강습소에서는 명년도에는반듯이 시장개교실을 신축치안흐면 안되겟다고 경비약이만원가량의 예산을세워가지고 도당국에 요구중에잇다 동강습소는현재 이학년까지 잇서압흐로이년만 지나면 한개의당당한의사를내이게 하엿스나 긴긔림상강당과 해부실이업서 충분한교수를할수 업스나 금년에엇겟든신축하여야 하겟다는 것이다 이에도 당국에서도 그필요를늣기고주선중이며 실현될 능력이 만타고관측되는 긔리량교실만완성되면 의학교로서의 면목은충분하리라한다

사닭업시 新聞을抑留
三長警察이

【茂山】 함북무산삼장경찰서(咸北茂山三長警察署)에서는본보무산지국(本報茂山支局)관할구역인삼장시내(三長市內)독자에게 발송한본보 지난삼일(三四五六面)을 분실사오륙면 압수하야 잇흘동안이나무리하게 압수하얏다가 지난이십일에야 모다본인에게 돌려주엇다는데 함부로 아무조건도납시압수하는데 대하야 당지일반유지들은 경찰의무리한 처치에 대하야비난이자자하다고한다

渭原邑內 肺炎이蔓延

【楚山】 평북위원(渭原)지방에는 지난십이월초순부터 급성폐염(急性肺炎)이류행하야사망자수가신로 이십여인에 달하엿다는바 폐염에걸린 이는대개가어린아이라는데 아직까지 병석에서 신음하는자가 다수하여지바인는들은매우불안중에잇다고 하다

◇

설마 올에야 하고믿고믿든庚午年은 欺瞞 僞瞞 誑騙으로다보내고 오는도서 辛未新年을 맞았다

◇

하로에도 한뭇집식 밝아놓는 각지방소식 差押 破産 流離 離散 머리아프고 지긋지긋한消息 원수의庚午年과 섭섭아버리고

◇

새로 오는 辛未年과같이 喜悅 歡聲 濶步로 맞아봅시다 稀望地方의 새로 躍動하는 힘찬消息을 기다리고 새覗을뒤아 놓았나이다

◇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각자 박에 보명케되 祥瑞하는 새福을 가祝賀하나이다

라듸오

午前○時三○分氣象概況各地天氣實況○時四○分[illegible]一時三○分[illegible]二時三○分[illegible]六時[illegible]七時[illegible]八時[illegible](大阪)八時三○分長唄(東京)九時演元(東京)九時三○分氣象概況時報

社告

本報保寧支局長을左와如히變更하엿사오니 愛讀諸位는照亮하소서

支局長 吳熙貞

朝鮮日報社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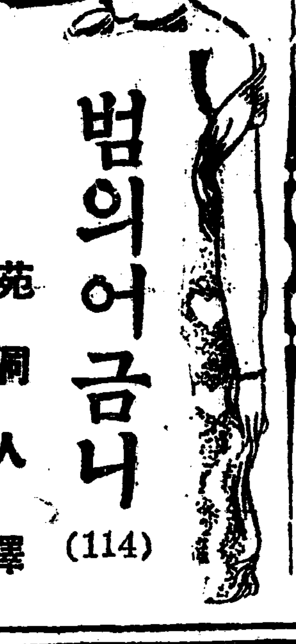
本支局에서左와如히局員을任命하얏사오니 愛讀諸位는照亮하소서

總務兼記者 李世超
顧問 任熙準
顧問 金鐸時

朝鮮日報保寧支局白

범의어금니 (114)

苑洞人譯 駱山生畫



절망 (四)

『아모것도 업섯습니다 보통편지라든지 그외 관계업는 서류 쁜이엿습니다』

고 마수림경부는 대답하얏다

『그러면 그대는 엇던가?』

고충감은 다시위필호에게 대하야물엇다

『네! 저는 조곰자미스러운 사실을 발견하얏습니다』

이럿케말하며 그는 자랑스러운듯이 말을계속하얏다

『그것은녹『싸스피ㅣ어』전집중의한권이엇습니다 그것은 달흔책과달녀 속이비여잇는데 흡사히 마분지상자와모양으로 되여 잇섯습니다』

『올치…… 그래……그러면그속에는……?』

『이것입니다 이조희가 들어잇섯습니다 그리고 석장의 엽서는 모다백지인데 그한장에는 그괴상한 편지가나타나는 일자가 젹히여잇섯습니다』

『허허……그야말로 화실에게 대한 유력한증거로군……그리고 모든사실로써 밋우어본다면 부럴다도 이러한것을 알고잇섯든것이지?』

부럴라는 자못놀내엿다 그는 입며까지 이에 대하야서만은 낫고잇섯든것이다 리소령이그 이야기가온네 왜 이에대한이야기를 하지아니하얏든것인가? 이야말로 참으로 중대하고도 이상한것으로 화실이엿더케하야 누구로부터 이것을 손에넛케 되얏슬가?

『그러면 달흔두장에는 무엇이 쓰여잇든가?』

고 총감은 다시뭇엇다

『이것이 그한장입니다』

총감은 그것을 바더가지고읽는양이엿다

……포발는 편지와 관계업시 오전세시에 일어나라는 것을 니저서는안된다……

『올치……올치…… 부럴라가 이야기한그포발이엿다 그리고 그것은 이조희에 적히여잇는대로 다섯째번 편지의 뒤들이며 일어난단 날이어지…… 우수은일이다 그러나 아모도 시원은 맘엇다 인케세번밧게 편지가나려나지안헛고 온늘저녁이 네번째이니까……흥 리보의의결

을 못밧칠다고? 그러나 그럿케 간단하는 되지못할걸…… 그러면 그윤인가?』

『네…… 갓하!』

라고볼으며 위필호는 다시셋째번조희를 펼처들엇다

『여기에 연필로 그리여노흔 도형(圖形)을 한번보아주시기를 바랍니다 큰사방형(四方形)속에 몃개의 사방형이잇고 다시여러개의 삼각형이 그러여잇습니다 아마근측의 도행인듯합니다』

『흥……올치……올치……』

『그리고 이것은 이집의 도행인듯합니다』

고 위필호는 묵어운어조로 말을열엇다

『이것이 정원이고 이것이 원채이것이수위실 이것이겟채이며그리고 이것이아마 화실의방인듯합니다그런데 여기에서부터붉은연필로 꾸불꾸불한선을아채편으로 그어노앗습니다 그리고 이선의처음에는『十』자표가 질리여잇는데 이것이필연 우리들의 잇는방을 갈르친것일것임니다 즉 좀더 적확하게말하자면 저침대가노혀잇는 곳일것 임니다 흡사히 굴뚝이 잇는것가티—아니 차라리 다락이 잇는것가티 표시하야잇습니다 그리고 그다랍은 침대의구석편에 잇는것으로 평소에는 회창으로 가리워서 잇는것이나 아닐가합니다』

『위군! 그럿타면 이방으로부터 아채편으로통하는 비밀한통로라도 잇는것가티 생각되지안는가? 올치! 달은한때에도 붉은빗으로『十』자표가 졸리여잇네그려』

『그럿습니다 거긔에도『十』자표가 졸리여잇습니다 이것이며처 어느편위치를표시하는것갓는지몰으겟습니다다미구에확실한것을 알게는될터이지만지금간단히주측하야본다면 어쩌무렵리와 화실과리소령이 비밀히맛난 이층의조고마한 방이나아닌가합니다 그리햐야 거기에다가지금 경관을 배치하야노앗습니다 그러나 말하자면 저에들은그런케하야 브럴라의 숨은곳을알녀는것입니다』

謹賀新年

京城貫鐵洞 朴[illegible]鎭 電光二一六五番

京城府仁寺洞二〇六 賣藥醫工 處方調劑 再生堂藥房 電略サイ又ハ재

朝鮮京城鍾路二丁目 蔘茸補益水本舖 株式會社 模範賣藥商會 電話光二〇七 振替四七二

京城府齋洞八六 朝鮮通信中學館 電話光化門一三七二番 振替京城五六六五番

京城鍾路一丁目七十五番地 內外各種 新舊書籍 出版發賣 東洋大學堂 振替京城七五二番

京城府冷洞五番地 花柳病及强壯劑專門 保生藥院 振替京城一七一〇九番

京城府橋南洞一一〇番地 赤十字藥院 西大門局私書函十四番

京城府鍾路三丁目八〇番地 耳鼻咽喉科專門 沈相天醫院 電話光一〇七九番

京城太平通二丁目 濟生堂藥房本舖

京城府太平通二丁目 祛痰止咳散製造元 慈善堂製藥株式會社 電話本局四三二一番 振替京城一九〇七番

京城府仁寺洞七十五番地 毛系商 大吉商店

京城鍾路四街里 金銀美術 製造販賣 潤光商會 電話光化門一五六五番 振替京城一一八七一番

京城府南大門通一丁目一二七番地三 株式會社 崔潤錫商店

京城府鍾路通二丁目一百一番地(鍾閣前) 金銀細工 寶石珊瑚 眼鏡時計 新式雜貨 冠帽元衫 人造珊瑚 各種扇子 都散賣商 裕昌商會 主 金載德 主任 金載聲 電話光化門三八五番 振替京城八〇〇八番

京城鍾路二丁目四五(鍾元앞) 竹南商會 儀式部 電話光化門一六九九番

京城府蓮池洞二七〇番地 朴家粉製造所 長電話光化門三二〇番 振替京城九九一番

京城府公平洞六九番地 毛物補褥 紋帳 旗只冠服 簾席 扇子조바위及 百貨都散賣商 元光商店 電光一六七三番

鍾路四街里 獨立寫眞館 寫眞師 朴晩達 電話光化門二〇二三番

京城仁寺洞一三二番地 太極寫眞館 李完根 電光四七九番

京城府鍾路一丁目四十番地 時計眼鏡 貴金屬商 大元堂 電話光化門一七五七番 振替京城一一六九番 崔貞基

京城府橋南洞 活命堂藥房 電光二〇四七番

京城府齊洞 活命堂藥房分店 電光一七五三番

謹賀新年

京城西部

京城市外新孔德里一〇三番地 朝鮮酒類麯子 精米及穀物貿易委託販賣業 大昌釀造場 主 朴炳大 電話龍山一一七〇番

京城市外西江 私立懿法學校職員一同

京城市外倉前里 朝鮮日報京城西部支局員一同

京城市外新孔德里五八番地 朝鮮酒類製造業 龍一釀造所 主 李敬寬 電話龍山七一三番

支店 京義線汶山驛前仙遊里 坡州龍一釀造所

京城市外土亭里一二九番地 穀物海産物委托柴炭貿易業 直輸入都散賣 憲璿商店 主 朴憲璿

京城府麻浦洞九四番地 泰興精米所 電話龍山五三六番

京城市外東幕上里 文化醫院 醫師 禹弼舜

京城府靑葉町三丁目一〇七番地 各種護謨靴 洋銀模形製造 金明壽

京城西大門外孔德里一三九番地 種雛種卵 食用卵 首陽園養鷄場 吳誠煥

高陽郡龍江面玄石里一一三番地 海陸物産委托販賣業 徐廷鎭

高陽郡龍江面東幕上里七一番地 穀物、薪炭委托販賣業 呂運轍

京城府[illegible] 製材製油玄米 麥粉精米鑛山 機械製造製粉設備 械附屬品製造業 李光淑鐵工場 電話龍山九六二番

龍山線西江驛前 ◎朝鮮運送株式會社西江代行營業所

京城府元町一丁目二三番地 和洋스토-브、메달製造 建築土木金物鑛山機械 一式其他各種鑄物專門 梁大順鑄物工場 電話龍山四八五番

高陽郡龍江面東幕上里 金益洙

京城府靑葉町四丁目 [illegible] 京城府各官衙各病院 特定御用達 三台牧場 主 成鳳宣 電話本局二八八八番

京城府麻浦洞一六五番地 光惠醫院 院長 朴約翰 金道善

高陽郡龍江面東幕上里二〇二番地 陶酒藥酒 燒酒製造業 海龍釀造所 主 高順賢 電話龍山一〇一九

京城市外東幕 李學載

京城府蓬萊町四丁目 李石璟 電話本局一七四四番

三十一年新型 砲金、銅、眞鍮 パベットメタル アルミニユーム 最新式長靴 各國護謨靴 諸運動靴型專門 安永成鑄作所 京城府岡崎町九二(錬兵場停留場前) 電話龍山一一九四

京城市外阿峴里三九五番地 新派舊派映畫常設 興龍館 李壽延

京城府麻浦洞一四八番地 麻浦號質屋 李泰鎔

東幕漢一藥局 尹炳求

京城府麻浦市場 製菓卸都賣商 鄭雲龍商店

京城府麻浦洞三〇四番地 仁昌精米所 電話龍山五七九番

京城麻浦洞 憲昌精米所 電話龍山五七番

東幕驛前 ㊝運送店 主 朴商鎭 張基璜 電話龍山九四一番

京城府元町一丁目一二三 建築諸車製造並修繕 吳今成鐵工所 電話龍山取次四八五番

京城市外東幕下里一五二番地 燒酒改良酒麯 酒類酒精製造業 東湖釀造合資會社 電話龍山一一二四三番

龍山驛前 ㊂荷主運送組合 代表 徐廷夏 朴羲秉 電話龍山一六番 支店龍山東幕驛前 電話龍山一一六六番

京城西大門外阿峴里一九四番地 藥酒、濁酒 燒酒製造業 元屋釀造所 主 元敬民 電話光化門一四六二番

京城府桃花洞 映畫常設 桃花館

京城府元町一丁目一二三番地 合資會社 新古銅鐵金物商會 代表 高鳳煥

高陽郡龍江面玄石里 海陸物産委托販賣及貿易商 主 李致養 李基周 電話龍山一一六六番

京城大島町 藝娼妓組合員一同 (舊龍山)

京城府麻浦洞三番地(觀瀾橋越便) 綢緞布木白米洋襪帽子石油 雜貨鐵物釜鼎磁器木器漆物 其他各種具備 都散賣商 順興百貨店 主 池点同

京城府山手町一六〇番地 人天敎大本院

京城市外阿峴里一〇一番地 朝鮮酒類製造元 阿峴釀造所 金春根 電話光化門一八五九番

新村驛前 ◎朝鮮運送株式會社代行營業所 支店 東幕驛前㊀高陽運送組

京城府外東幕下里四七〇番地 朝鮮酒類製造元 東興釀造所 電話龍山一一五六番

京城府岡崎町九九番地(錬兵場停留場前) 洪淳敏鐵工所 電話龍山五六四番

高陽郡龍江面協議員 全允銖 下水落里一一六番地

京城府元町四丁目(舊龍山) 酒類製造 [illegible]釀造所 主 朴仁瑞 電話龍山一一二四番

高陽郡恩平面 白蓮寺 住持 金西湖

高陽郡恩平面 面長 徐奎錫

高陽郡龍江面玄石里 陸海物貿易委托業 龍江商店 主 盧善載 電話龍山八二三番

高陽郡龍江面玄石里九一番地 穀物委托販賣業 張基萬 電話龍山九四一番

高陽郡龍江面玄石里一四五番地 穀物委托販賣業 李晚宰 電話龍山一一二三番

新興

新興郡 郡守 朴在弘

新興郡廳職員一同

新興警察署 署長 恩田宗五郞 外職員一同

新興郡加平面職員一同

新興郡加平面 面長 韓徵維

新興郡加平面 加平公立普通學校 職員一同

新興郡加平面長豊里 長豊炭坑木商會一同

新興郡元平面長典里 典洞果樹園主 廉弼模

新興郡元平面長下里 朴長英 柳次男

新興郡元平面西上里 李俊健

新興郡下元川面明太洞金山 林普圭

新興郡永高面 面事務所落成 面職員一同

新興郡永高面 祝面事務所落成建築[illegible]成會

新興郡永高面慶興驛前 間組配下 劉學豊

新興郵便所 所長 小野敎明

新興金融組合 理事 金弼奎

新興森林保護區 職員一同

新興邑 代書業 李忠基

新興邑 精米、運送業 大豆、官鹽 滿洲粟 朴萬彬商店

新興邑 新興公立普通學校 新興公立尋常小學校 職員一同

新興邑 李景燮

新興邑 天道敎宗理院

新興邑 代書業 柳采轍

新興邑 料理業 平壤館 金重玉

新興邑 玄昇鎭

新興釀酒所 金永翊

新興文化印刷所 朱在南

新興郡加平面鐵水里 劉衡國

新興郡加平面 無名氏

新興郡加平面豊上市 營業組合員一同

新興郡加平面豊上市 和洋雜貨食料品商 宋泳翊

新興郡加平面豊上里 李秉龍

新興郡加平面興南里 綢緞布木商 朱昌謨

新興郡加平面豊上市 ㊅大成運送店

新興郡加平面豊上市 豊上釀酒所 金瀅鳳

新興郡加平面豊上市 飮食店 朴長濬

新興郡加平面長豊里 李龍柱

新興郡加平面豊上市 綢緞布木商 乾泰默

新興郡加平面豊上里 李昌伍

新興郡加平面豊上里 韓信維

新興郡加平面德安陵 參奉 任選鎬

新興郡加平面鐵水里 劉伯奎

新興郡東古川面 私立東成學校設立者一同

咸興地方法院前 司法代書人 李泰浩

新興郡加平面陵里 魏達煥

新興郡加平面陵里 安、敏興

新興郡加平面陵里 [illegible]俊鎬

咸興府新昌里一三八 李典鎬

咸州郡州北面濃峰里 金承浩

咸州郡州西面興南里 柳榮韶

新興郡西古川面 職員一同

新興郡西古川面昌端里 李裕綽

新興郡西古川面德中里 劉東源

新興郡元平面 私立元平學校 李[illegible] 朴炳淵

新興元平面元平市 元平釀酒所 鄭愈澈

新興郡元平面中里 黃明璣

新興郡元平面長下里 李泳翰

新興郡元平面長上里 朴孝謙

新興郡元平面千佛山 開心寺住持 張法暹

新興郡千佛山開心寺 開心寺旅館 洪性協

新興郡千佛山開心寺 普門菴住持 李道一

新興郡元平面西上里 李在淵

新興郡元平面西上里 李鎬均

新興郡元平面中陽里 朴豪晃

新興郡元平面西上里 李濟健

新興郡元平面千佛山市 元豊旅館主 海陸物産委託販賣 朱炳敎

新興郡元平面千佛山市 時興堂 明時澤

新興郡元平面千佛山市 綢緞布木商 右永夏

新興郡元平面千佛山市 德元商店 張弼寶

新興郡元平面千佛山市 海陸物産委托販賣 三共旅館主 洪濟一

新興郡元平面千佛山市 旅人宿 [illegible]植南

新興郡元平面千佛山市 元平旅館 崔吉赫

新興郡元平面千佛山市 丸金運送店 切手賣捌 文益相

新興郡元平面千佛山市 飮食店 陳君三

新興郡元平面新成里 一朴[illegible]茂

新興郡元平面[illegible] [illegible]

新興郡永高面慶興里 全[illegible]

新興郡元平面千佛山市 代書業 朱洛準

新興郡加平面豊上市 金[illegible]仲

新興郡松興驛前 ●運送店

新興郡東上面元豊市 天道敎東上宗理院

新興郡東上面 東湾醫院長 文楨燮

新興郡慶興驛前 綢緞布木穀物 磁器그릇官鹽 李信均商店

新興郡上元川面 面職員一同

新興郡慶興驛前 大同菓子店白石

新興郡永高面慶興驛前 崔興皓商店

新興郡下元川面 森林保護區 朴長皓

新興郡永高面松興里 姜奉順

新興郡下元川面 面長 任瑨準

新興郡下元川面 警察官駐在所職員一同

新興郡永高面 警察官松下出張所 島榮行外 職員一同

新興郡永高面 警察官永高駐在所 職員一同

新興郡上元川面 私立元興學校職員一同

新興郡邑內 宋鍾弼

咸州郡五老里宋楨源醫院 院長 宋楨源

新興郡東上面新成里 東成釀酒所

新興郡東上面廣大里四區 全時奎

新興郡東上面元豊市 東新興農民社

新興郡東上面達阿里 申永淳

新興郡東上面達阿里 國有森林組合職員一同

新興郡東上面達阿里 申鉉斗

新興郡咸地院診療所 洪[illegible]

新興郡東上面達阿里三區 [illegible]春澤

新興郡東上面達阿里 李承烋

新興郡東上面達阿里 金燦求

新興郡東上面元豊市 元豊商店主 任金斗根

新興郡東上面廣大里八區 面協議員 朱[illegible]

新興郡東上面廣大里八區 崔民社

新興郡東上面新成里四區 韓甲麟

新興郡東上面咸地院 旅館主 李[illegible]

新興郡東上面新成里一區 李完

新興郡新豊里公立普通學校 姜[illegible]求

朝鮮日報

猶太人의『시온이즘』과將來 其二

弱少民族運動의展望

【二】 李如星

『시온이즘』과英國

『시온』의 녯터를다시차저서 『여호아』神의 選民인 猶太人의萬代의 繁榮을 엇하고저하는것은 猶太人의부르짓는『시온이즘』의 理想이다 일즉『시온이즘』에對하여는 本紙에한번紹介한바 잇섯스니 다시重復하지 안켓거니와 埃及態度와印度政勢가 變하여가는데따라『시온이즘』의政治的意義는더욱더욱 注目되는것이매 이제는그將來를展望하여보고저한다

英國은『지부랄타르』海峽『말타』島、『기푸로스』、埃及、『팔레스타인』、『해와즈』、『아덴』、『오만』、『메소포타미안』『트란스요다니다』、『이락』과波斯에이르기까지 印度通路의絶對安全을 保障키爲한 政治的細工을 하여왓다 그러나 埃及國權黨(『와프드黨』)의 反英的態度는『수에수』運河通行權에對한위지안흔 威嚇인同時에英國이 埃及以外에 발부칠곳을찻고저하는것은 當然한일이엇다 이關係를 미루어보다할지라도 『팔레스타인』에 猶太人의 完全한 獨立國을 承認한다는것은엇게어려운일이 안이면 안일것이다

그러나英國人이女神의『베일』을 쓰고 猶太人압해出現하야 『발포어』宣言으로 그것을約束한것은 무슨까닭일가? 『아라비아』回敎徒의 阻止할줄몰으는反英運動을 猶太人으로하여금이것을牽制케하야 英國은漁人의功을坐受코저한 政策的行爲임에 버서나지안는것갓다 英國으로서『팔레스타인』委任統治에對한或種의 責任感을가지게되다는것이거오 國際聯盟規約第二十二條四項과『팔레스타인』委任狀第二條에 英國은이地方을自治의方向으로 發達식히도록 努力하여야한다는것이며 猶太人에게 或種의政治的待遇를 規定한 一項一條가업스니 『팔레스타인』은 오직英國人의 組上에올나 그慈悲만을 기다리는 處地에잇슬뿐으로서 英國이『팔레스타인』猶太人에 對하야 그獨立을 約束하는것은 明白이 그엇고저하는點이 다른데잇는것을엿볼수잇다 果然英國은『팔레스타인』안이란『수에수』北岸要衝地를노코엇더한方法으로 이것을料理코저하는가 거기는 猶太人과『아라비아』人과 英國人과의政治的三角關係에서 複雜한問題가 일키어잇다

復國運動

猶太人은 世界에散在한一千五百萬同族으로부터 猶太國民基金과 『시온이스트』一般基金이라부르는 二個의 大財團을 組織하야『팔레스타인』에 猶太人移民政策을 세우고 一家族에對하야 二十五『에ー카ー』의 土地를 四十九個年間貸附하되 最初五個年間은 地代를밧지안코 그다음부터는 僅少한地代를밧는다 財團은最初에萬七千『에ー카ー』를買收하엿스나年年五百萬弗式그基金이늘어가는터임으로計劃도漸次擴大하야市部의住宅地(排水、給水、道路等設備도잇다)를設定하고移住者의便宜를 또한도으다 移住한猶太人은 個人的家族本位制의植民區域이잇고 또共同耕作制가잇서서猶太人『네순빌·홍ー』의理想的建設을 研究實行中에잇는바 그莫大한財力으로『요단』江水量利用하야 水力電氣를일으켜照明과動力에供給하며 가장非衛生的인 沼澤地帶를排水하야『마라리아』모기를다쏫츤뒤美田을만들며 住宅을세우는等놀날만한 土木事業이進展되고잇다 이리하야猶太人의 植民運動이일어난뒤로『팔레스타인』에는勞賃이올으고 近代資本主義的諸施設이着着建設되여『아라비아』人은 驚嘆하는한편으로暫次恐怖와猜忌를가지게되엿다

特히英國人은猶太人復國運動에政治的後援者가되여『팔레스타인』英國政廳으로하여금猶太人에게는諸種의 權益을提供하는바잇스되『아라비아』人에게는 純全히植民地土人待遇로서何等政治的權利를 約束치안엇슴으로더욱猶太人은亞人의憎惡의對象이된다 萬一委任統治를 마튼 英國으로서 猶亞兩族에게 一視同仁的政策을 取하엿드라면 一九二一年中二回의猶人虐殺과 一九二九年猶人大虐殺은 決코일어나지안엇슬것가티推定되는바이며 오히려亞人은 猶太人의그政治的不遇를 同情하고『팔레스타인』開發에 協力하엿슬것이다

本論文의重要目次

一、猶太人의『시온이즘』과將來
二、非律賓問題와將來
三、印度問題와그將來
四、黑人運動과그將來
五、安南人問題와그將來
六、埃及運動과그將來
七、阿富汗과英露關係將來

『시온이즘』의反對

『세리프·후센』을 總帥로하는『아라비아』人은 一九一六年聯合軍과의 協定에依하야 土軍과 戰爭을 開始한뒤 土軍을『요단』東部에 驅逐하야 英軍의 右翼을擁護하고 그의『팔레스타인』占領을容易하게하엿나니 그러나 戰爭이거친뒤英佛國은『오래동안 土耳其抑壓下에잇든 人民을完全히解放하고 그人民의創意와自由選擧에依하야國民政府建設을目的한』이라는그最初의宣言을無視하고 土耳其로부터 分離된地方을『이락』『시리아』『팔레스타인』『트란스요다니아』의 四國으로分하야 各各英佛委任統治下에둔뒤 經濟的墻壁을 그周圍에세웟다『후센』王은 이에抗議를提起하엿스나어든바업섯고『이븐소ー드』와 紛爭을일으켜 帝位를빼앗기고汎『아라비아』運動은 『소ー드』가指導하게되엿다

이와가티聯合側에完全히欺瞞된『아라비아』人은 그情狀이 米西戰爭後의 非律賓人과가티서 戰後『아라비아』大帝國建設은한 아름다운꿈이되고 金錢과人命만犧牲식혓슬뿐임으로 亞人의不平은極度에達하엿다 더욱히少數의猶太人과가티 一千三百年間서로提携하야平和하게지내오든곳이나 戰後右手에米國돈을가지고左手에『발포어』宣言을가진『시온이스트』가『팔레스타인』에들어온것은亞人의處地로보아 英國人侵略政策에 한『압제비』以外에는 아모것도안인것가티 보혓다『아라비아』人은 녯적부터 外人에게完全히 征服되여본經驗이업는것을말하고 二十世紀英人이 猶太人 百萬名을『팔레스타인』(現在人口約百萬中猶太人十六萬)의 亞人을 境外로 驅逐한뒤그다음으로『트란스요다니아』『이락』等地로 그勢力을피라할것은 必然할일일것임으로 英國의『시온이즘』後援은 結局『아라비아』新式征服術에 不過하는것이라하야『시온이즘』과 積極的으로 抗爭하여야할것을 主張한다 이에對하야猶太人은 무엇을말하는가

猶太는 大戰時英國遠征總司令官『아렌비』麾下에모혀『팔레스타인』을 土耳其로부터 奪還식하고저 努力하엿다 戰後聯合側은 그努力과 同地의歷史的要求를 承認하야 猶太人復國運動을許하고 英國으로하여곰그것을指導助言할義務를 委任하엿다 그래서英國은 猶太人建國運動을援助하고 그區域內에잇는 人民의市民權과 信敎權을 保護하게되엿다 勤勉한猶太人移住로서 數世紀間荒廢한『팔레스타인』은 開墾되고 瘴疫沼澤地는 排水되엿스며砂漠은灌漑되고『예수살넴』聖地는 無數히새롭한 現代的建物로서 園藝되엿슬뿐안이라 水力과電氣가 坊坊으로드리가富裕와繁榮과文化를 맛보게되엿다 그리고 猶太人의歷史的權利는 決코在住『아라비아』人의權利를 侵害치안는것이니 이는『발포어』宣言及『팔레스타인』委任狀中에 保障되여잇다 大多數의亞人은 從來土耳其의 壓制下에 奴隷가티 生活하엿스나이제는新來의 猶太人으로 말미암아 文化的感化를 바더서徐徐히그生活을改善하고잇다 最近統計에依하면『팔레스타인』의面積은 約二百七十萬町步인바內百萬町步가 耕地요百八十萬町步는 아즉荒蕪地로서今後二百萬人은 훌륭히 收容할수잇는터이니 이제겨우十六萬의猶太人을보고亞人의 驅逐될것을想像하는것은 一種杞憂에不過한다 五十一個國이 承認한猶太人의 歷史的權利를 올흘로亞人이反對하야 『발포어』宣言破棄、移住停止移住猶太人에게준모든權利抛棄를 主張하는것은不可한일이다

「鞭羊爲石」
春谷高義東氏作

◇寫眞說明 右上은『발포어』 猶太訪問時猶太人紙의歡迎號外

一九三〇年의 歐米國際情勢總觀 (一)

◇倫敦海軍軍縮會議의回顧

李瑄根

샛ー얀地平線넘어로 하로동안의모ー든疲勞를실고 커녀햇발이 숨그머니너머가듯 一九三〇年의世界政局도 맷치解決짓지못한가지가지의問題를그대로무석여안고 險惡한雰圍氣속에 숨맷어지내치고마럿다 平和를意味하는羊으로象徵되여찻날을마지하게되는올해의 압길은그엇지나될것이냐? 和平일가? 紛爭일가? 그맷치안으면또다시 險惡하고도不安한속에서헤매이게될것인가? 風雲을담어가지고넘어온 歐米政局의압날을헤아리기前에 우리는잠間고개를도릿켜 過去一年동안의발자최를 다시한번살려보기로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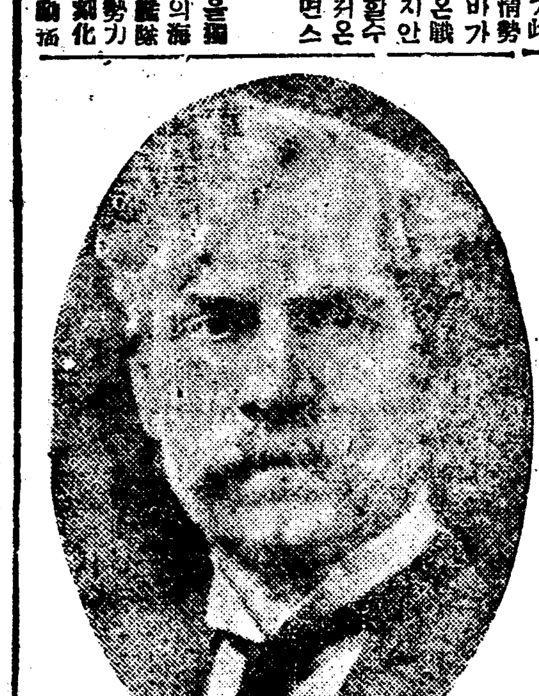
◇

一九三〇年의歐米國際政局은一月二十一日以來 倫敦의『세인트·젬ー스』宮殿에서開催된 日英、佛、伊의 五國海軍縮會議를中心으로 展開되엿스니 產婆役인『맥드날드』首相을爲始하야 列國의代表가 開會하기前外지此會議의意義를외오친바는 外로世界平和를爲하고 內로國民負擔을輕減케하는것이라고하야 자못놉흔만하고듯음만한바가잇섯다

그러나 한발거름을나아가 此會議가成立되기外지의裏面情勢를살핀다면 列强의바라는바가 決코眞心誠意에서 울어나온 戰爭絶滅이나 和平樹立에잇지안코 딴곳에잇다는것은짐작할수잇스니 그領導的地位를가지은 英、米兩國의內心을살펴보면스사로瞭明할수잇다

◇

世紀를通하야 世界海上權을獨占하고 只今外지二大强國의海軍聯合力을標準으로한 大艦隊를維持해오든 大英帝國의勢力은最近에이르러 加一層深刻化해가는財政困難에 根本的動搖를늣기게되엿다 안만안이라 戰後의偉大한金力을가지고 斷然挑戰的態度를取하게된 米國과의軍擴競爭에 到底히應酬할能力이업게되엿스니 적어도現在外지의優勢를 維持하는程度에서 一時的으로라도 米國과妥協하야 造艦競爭을中止하는同時 無意味한最大冗費를節約하자는 慾求가 英國을움즉이게된것이事實이요 이가튼慾求를代辨主張할者로『맥드날드』首相自身의 進出을보게外지되엿것이다



이러한一面 米國으로보면될수잇는限 英國의軍力을壓頭하고軍事上의 覇權外지獲得하야그經濟的覇權을 世界的으로維持해보지는野心이 더욱굿세게되엿다 그러나只今外지自由와平等을建國精神이라내세우고有事일때마다 世界平和의使者로自處하야 機會均等 門戶開放等을主張해오든米國이라 從來의體面上 世界平和란金看板미테나타나는英國의軍縮提案을拒絶할수업는것도事實이니 이에英米兩國은彼此『눈가리고아웅』格의握手를 交換케된것이오 다음으로그네의妥協案을基準하야日、佛、伊諸國에도協調를要求하는同時그들과의海軍競爭外지中止시키자는것이 今番會議를엿든 英米兩國의計劃이엿다

◇

이갓치하야開催된會議니만치 그의進展은 停頓에停頓을거듭하고 決裂의危機를몃번이고처른後에 滿三個月을經過하야日米의苟且한妥協으로 四月二十二日ー그도 佛、伊兩國은意見이맛지안어떠러처버리고ー所謂日、英、米三國의協定이完成케되엿다 이三國協定의詳細한內容全文은 此를枚擧할必要가업거니와 그大體의成果를살펴보면 一九三六年外지 建艦中止를約束하야 經濟的으로는主力艦의代艦建造延期로 一九三六年外지

日本이 約三億五千萬圓
英國이 約五億圓
米國이 約六億圓以上

의經費節約을하게되엿고 政治的으로는 如何間此條約의成立된結果 日 英 米三國間의海軍競爭이 一時的으로라도中止된形式下에 相互의親善을날하게되엿다 그러나此會議의참된成果를冷靜히살펴본다면 吾人은關係各國의國粹的인軍人측이 此를罵倒함에贊成치안는그만치會議에列席하얏든主要人物의成功談과禮讚에도苦笑以上의아모런說辭를드릴수업는터이니 이것이結局은彼此間體面維持를爲한 一時的妥協에 不過하고 根本的解決에잇서서는前途遙遠할뿐안이라 오히려樣式을變한軍擴으로된다는때문이다 日本의補充計劃과 其他各國의空軍擴張說은이것을證明하고도남는것이안이랴 列强의不純한內心은去年十二月九日에可決한國際聯盟主催軍縮準備委員會에서의一般的軍縮案이 虛名無實하다는데서엿업시 暴露되고마럿다

◇寫眞◇上은『센·젬스』宮殿 中은『맥드날드』首相 下는軍縮會議光景

謹賀新年

京城府明治町一丁目八二番地
東亞殖產洋行
電話本局四三六番
振替京城一九一番
電略(トア)又ハ(동)

京城府鍾路二丁目
朝日洋服店
主 張世均
電光一八三九番
振替京城六九三六番

トンボ朝鮮레코ー드一手大賣捌元
洋樂器具及各種레코ー드卸賣及小賣
琴喜商會
琴喜樂器店
京城府鍾路二丁目八〇番地
振替京城一四三〇九番
電話光化門一六三七番

京城府水標町
金楨漢

京城府鍾路二丁目二四番地
서울洋服店
洪祀裕
電光二二八二番

京城府西大門町二丁目八八
染料原料專業
殖產公司

京城府黃金町一丁目一八一番地
勸業殖產社
電話本局四一六二番
振替京城一五七四七番

京城南大門通一丁目三十三番地
蔘茸唐草藥材直輸入商
永昌堂乾材藥局
崔聖弼
振替京城一二〇四番

京城南大門通一丁目三番地
金玉堂齒術院
金敬執

京城公平洞一番地
高永珣內科醫院
電光一六二六番

市內鍾路四丁目一二
全鎣弼
電話光二一三八
一三八五番

京城黃金町七丁目一三四외一
益母草엑기스本舖
大盛堂
振替京城一八三九八番

京城鍾路二丁目青年會館
世昌洋靴店
主 梁世鎭
電話光一〇三七番

京城鍾路三丁目貳拾番地
綢緞布木
孫鍾洙
電光一四八二番
支店 橋北洞一一七
電光一一三七

京城府茶屋町七八番地
朝鮮料理스기야기
茶香園
電光二〇一四番

丁子屋

京畿道金融組合聯合會
道內各金融組合

高居瀧三郎

國際通運株式會社京城支店
支店長 竹井三郎

陳內組

花園佐吉

東京建物株式會社京城支店

世界와 朝鮮을 휩싸는 不景氣의 對策如何

實業界各方面名流의 意見

本社主催經濟座談會

一九三〇年! 世界의 不況도 甚한것이엿지마는 朝鮮의 不況이야말로 우리에게 큰 威脅이엿다 이무서운 不況! 그지낸일은 回想할때에 그 暗黑의 深刻하얏든것을 늣기는 同時에 또한 압흐로이 不況이 얼마나 繼續될것인가 또는 어느時期까지만 支續할것인가 그進路가 엇더할는지 그에對한 우리의 對策은 무엇일까 그對策이 잇다면 그를能히 實現하야 이不況을 버서날수가 잇슬것인가 朝鮮의 不況은 남달리 深刻한만치 우리의 누구나 몹시알고 십흔 問題이다 때는 豊作飢饉의 소리와 影響이 가장 만흔 年末의 決濟期에 臨하야 압흐로 幾日이아니면 新年을 마지하게되얏다 이機會에 經濟界各方面의 有力한 實際家를 招請하야 우리의 懇切히 알고저하는 이不況問題를 가지고 座談會를 열게된것이다 出席諸位가 모다 實際家이오 努力家이며 勢力家이오 또한 研究家인것만치 그論議은 一言一句가 모다 熱情的이엿고 徹頭徹尾하게 緊張味를 띄엿든것이니 이不況의 實際問題를 論究한바는 반드시 世에 裨益할바가 잇슬것인가 한다

不景氣對策座談會

時日 庚午十二月十九日午前六時

場所 市內敦義洞明月舘本店

出席人士

朝鮮生命保險會社支配人	梁在昶
永光精米所主	洪泰賢
海東銀行支配人	文尙宇
興一社支配人	李賢在
東亞婦人商會主	崔楠
中央繁榮會理事	宋在和
京城穀物組合副組合長	金光準
延禧專門校敎授	孫
本社側	安在鴻 李瓘根 柳光烈 裵成龍 金起林 尹綺老

主催側의 人事

安 今年도 벌서 다 저물어서 한달음이 멧칠 안남엇습니다 事業關係로 이 歲末에 모다 퍽은 밧부신터인데 이처럼 와주섯스니 참으로 感謝합니다 요새 全世界를 휩싸는 經濟恐慌은 朝鮮에와서 가장 甚하여저서 米價의 暴落된 事實을 中心으로 一般生活이 極度로 어렵게 되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平素에도 여러가지로 이 經濟恐慌問題 ─ 요새 所謂 不況問題에 對하야 어떠케 打開할길이 잇슬는지? 그方面에 直接關係를 가지시고 항상 體驗과 研究를 거듭하시는 여러분의 高見을 듯자고 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勿論 우리들이 經營하는 新聞이란 그것을 보담 잘 맨들자고 하는 私情도 잇겟지만 同時에 여러분의 高見을 빌어서 이不況打開하는 方面에 어떠한 光明이 잇다는 것을 외처주거나 그러치못하면 지금부터 엄어차릴 무엇을 보여줄수 잇다면 社會에 奉仕하는 點으로서 매우 緊要한 일이라고 밋습니다 그리고 이자리에 出席하시기로 快諾하섯든 분이 만흐섯는데 어쩌 오늘 통 안못오시겟다고 하신분과 또는 이처럼으로 별란간 못오시게 되는분도 잇서서 자못 遺憾입니다 그러나 金融、産業各方面에 게신 여러분이 이처럼 골고로 出席하섯스니 目的하는 座談會를 열기에는 充分하겟슴으로 그는 衷心으로 滿足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런 話를 하자면 盛饌을 準備하고 자리도 매우 緊要하게 차려야 하겟는데 말과 가티 粗餐이오 또 자리도 講陋합니다 조용히 안저서 緊談한 態度로 이 問題를 檢討하고 십습니다

不況의 原因은 무엇무엇인가

裵 여러분은 大部分 實業界에 게시는 터이니 이年末에 매우 奔走하시을것을 不拘하시고 이러케 한자리에 모시게된것은 衷心으로 感謝합니다 그런데 今日의 世界와 朝鮮을 휩싸고잇는 不況은 그程度가 매우 深刻한때 이자리에 게신 여러분은 그 實際事務에 關하시는것인만큼 每時刻마다 만흔 波動을 直接 밧게되실터이니 더욱 敏感이 실것을 잘 斟酌합니다 大體 이가티 甚한 不況의 原因을 간단히 말슴하면 어데 잇슬까요

安 아마 直接原因은 生産過剩에 잇겟지요

孫 그럿슴니다

安 그리고는 各國의 關稅引上도 한原因이 되겟지요

世界各國의 生産 過剩과 關稅戰에도

孫 一九二七年以來에 世界 關稅障은 매우 激化하얏습니다 今年의 米國關稅引上이 伊佛等諸國으로하야금 報復的으로 關稅를 引上케하얏지요 關稅를 놉혀서 自國産業을 保護하라는것은 米國共和黨의 傳統的綱領인데 特히 후버1氏의 政策은 保護主義의 色彩가 濃厚합니다

裵 그러나 近來各國의 關稅戰이 激化한것은 生産過剩이 그原因이 아닐까요

孫 그럿치요

安 이두가지의 事實은 서로 矛盾되는것이 아니겟지요

孫 그럿치 안습니다 自國의 生産品이 過剩되야 그 販路를 他國에서 求하지 아니할수업는 것이 現下列國의 趨勢입니다 米國은 그 過大한 生産을 輸出할 市場이 업는 때문에 여기에서 생기는 矛盾으로 因하야 米國의 經濟는 窮地에 빠지어서 生産品輸出代로 百三十億이라는 巨額의 金融資本을 他國에로 出動식힌것입니다

日本에서는 金解禁 遲延이더 關係잇다

文 나는 不況의 根本原因는 歐洲大戰에 잇다고 생각합니다 日本은 戰勝國의 하나로서 大戰의 結果로 一時에 큰 富力을 엇게되고 그[illegible]時代가 永[illegible] 速히 繼續할줄만 알고 以後에도 合理的生活을 못해왓습니다 별로 서오래前부터 金解禁을 하랴고 애썻스나 이것을 斷行함에는 非常한 困難이 잇슴으로 엇던時期이든지 斷行하지못하얏든것입니다 그리다가 大正十二年의 大震災와 昭和二年의 金融恐慌으로 因하야 그동안에는 金解禁의 時期가 느저지고 그에 그에를 彌縫하면서 外來品의 代價도 一年에 一千萬圓乃至五千萬圓金의 損失을 보고 잇섯다 그뿐아니라 金解禁을 아니하니까 外國輸入品을 비싸게 사지 아니할수가 잇섯다 이러한 例를 보드래도 今次의 世界不況은 一朝一夕의 일이 아니다 大戰時에 그原因이 胚胎된것입니다

孫 大戰中에 英國 米國 日本의 物價指數를 比較하면 英、米는 日本보다 五十「포인트」씀 上位에 이엇섯는데 戰爭後의 整理期에 入하야서는 英、米는 低下하고 日本은 比較的 떠러지지 아니하야 英米보다 約三十「포인트」씀 上位에 이엇지요 그것은 日本이 戰爭後에 好況時代의 規模를 徹底히 整理치 못하고 現狀을 擁護한 外닭입니다 더욱 昭和二年 金融恐慌 以後의 特別融通과 震災手形整理等으로 通貨가 膨脹해서 生産力과 購買力이 均衡을 이러버렷습니다

金의 米國偏在와 金融資本의 出動

또 米國도 돈을 만히 버려서 金을 流入하얏슴으로 그로因하야 生産이 過剩되얏스나 關稅障으로 因하야 그國際的 進出은 比較的 不振하얏습니다 이러케 購買力의 伴하지 못하는 生産力의 膨脹은 世界的現狀입니다

그러나 日本은 金輸出禁止로 因하야 物價는 低下치 안엇스나 그 低下한 內在的原因는 벌서부터 醸成되얏든것입니다 그리다가 今年一月의 金解禁을 契機로하야 그 內在的原因이 갑작이 發露된것에 不過한것입니다

朝鮮에 影響 어떠케되엿는가

裵 그 不況이 整理를 미처 못한 影響이라면 朝鮮에는 그影響이며 經路가 엇더케되얏슴니까

文 朝鮮經濟와 日本經濟는 相

當의 關係가 잇는것이니 뒤여불수가 업습니다 나는 金解禁을 벌서 斷行햇스면 不況이 이가티 深刻해지지는 안앗을것이라 생각합니다 日本[illegible]는 外國에 對하야 어느程度外지 不換性을 띄게되니外 外國品을 비싸게 輸入하게되고 日本品은 外國에서 헐하게 팔게되니다 그러나 英米는 金解禁을 함으로써 物價는 依然히 떠러지지 안라가 金解禁으로 因해서 日本物價가 暴落하게 되얏습니다

朝鮮의 不況은 生産에보다 消費에잇다

朝鮮의 不況은 整理를 하지 아니한 關係가 아니라 消費를 만히한 外닭이 아닌가요

孫 日本은 戰時中에 金輸出禁止로 成長된 産業 特히 製鐵、染料等工業이 그대로 持續하고 잇다가 戰後에도 金解禁을 速히하지 못한것은 첫재 經濟政策上 金解禁으로써 到來할 大打擊을 무서워하얏고 둘재로 民怨을 두려워한 外닭인데 井上藏相의 金解禁政策은 産業部에 보다도 金融資本을 爲하야 세워진것입니다 그러나 그準備를 完成치 못하고 金解禁을 斷行한 外닭에 物價가 暴落한것인데 朝鮮에 잇서서는 日本物價의 低落한 影響도 밧기는 하지마는 外來工業品은 高價로 사서 쓰고 朝鮮에서 生産한 原料品은 多少의 高價로 팔지라도 그를 相償치 못합니다 要컨대 米價가 大幅으로 低落하얏스니 그가 不況의 큰原因이요 다음에는 商品으로써 商人의 雜貨品價의 低落이 큰原因의 하나일것입니다

影響의 現著하기는 언제부터

裵 金解禁으로 因하야 朝鮮의 商業界 金融界에 끼치는 影響이 顯然해진때는 어느때임니까

都賣小賣의 差異

孫 그는 그럿습니다 假令 商業界로 말한다면 都賣價와 小賣價의 進度에도 差異가 잇습니다

安 그에 對하야 崔楠氏가 말삼하야 주시지요

雜貨는 今年冬에

崔 나는 小賣商이니까 그影響은 그럿습니다 말하자면 今年冬季부터 影響이 잇습니다

李 布木界에서는 今年五六月부터 影響이 顯著한듯합니다

全體로 春繭暴落

梁 그런데 朝鮮의 不況이 甚해진것은 春繭暴落以後의 일입니다

裵 貴金屬方面은 엇더합니까

宋 貴金屬은 一般物價와 달라서 매우 遲遲합니다 大正三四年頃에 一般物價가 昻落할때에도 適價를 維持하다가 大正七年부터 九年春까지 좀 昻騰傾向이 보이다가 以後에는 줄곳 打擊이 잇섯습니다

日本에도 今年一月

裵 日本에서도 物價가 顯然히 떠러진때는 今年一月인데 銀價의 暴落 輸出不振 綿紡의 騷動을 시내서 繭價의 暴落으로 農家恐慌이 斷然한것이니 朝鮮도 大槪 그러한것입니다

不況의 將來 繼續할것인가

安 大體이 不況의 거름은 어느 程度에 이르럿서 그 絶頂期는 벌서 지내갓슴니가 或은 現在가 [illegible]인지 또는 압흐로 더 深刻해질는지 그에 對하야 말슴하시면 조흘듯합니다

今後도 持續한다

孫 나의 생각은 더 持續할줄 암니다 朝鮮의 農産物은 大暴落되고도 日本의 産業狀態를 보면 産業各部門에서 互大한 固定資本을 불시로 주리기 어려움에 産業合理化를 말한 適當하나 生産과 消費가 均衡에 이르기까지에는 아직도 멀다고 봅니다

日本物價下落後 國防進出時라야

文 大槪 不況은 우리가 推測하면 日本物品은 外國에 輸出하지 안습니다 日本物價의 指數가 英米의 그것보다 高하면 外國品이 日本에 輸入되야 正貨가 流出되다 지금은 日本의 物價指數가 英米에에 이를 物價指數를 標準하면 朝鮮은 産業이라 할만한것이 업스나 日本을 標準하건에 外國品과 競爭할만치 低落치 아니하고는 對抗하지 못할만큼 高價이기 때문에 그가 下落하지 아니하면 世界市場에서 競爭할수가 업는것이니 언제든지 日本物價가 떠러저서 外國돈이 日本으로 드러오지 아니하면 日本에는 好況이 도라오지 못할것입니다 그런데 工場主는 大勢를 살피지 못하고 「트러스트」를 만드러 가지고 一時生産만 제게하려고 할것은 日本의 全體産業을 爲하야 不利한것입니다 卽 生産을 만히하고 物價를 헐하게하야 日本物品의 輸出을 旺盛케 하는것이 조흘것인가 함니다

官吏俸給의 減下 先決할것이이것

洪 나는 文先生의 말슴에 大體同感입니다 商品은 物價의 나즌데에서 흔대로 輸出되는것이 原則입니다 大戰中에는 日本이나 米國이나 英國이 모다 金輸出을 禁止하얏섯는데 大戰後에 英國이 金解禁을 速히한것은 그 整理가 比較的 速한 關係입니다 歐洲大戰中에 英國官吏에게는 特別手當制가 잇섯스나 戰後에는 곳 廢止하얏고 其他에도 賃料等을 減下하얏스며 또 物價도 低落하얏고 그러케 어렵지 안헛습니다 日本은 不幸히 關東震災와 昭和二年의 金融恐慌으로 因하야 整理가 遲遲하얏습니다 昨年이래의 物價指數를 보면 英國은 一三三、一 米國은 一四〇、五 日本은 一六七、九엿고 今年에는 英國이 一〇七、一 米國이 一二二、九 日本이 一二九、〇이니 日本이 英國에 比하야 一八、九의 高位에 잇고 米國에 比하야는 一六、一의 高位에 잇습니다 그런데 日本의 生産品中에서도 輸出品의 約八割을 占領하고잇는 生絲、綿絲布는 갑이 만히 떠러젓스나 一般物價는 그만치 떠러지지 아니하얏슴으로 全體의 平均으로 보면 英米보다 떠러젓스니 이것이 國際的平準에 외지 이르지 아니하면 不況은 如前히 繼續할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日本의 政策을 말한다면 大槪 工賃이 떠러저야 物價가 떠러질것이오 또 官吏의 俸給을 떠러트릴수가 업는것인데 濱口內閣은 多數黨을 得한後에 減俸案을 發表하얏든것이나 그發表의 時期가 너무 일너서 失敗하얏스니 結局 根本이 整理되지 못하고야 그 枝葉을 다스릴수가 업슬것입니다

裵 그뿐아니라 輸出을 주리지 못하고는 그 輸入을 주리지 못하는것이니 그는 勿論 큰 關係가 잇는것이겟지요

洪 그럿습니다 輸入을 말하시는 말아니 朝鮮에는 매우 不合理한 稅가 잇스니 所謂 營業稅라는것이 잇는데 그 稅率은 營上高의 萬分之九인데 이는 損害를 當하얏서도 稅金은 稅金대로 밧는것입니다 日本과 가티 受益稅로 밧고 朝鮮에서는 이러한 營業稅가 잇슴으로 一般企業家들은 그 利害를 考慮하게되면 結局 그런 不利를 엇지할수가 업습니다

宋 月前에 商業會議所에서 營業稅問題로 協議한일이 잇섯는데 그 利害에 對하야서 議論이 不一하얏습니다

裵 그러면 이 不況의 持續與否에 對하야 李賢在氏는 엇지 생각하심니까

好況은 事變에만

李 여러분은 日本物價가 떠러저야 輸出이 旺盛할뜻 말아서 好況이 도라오리라 하시지마는 日本에서 物價를 떠러트리면 他國에서도 輸出을 獎勵하는 處地이니 亦是 競爭的으로 物價를 떠러트리게 될것으로 結局 日本의 好況이 오리라하기 어려울것입니다 生絲와 綿絲布가 日本의 輸出品의 大宗은 綿絲布인데 綿絲布도 말하면 中國에서 工業이 漸次發展하는터인 中最近에는 더욱 銀價의 暴落으로 因하야 中國品이 도리여 日本에 逆輸入되고 또 印度에도 民族運動이 熾烈하야 英國品을 排斥하는 同時에 他外來品도 排斥함으로 그方面의 貿易도 亦是 樂觀할수업스니 이러한 形便에서는 日本의 好況이 도라오기 어렵습니다 一般이 말하는 景氣循環論으로써 본다면 그 오리라는 好景氣라는것도 例를 들어 말한다면 大正三年부터 歐洲戰爭이 發生한 뒤부터 年外지 經濟界가 平穩하다가 갑작이 好景氣가 나타나게 되얏스니 今後에도 世界的으로 엇더한 大事變이 이러나지 아니하면 다시 好況이 도라오기가 어려울줄 압니다

安 그러면 日本에 好景氣가 왓섯든것은 單純히 歐洲大戰으로만 因하야 왓든것이라는 말슴인가요

李 꼭 그러타는것은 아닙니다

生産縮少라야

孫 不況과 好況이라는것은 늘 絶對的이 아니오 相對的입니다 大正三年以前의 物價指數와 今日의 物價指數를 比較하면 그것만으로는 반드시 요새가 不況이라 할수업습니다 日本이 大戰中에 벌안간에 想像以上의 好況이엇기 때문에 今日의 不況을 더욱 만히 늣기게 될것입니다 그럼으로 今後에도 生産이 膨大하면 列國의 市場爭奪戰이 激化하고 世界戰爭이라도 이러나서 日本의 輸出이 增進되지 아니하고는 그러한 好況은 오지 안을것입니다 中國方面에서는 銀價가 떠러지고 印度에서는 關稅를 引上한 關係로 그 輸出力을 이러버렷는데 그러한 方面의 資本主義가 發達할수록 日本生産品의 海外進出은 더욱 困難하게 되는것이니 日本에서는 엇잿든 그 購買力에 相應하도록 生産을 縮少하야 需給關係가 均衡을 엇게 되여야할것입니다

積極政策을 해야된다

文 그러치만 生産을 縮少해 가지고는 好況이 올것지 안흡니다 日本의 物品이 外國市場으로 나가고 外國돈이 드러와야 日本에 好況이 오고 따라서 朝鮮에도 好況이 올것입니다

謹賀新年

楊口

楊口面職員一同

楊口郡廳

楊口郡農會

楊口郡畜産同業組合

楊口郡森林組合

楊口公立農蠶實修學校 楊口公立普通學校 職員一同

河合好夫 古郡兵士 沼倉幸入 大場太進

楊口警察署員一同

方山面長坪里 有志 孫萬在

江原道楊口郡邑內 綢緞布木雜貨商 太應善楊口支店

楊口儒林一同

合資會社 楊口酒類釀造商會 代表 崔昉爀

楊口邑內 金秉周

方山面事務所 職員一同

長坪公立普通學校 職員一同

東面事務所 職員一同

東面林塘公立普通學校 職員一同

樋谷辨治

高橋勝一

北面職員一同

南面職員一同

楊口森林保護區 職員一同

松青里 有志 李英實

三陟警察署 清水千太郎

島田藏三郎

竹井正吉

楊口料理業 大興館 主 李成命

學務委員 全學俊

酒類製造場 崔成春

南面 酒類製造場 主 洪淳國

南面酒類製造所 主 柳元永

南面警察官駐在所 職員一同

東面林塘里 朱炳禧

楊口邑 改良麯製造商 金秉德

楊口邑司法代書 趙敦根

楊口郡方山面長坪公立普通學校 學務委員 尹熙烈

方山面長坪里警察官駐在所 職員一同

楊口面鶴鳥里 有志 金鍾元

楊口邑司法代書 趙燻載

楊口郡楊口面下里 洪顯德

楊口邑內 雜貨商店 主 金聲鍊

楊口邑下里 日新局 金冕燮

楊口邑內 平田旅館

楊口邑牛市場 仲介人一同

京城地方法院楊口出張所 松山干城

楊口青年會長 任基準

前田藤兵衛

楊口商會分店 主任 朴德三

北面警察官駐在所 職員一同

鄭在鎬支店 主任 朴斗秉 韓豐鉉

江原道楊口郡邑上里 綢緞布木 和洋雜貨商 楊口商會 主 鄭東洙 崔圭睦

楊口營業所 職員一同

兼二浦

兼二浦本町 世昌精米所 主 崔瑞鶴 電話六二番

兼二浦公立普通學校 職員一同

兼二浦明治町 三和組合 電話四五番

兼二浦明治町 吳鎭憲 電話二四番

兼二浦大正町 崔德業

兼二浦本町 合名運送店主 鄭應斗

兼二浦本町 鄭仁瀚

兼二浦本町 西本洋靴店主 趙致麟

兼二浦本町 [illegible]自轉車商店 主 李觀濟

兼二浦大正町 金泰希

兼二浦明治町 天一時計店 玄一八 振替東京四七八二番

兼二浦本町 永昌洋服店 電話四三番

兼二浦本町 金秉濟商店 電話六三番

兼二浦本町 布木商會 主 申德實

兼二浦本町 布木商會 主 金泰琯

兼二浦面 面長 石橋正光

兼二浦本町 船田卓一

兼二浦本町 天眞醫院 電話四六番

兼二浦大正町 昌信商會 電話一三一番

松林面 面長 方益燦

兼二浦旭町 月峰燒酒釀造場 主 李元培

兼二浦本町 金斗獻 電話一〇九番

倭館

京釜線倭館驛前 穀物貿易商 崔應天商店

京釜線倭館驛前 米穀肥料商 尹哲炳商店

京釜線倭館驛前 米豆貿易商 南一商店

京釜線倭館驛前 穀物貿易商 蔡允植商店

京釜線倭館驛前 株式會社 慶尙合同銀行 倭館支店

京釜線倭館驛前 倭館勞働會 會長 金熙穆

京釜線倭館驛前 印刷所主 李綱鎭

慶北漆谷郡仁同 有志 張克相

◇不況對策座談會光景

二面에서繼續

工業資金枯渴奈何

孫 그러케積極策을取하라면日本은 各產業部門에다가投資를만히하야 英米가各產業部門에投한資本額에내려지안흘만치잇서야할터인데 日本에는그만한工業資金이업스니 自然生產을縮少하야 日本國內에서需給의均衡을엇기에努力하지안으면어려울것입니다

文 그러나日本內地에서만으로는 景氣를好轉할수가업슴니다 아모리해도 日本商品이海外로 進出해야하지요

李 文先生말슴과가티 外國돈이日本에드러와야 日本이好景氣가될것이지마는 日本物品은外國品에比하야 그質이劣等임으로비록갑이떠러질지라도外國으로輸出이旺盛하리라는것은疑問입니다 그럼으로大戰과가튼非常事變이잇기前에는 不況이올것갓지안타는것입니다 그리고또生產量에잇서서는 操業短縮을한다는것은 結局生產縮少인데 그리되면갑은조금올러서綿絲布業者에게는 利益이지마는日本國家로본다면큰損失일것입니다

孫 그러나日本物品을내보낼곳이업스니 엇더케합니까 大量生產을할수록損害가만흠으로不得已操業을短縮하여야된다는것이지요

文 그러치만 다른나라物件은中國에드러가서 팔리지마는日本物品이 잘못팔리는것은日本物價指數가 英米에比하야놉흔外닭이 아니겟슴닛가

孫 글세요

朝鮮의影響 그關係는如何

裵 그러면朝鮮의不況은엇더한것입니까 洪宗璽氏께서말슴하야주시지요

爲政者의努力不足

洪 大體景氣回復은 自然에맷겨둘것이아닙니다 爲政者들이左右할것입니다 朝鮮으로말하면돈을밧그로내보내지안어야好景氣가 올터인데거긔에對한努力이적습니다 現在朝鮮에서는煙草를栽培할耕地가 넉넉함에도不拘하고滿洲에서多量의葉煙草를輸入하고 其外에도粟과大麥과麥粉等을 輸入하는데產米增殖에만 專力하지말고田作가튼것을奬勵하야粟大豆麥粉의輸入을防止하고 木材갓흔것도그輸入하는돈으로 煉瓦製造를奬勵하야 木材輸入을防止하여야할것입니다 또水利組合도漫然히增設만 할것이아니라 現在에잇는 百五十二個所에다가그增設에要하는 資本을補助하야 더욱充實히하면一邊으로 產米도過剩되지아니하고 農村의支出이주려지고 그래서景氣가回復되는것이 捷路일것갓습니다

裵 產米增殖은事實에잇서큰問題입니다 그가農村에밋치는影響이엇더합니까

產米增殖은損害뿐

洪 產米增殖으로因하야쌀이 만히나기는하지마는 갑이떠러지니그損失이 莫大할뿐이지요 再昨年에는 쌀이七百餘萬石이移出되야 그를每石三十圓으로計算하면 二億一千萬圓인데豐年이든今年에는 米價가暴落하야그만한移出이 잇슬지라도그收入額은 約半分에不過할것이니이러고야農村經濟가 엇지온전할수가잇슴니가 그러닛가產米增殖만하는것은 큰損失이지요

安 商界에서는엇더합니가 百貨店近況에對하야 崔楠氏가좀말슴해보시지안슴니가

朝鮮人顧客에訴함

崔 나는百貨店이라는것보다雜貨店을합니다 그럼으로나의業界로말슴하면 世界의不況도影響이잇지마는 그보다도物品을잘팔리는것이好況期입니다 그런데大體朝鮮사람으로서 갈승하면國民性問題가큰關係가 잇는가생각합니다 나는己未年좀前에장사를시작하엿섯는데 그때에는매우미미하얏슬뿐 아니라市勢가別로업섯슴니다 그리다가己未年以後에 世界的으로는不況을말하얏섯스나 우리商店의성적으로는 매우조왓슴니다 그原因은學生이나 其他顧客이 이전에는진고개로 가든손이갑작이鍾路方面으로向하게되야物件이썩잘팔리기때문에 그러하얏든것입니다 그리되지七八年이지내자 다시不景氣時代를만낫스니 그原因은學生과花柳界사람들과貴族이 진고개로가기때문이니 以後에라도好景氣가오자면 學生이다시鍾路便으로사러오고 貴族이업서지고花柳界사람이주는한번으로 새로운教育을바든사람들이느러야할것임니다 아직外지라도學生손님으로 겨우이만치라도維持하게되는것임니다 말하자면日本人商店에서는 日本人손님外에朝鮮사람손님이잇지마는 朝鮮사람商店에서는朝鮮사람손님뿐인데 朝鮮사람손님도빼앗기게되니業績이好轉될수가잇슴니가

金 이不景氣中에서 지내나가는도리는 우리自作自給에잇는가합니다 商工業하는사람이 하로百圓어치를팔지라도 生活의困難한것은 그收入以上으로支出하기때문이오 우리네三四人의 한벌술갑도되지못하는僅小한收入으로라도 農村에서는一家族이生活할수잇게되는것은 달은物件을사지아니하고 自給을하는外닭이니 外國品을사지말고自作自給을高調하여야되겟슴니다

米價暴落과今後

梁 朝鮮의不況은 世界的不況의影響도잇지마는 朝鮮안에서生產되는農產品의 價格이暴落되야그打擊이 第一甚합니다 戰爭中에도米價가비쌋기때문에好況이엿슴니다 그런데今年은米價가慘落한外닭에 쌀의放賣로取入되는돈이 주려지니明年秋收外지는 이不況이支續할것인데 明年이普通作이고그다음해가普通作이면 이影響은적어도三年은繼續될것입니다 그러닛가地主와生產者는 財閥의빗을갑기에餘力이업서서 生產을파는사람이만아질터인즉 工業品을사슬餘暇가업슬것임니다 節約問題가튼것은 쌀을판以後의問題입니다

裵 米價에對한 當局의對策으로低資融通과 米穀倉庫施設에對하야는엇더케 생각하심니까

梁 말슴하시는 低資融通과甲乙種倉庫施設은 多少米價維持에影響이잇스나 中產階級以下者에게는 別影響이업슴니다 倉庫에넛코주는돈은 時價의八割인데그貯藏한後에도 갑이작구떠러지기때문에 貯藏者는不安을늣기고 도리여팔아서갑는것이조타고함니다 結局移出統制에는效果가잇슬것이나 朝鮮사람에게는 그리影響이업는것입니다

裵 低資融通의時期가 너무늣커지지안햇슴니가

梁 洪 그럿슴니다

裵 내가보는바로는 大概米穀年度로서十一月 十二月 一月동안에는 大概小作人에게서米穀이나오게되고 그다음에는中大地主에게서나오고 七八九十月에는米穀商들의 손에만米穀이잇게되는 모양인데 이低資融通이늣커진것은 農村小作農에게는 큰損失일것입니다

米低落防止 방법이업슬가

裵 朝鮮農村의疲弊를 困窮케하는 米價의低落을防止하는方策은 무엇이잇슬가요 그에는勿論根本策과一時策이잇는것인데 그에對하야 조흔方策이업슬가하는것입니다

產米增殖의中止

孫 一九三○年은 世界的으로農業恐慌이올시다 世界의麥粉在荷가 五億七千萬石(?)인데다가 日本과朝鮮의 米作이增收이어서 千餘萬石의 供給過剩임으로 米價의低落은不可避할事實입니다 그남는것을貯藏만다해도 年年이새로產出되는쌀이잇고 그貯藏되는쌀은變質될것인즉 그對策으로는別것이업슬것갓슴니다 工業生產은短縮할수가잇스나 農業生產은減少할수가업습니다 農民은農產物價가低落한다고 農事를中止할수도업는것이니外요 그러니外 그對策은 如干어려운것이아닙니다 農家의收入이적어지면 商人에게도 不景氣가옴니다 世界的不況은 그原因이 工業에잇다하겟스나 朝鮮의不況은 主로農業生產者의惟一한收入인米價下落에잇는것입니다 朝鮮의米價下落을 防止하라면 產米增殖計劃을 中止하지아니하면 안될것입니다 今後에平年作만 繼續되드래도米價는 到底히回復될수업스니 米作耕地의 面積을주리지아니하면안될터인데 이것은個人으로는實行할수업슨즉 國家的으로實行하도록하지아니하면안될것입니다 이대로간다면穀價는如前히回復할수업슬것입니다

洪 그는大體에잇서 나도贊成입니다 于先水利組合가튼것도 現在의狀態에만머물게하고더느릴必要가업는것입니다

裵 產米增殖에對한 從來當局의努力은 매우忠實한모양인데 五個의補助를주는것도 그弊端이如干만흔것이아닌듯하니 耕地面積이늘부로느는것이아닙니外

過剩處分의對策업다

孫 朝鮮의產米增殖은 日本의食糧問題를解決하기爲해서세운計劃입니다 人口가每年九十萬名以上이나增加하는것을생각하고 그食糧의不足할것만생각하고 그產米가過剩하는때의處置方法은생각지아니한것이오늘날의큰破綻을낫케된것입니다

裵 事實에잇서 全世界의米穀輸出入量은 每年約四千萬石假量인데 日本米는아직輸出品이된적이업스니只今갑작이販路를開拓한다할지라도 그것이如意치못할것은勿論입니다 結局日本米의中國輸出도失敗가아닙니外

金 日本古米의輸出은그를外國에 헐케갓다버리는것과달음업는것이니日本米의信用을떠러트리는것입니다 그리하야今後의販路外지도 沮害하는것이라는것입니다

好不況의關係이다

文 產米增殖을中止한다면多少米價引上에 效果가잇슬것이나 이것을中止하면 農作에使用하든努力을어데로向하게할것인가하는것이큰問題입니다 그러고大正七八年度에는 農作이잘되지마는 玄米五十圓餘에外지正租는二十八圓外지올낫다가一時玄米價가暴落되얏지요 日本에서는米騷動外지이러낫섯슴으로 그때에政府에서三井을補助하야 外米를 輸入케하얏스나三井의輸入說이잇슬때마다米價는도리여올낫스니 이로써보면 米價의올으나리는것은景氣不景氣에달린것이고 產米의所致에만달린것은아니겟지요 好景氣가오면 消費量은 增加합니다 宴會가만코 飮酒量이느는外닭이지요 菓子도먹어서 消費가느는것이지요 그러나 不景氣가오면 밥먹든사람이죽을먹고 감자도먹고지내는外닭으로 쌀의消費量은半減한답니다 그럼으로不景氣가繼續하면 產米增殖을中止하고 耕地面積을주려도 쌀갑은오르기어려울것이니要컨대生產을만히하고쌀갑은놉하야참으로黃金時代가올것입니다

洪 供給이過剩하면그物貨의價格이떠러지는것은 經濟學上의原則이니外 나는거긔에對하야疑問입니다

裵 米價에對하야實際需給關係로그暴落原因으로有力한것이지마는 지금은一般的人氣關係로到底히輕視할수업는것입니다

孫 增收라하면 그程度以上으로갑이떠러지고 減收되엿다하면 減收程度以上으로갑이올나가는것이니 그것은取引所의人氣가 機敏하게움족이는것을보아서알수잇슴니다

裵 그리고엇잿든物價는生產販賣를統制하여야만 調節할수잇는것이니 米穀專賣가되든지農民이共同販賣가徹底히實行되면모르지마는그러키前에는到底히調節을못할것입니다

文 好景氣時에米價가올나가는것을政府의힘으로는調節하지못하엿스니그一例를들면大正七八年에도政府가아무리 持米를拂下햇서도 갑이떠러지지안헛스니 調節이될수가잇슴니外

孫 朝鮮農家의 經濟力을念慮하지아니하고 自作肥料를거의廢止케하고 高價의金肥를사서쓰도록해서結局米價가 暴落하니 農家의肥料代支拂이큰問題가되니 急成한產米增殖의無理함을볼수가잇는그것이지요 그러치마는 지금에와서는 產米增殖을 中止한다면 朝鮮에서는 그過剩한 勞働力을 工場方面으로 收容할수가업슴으로 產米增殖을 中止한다면 鐵道其他土木工事를이르키며 失業을防止하면 多少나효과라고생각함니다

裵 世界的으로 農工並行政策이高調되는모양인데 그點으로보아產米增殖政策에만偏重할것이勿論不可할것이요 工業奬勵策에對하야는엇더케생각하십니外

工業品產出問題

洪 生產品에는 精製品과粗製品과原料品의 區別이잇는데朝鮮에서는 從來에原料品만生產햇스니今後에는그生產하는原料品을 加工할必要는얼마든지잇는것이지요

裵 朝鮮에잇서서는 大規模의工業은 이르킬수는업슴니다 大資本에對抗할수업스니 原料品生產을가지우버서나는手工業말하자면都市에서는 洋襪,고무신等을生產하게되고 農村에서는『가마니』『새기』等을 生產하는데지내지안슴니다

金 엇잿든 이經濟事情下에서는原料品生產은 큰損失임니다 朝鮮에서만히生產하는 쌀로서말하건대 今年의米生產者의收支關係는 如干悲慘한것이아님니다 내가잘아는京城附近楊州郡을標準하야 正租百石의秋收가잇다하면 그收入과支出은이러합니다

◇收入
租百石(每石百八十斤)
一萬八千斤
五百九十四圓(每斤三錢三厘)

◇支出
金三十三圓(江邊가지馱價每石三十三錢)
金四十二圓八十錢(龍山外지船賃)
金二十一圓四十錢(上納及其他放賣外지의費用)
金六十圓(看伕費用)
金百八十圓(地稅額)
金百圓(肥料代金)

그收入에서 支出을除하면百六十圓이남는데京城住居의關係로戶稅戶別稅 學校費等모든稅金을負擔하는터임으로結局百餘圓이 남는計算이니 正租百石秋收者의收入이 이러케적고야엇지합니外 쌀갑이그러케내리거든他의鐵道運賃이나其他公課金

가튼것이며郵便料 專賣局製品價가튼것도나리지아니하면 살수업슬것입니다

梁 米價對策이라고말하는低資融通은 그實의實인즉 朝鮮米의月別移出統制의對策입니다 그로因하야米價低落을防止하는直接影響도업시는안켓지마는 그런防止策은안되는것입니다

低資一億圓融通

文 低資融通이米價防止에多少의影響은잇지마는 큰影響은업슬것입니다 今年녀름外지도各銀行에서貸出人을차저서도라고애쓰든것이米價暴落된後에는 갑작이金融의길이막혀서從來에는法定地價의十五倍內外에外지貸付하든것을지금에는五割도잘주려하지아니하야 貸付하기가 몹시어렵게되얏슴니다 이러케金融이枯渴되야서不動產賣買도아주업게되얏슴니다 要컨대말하면 金融을圓滑케함이第一緊要한일이니 우리생각가태서는 預金部運用資金을一億圓쯤朝鮮에融通하는것이무엇보다조흔對策인가합니다

安 자ㅡ이케는時間도느젓슴니다 밧부신中에오서서매우緊要한말슴을만히하야주서서衷心으로感謝하야마지안슴니다 今後로도이러한機會를 자주짓게하야주심을바람니다

(午後十二時十分에閉會)

不況은 當分繼續

韓一銀行頭取 閔大植

金解禁의第一年은 幾多의苦難을經하야今日에至하얏다 經濟의節約 事業의縮越等緊縮政策을遂行한結果 對外爲替는結局昂騰하며 改善되엿스나 世界一般의財界不況及中國의銀價暴落等 關係로對貿易狀況은 甚히不振에陷하엿다 딸아서는各業企業兩界共히各自警戒를加하야 積極的施設을加하는者無함은 勿論生產品縮少及經費節約의消極的 方面에着眼함으로因하야 多數의失業者를出하게되엿다 그러나多年財界不況에鍛鍊되여 投機的事業에着手치안흠으로 큰破綻이無한것은다시금 생각하여도多幸한일이다 農村經濟는米作의豐穰으로 生產이過剩되고 其他物價低落에伴하야 米價는더욱暴落되여서 農村의借借肥料代金의決濟等은 米收穫期에不能하게되고 또年末에도解決이不能한狀態임으로 一般金融經濟方面에 不少한影響을及하게되여不景氣의 深刻化를助長케될念慮가不少하다 딸아서農業倉庫의建設及 低利貸付의方針을取하야 農村의金融을多少緩和케하려고 努力하나一般으로極히過迫한狀態이나 地方購買力은減退되여 市況은何等可觀할것이업서 閑散裡에越年하엿다 如斯히深刻한不況의 財界를一時에挽回하기는 至키難한즉國際的으로 景氣가回復치안는以上은一般經濟界의 沈衰狀態가當分間繼續될것으로생각하는바이다

謹賀新年 000004

倭館 京釜線倭館驛前 倭館穀物商組合

慶北漆谷郡仁同 直員 張安相
慶北漆谷郡枝川 面長 李承弼
京釜線倭館驛前 穀物 貿易商 柳基德
京釜線倭館驛前 米雜穀 肥料商 姜允成
京釜線新洞驛前 穀物商 李仁燮
京釜線新洞驛前 穀物商 權益謙
京釜線倭館驛前 穀物商 朴魯源
京釜線倭館驛前 穀物商 朴鎭東
京釜線倭館驛前 雜貨商 鮮一商店
慶北漆谷郡倭館 道評議員 入山昇
慶北漆谷郡仁同 面長 張世韓
京釜線倭館驛前 永同旅館
慶北漆谷郡仁同 酒造業 張漆植
慶北漆谷郡石積 酒造業 李敎榮
慶北星州郡邑內 星一文具店

龍岩浦
平北龍岩浦 龍岩浦幼稚園 園長 金士泳
平北龍岩浦 精白米 玄米 支那粟 肥料 其他穀物商 益昌商會 電話五五番
平北龍岩浦回春醫院 公醫 金榮坤 電話一〇番
龍川郡府面事務所 面長 金聖[illegible] 書記 [illegible] 技手 [illegible]
龍川郡廳職員一同
平北龍岩浦 行政司法代書人 金四澤 電話五一番
平北龍岩浦 永川醫院 院長 金[illegible]浩 電話三丙二番
賀正 謝前日無限厚誼 祝將來倍舊愛顧 辛未元旦 朝鮮日報龍岩浦支局 支局長 金基洙
平北龍岩浦 綢緞布木 洋雜貨 都散賣商 德山商會 主 金熙燮
平北龍岩浦 自動車 汽船 運送業 タクシー 吉田交通株式會社 代表者 張仁得 電話三四番
平北龍岩浦 平安北道指定地籍測量事務所 主任 金致善 電話二四番
平北龍岩浦 殖產租合 電話一四番
龍成醫院 院長 金成柱
平北龍岩浦 綢緞布木 月子打綿 郵便切手 收入印紙 東明商店 咸錫燁
平北龍岩浦 [illegible] 正信商店 主 張信煥
平北龍岩浦 食料品 雜貨 賣藥商 東洋商店 主 張漢用
龍川金融組合 理事 小山武 書記 中原山文 [illegible]
平北龍岩浦 綢緞布木 穀物 食料品 運送業 都散賣商 昌記號支店 [illegible]

平北龍岩浦 龍川印刷所 英美煙草 洋服店 申雲鎬
龍岩浦警察署
龍川郡龍川面事務所 面長 [illegible] 書記 [illegible] 技手 [illegible]

定州
京義線古邑驛前 五山醫院(五山高普附屬) 外科一般 內科兒科 院長 趙震鎬 (入院隨意)
定州郡馬山面 塢川學校
定州郡大田面雲田洞 面協議員 金用珏
定州郡阿耳浦面大山洞 金燾聖
京義線古邑驛前 定遠釀造所 古邑販賣部 金汶濟 方智鉉
京義線古邑驛前 玄米精造 穀物貿易 三合商會
京義線古邑驛前 石拔玄米 雜穀貿易 合資會社 郭山穀物商會 古邑出張所
定州郡新安面 五山學校理事 趙始淵
京義線古邑驛前 穀物貿易 金益銓
定州五山 五山下宿營業組合
定州五山 米穀其他 食料品及 雜貨取扱 五山消費組合
京義線古邑驛前 金炳學
京義線古邑驛前 穀物貿易 委托販賣 雲興商會
定州郡古邑面月岩洞 李[illegible]根
定州郡古邑面 葛峴學院
京義線古邑驛前 光東局 金基洙
定州郡古邑面新市 無名氏
京義線古邑驛前 綢緞布木 日用雜貨 卸小賣商 新興商店 主 金逕銓
定州郡葛山面光東洞 文裕兼
定州郡阿耳浦面 面長 趙麟均
京義線古邑驛前 書籍雜貨 文房具 元昌商店 主 白元煜
平北定州 艾島漁業組合
定州郡馬山面東倉洞 盧贊根
定州郡阿耳浦面大山洞 金成稷
定州郡古邑面 劉成祚
京義線古邑驛前 穀物貿易 委托販賣 光東商會 金仲揖 韓光範

忠州
忠州公立普通學校職員一同 電話一二番
忠州面職員一同 電話一〇番
忠州 北部麴子組合役職員一同 電話一〇六番
忠州郡廳 電話五番
忠州公立農業學校職員一同 電話一二三番
忠州小學校 校長 田中 電話九番
忠州 金融組合 電話一九番
忠州殖產銀行 井村定省 電話一六番
忠州郡老隱面 老隱公立普通學校職員一同
忠州 可金面職員一同
忠州新尼面龍院 天一釀造場 尹宇榮
忠州大召院市 李順巨
大召院市 趙泰瑞
忠州周德面三淸里 鄭碩鉉
忠北線忠州驛前 同昌商會 黃元性
忠州木町 李春雄 電話二八番
忠州木町 司法代書人 皮貞燮
忠州本町 洪寶基
山尺面 東海醫院 醫師 崔亨東 看護員 朴炳淑
大召院市 陳昌善
可金面塔坪 李相圭
新尼面新清里 任致準
忠州郡周德面 職員一同
忠州面大手町 張寬淳
忠州本町 布木雜貨商 李淳昌
忠州郡忠州面校峴里 金利燮
忠北線大召院驛前 閔兆植
忠州郡老隱面長 申昌均
忠州錦町 三友商會 電話一〇七番
忠 一番院 電話一三五番

謹賀新年

仁川

株式會社
仁川米豆取引所

株式會社仁川米豆取引所
取引員組合

仁川府尹 松島清

株式會社仁川米豆取引所
社長 荒井初太郎
常務取締役 秋山滿夫

永宗通仁組合
組合長 金東華
副組合長 朴元相
理事 張之煥

仁川朝日釀造會社

富川郡桂陽面長
道評議員 姜錫祚
桂陽面職員一同

京城電氣株式會社仁川支店

仁川金曜會

仁川精米業組合
馬場精米所　園田精米所
朝鮮精米株式會社仁川支店　辻川精米所
奧田精米所　直野精米所
加藤精米所　有馬精米所

仁川府龍里二〇三
具昌祖 電話一六一二番

仁川府龍里二八一 雜貨木材及製粉 沈宜善 取次電話三六三番

仁川府外里二〇三 仁川布木商組合 電話九七九番

富川郡蘇萊面職員一同

仁川府山手町 吉田秀次郎

富川郡蘇萊面新川里 平和釀造場 朱光洙

富川郡蘇萊面新川里 素新自働車部 申鉉舜

仁川府龍里六七 仁川信用組合 電話七一六番

仁川稅關長 堂本貞一

富川郡永宗面職員一同

富川郡廳

仁川府新町一八 スピード自働車部 主 崔英俊 電話七八五番

富川郡蘇萊面大也里 蘇萊釀造場 主 黃萬植

仁川府內里 金銀商 信成商會 主 林慶植

仁川府港町 仁川米商組合 電話三七七番

仁川府港町 仁川物產客主組合 電話四八番

仁川府柳町五番地 仁興精米所 主 李興善 電話四八二番

仁川府內里一一四番地 物產客主 李仲天 電話一〇七五番

仁川府柳町一六 合名會社 朱命基精米所 電話三八一番・九四六番

富川郡西串面 面長 鄭泰國 外 職員一同

富川郡桂陽面 面長 朴性燁 外 職員一同

仁川府花平里 徐相翼 徐相潤

仁川府 劉君星商店 電話 材木部八二七番 穀物部一〇五四番 精米部四一六番

喪中欠禮 趙恪顯 (富川郡富內面富平里)

仁川府 中華商務總會 電話四四九番

仁川府山手町 太田忍

富川郡富內面富平里 張壬淳

富川郡富內面職員一同

仁川府牛角里七 仁川釀造組合 電話七二四番

仁川府外里 金暉寬釀造場 電話五〇四番

仁川府支那町五七 森信汽船株式會社 電話一一六・一二三番

仁川府港町 仁川穀物協會 電話三二一番

仁川府港町一丁目八 延安汽船株式會社 電話五六四番

仁川府外里 朝鮮料理 日月館 電話六二三番

府立仁川病院 院長 岩井勝三郎

仁川府外里 金炳勳

仁川府新花水里 合資會社 金泰勳精米所 電話六二二番

仁川府龍里 穀物小賣組合

仁川府外里二二九 物產客主 川一號 主 沈相鼎 電話六八四番

仁川府內里一六二 物產客主 崔秉直

仁川府支那町六七 海陸物產委托賣買米穀業兼運輸業 瑞興運輸部 主 李興文 電話六八三番

仁川府花町 朝鮮人貸座敷組合

仁川府松林里 大昌染織會社 電話九五三番

仁川大昌染織會社 專務取締役 李彰儀 自宅外里 電話一〇二番

仁川府外里 布木商 金銀玉 電話一〇六二番

仁川府松林里二〇四 大東釀造組合 電話六八六番

仁川府內里 延安旅館 主 蔡駿五

仁川府山手町 梶谷靜風寫眞場 電話八八二番

仁川勸業所內 全文和

仁川府寺町 青松精米所 電話四八一番

富平公立普通學校 職員一同

仁川府內里 綢緞布木商 忠仁商會 主 李順永 電話八〇五番

仁川府外里一六九 物產客主 三成商會 主 金鳳基

仁川府支那町四八 以友商會 鄭成鎬

仁川府新花水里 孫永穆精米所 電話八七二番

仁川府栗木里二五二 金兌英

仁川府內里二〇四 物產客主兼旅館業 金城號 主 李龜夏 電話二六五番

仁川府內里一二二番地 綢緞布木各種雜貨商 德應泰商店 電話九五五番 振替京城六二一四番

仁川府內里 海陸物產委托貿易商 相仁商會 主 金仁鎬 電話八七〇番

仁川府內里 綢緞布木商 泰華商會 主 金允明 電話五二番

仁川府龍里二三九番地 綢緞布木貿易 富潤商會 主 金斗基

仁川府龍岡町五六 印刷業 鮮英舍 主 李種潤 電話三一一番

上仁川驛前 金秉濟 電話七七六番

仁川府內里六 物產客主 洪在範

仁川府寺町三 金相俊

仁川穀物市場內 勸業所 電話三二七番

仁川府外里 大一釀造所 主 張世益

仁川府外里二三〇 物產客主 李東晙 長電話五五七番

仁川府龍里一八七 穀物貿易及委托業 三和商會 電話長一〇六八番

仁川府外里二二五 綢緞布木商 昌信商會 主 李昌文 電話四七六

仁川府龍里一七五 永和釀造所 電話三八〇番 振替京城八三九六番

仁川府海岸町二丁目五番地 仁川鹽共同販賣組合 電話長八一六番

仁川府本町四丁目二番地 朝日組本店

仁川府龍里 平和醫院 羅時極 電話一〇七〇番

仁川月尾島 遊園株式會社

仁川教育協會

仁川府龍里一〇一 張錫佑 電話五一五番

仁川府內里一九六 迎春釀造場 主 朴昌遠

仁川府龍里 仁濟病院 院長 尹鎭國

仁川府廳 生田鐵造 稻野勝三郎 龜田市平

仁川府本町四ノ六 河野竹之助

仁川內里 開豊商會 李珪鉦

仁川府內里 石油、揮發油、機械油直輸入 大洋商會 電話一二九番

仁川稅關延安貿易 地帶使用組合

仁川府栗木里三二 金在潤

仁川府內里 고무靴都賣商 朴在中 電話一四八番 振替京城一六六二五番

仁川驛前 物產客主及鹽業 宇利在 主 趙鍾河

仁川府外里一九八番地 物產客主 光成泰 主 金成運 電話九一三番

仁川府柳町二九 精米古米穀物貿易 鄭元基 電話八八六番

仁川自動車株式會社

仁川府龍里二三七 海陸物產委托賣買並貿易 仁一商會 電話三〇七番

仁川府松林里 崔承字

仁川府金谷里四二 仁川고무商會 安鍾萬 韓文源 電話八六一番

上仁川驛前 華城自働車部 仁川出張所 客主 孫亮漢

海州

黃海道金融組合聯合會

黃海道金融組合一同

海州南旭町三八五 辯護士 鄭順錫 電話二六番

海州南本町 合資會社 普恩堂 海州殖產組合 電話二六番 振替京城一二一三番

海州月祿面桑林里 道評議員 吳昌煥

道廳食堂員一同

海州青丹市 東明商會 主 崔元東

海州南本町 中央醫院 醫師 金潤玉 產婆 岩上チトセ 電話二一四一番

海南自働車部組合 電話五七番

黃海道立海州醫院

海州金融組合 電話三三〇番

海州電氣株式會社 電話一六六番

海州南旭町二五七 面協議員 崔馨稷 電話三四〇番

海州南本町 日新醫院 朴聲行 電話二七八番

海州貨物自働車部 電話一一四番

海州郡廳

海州北旭町 西鮮醫院 李元圭 電話二六四番

延白自働車部 電話二〇一番

海州南本町 東明商店 崔昌文 電話一四三番

海州東榮町六四 三山商會 電話二四八番

海州北旭町六四 安承祐

救世病院 電話三二番　救世療養院 電話一七五番

海州刑務所員一同

海州西榮町 合名會社 西鮮精米所 電話二四五番

海州公立學校職員一同

海州東榮町 大寧齒科醫院 崔丙智

大河原重信

海州南本町 三井合名會社木炭特約店 丸金木炭店 電話二二一番

海州道立醫院 醫官 金衡翼

海州南本町 殖產商會 高允承 電話一〇一番

海州南本町 朝日醫院 裴秉斗 電話一二七番

道評議員 安岡壯藏

朝鮮日報

其三

各社會團體 一九三一年進路指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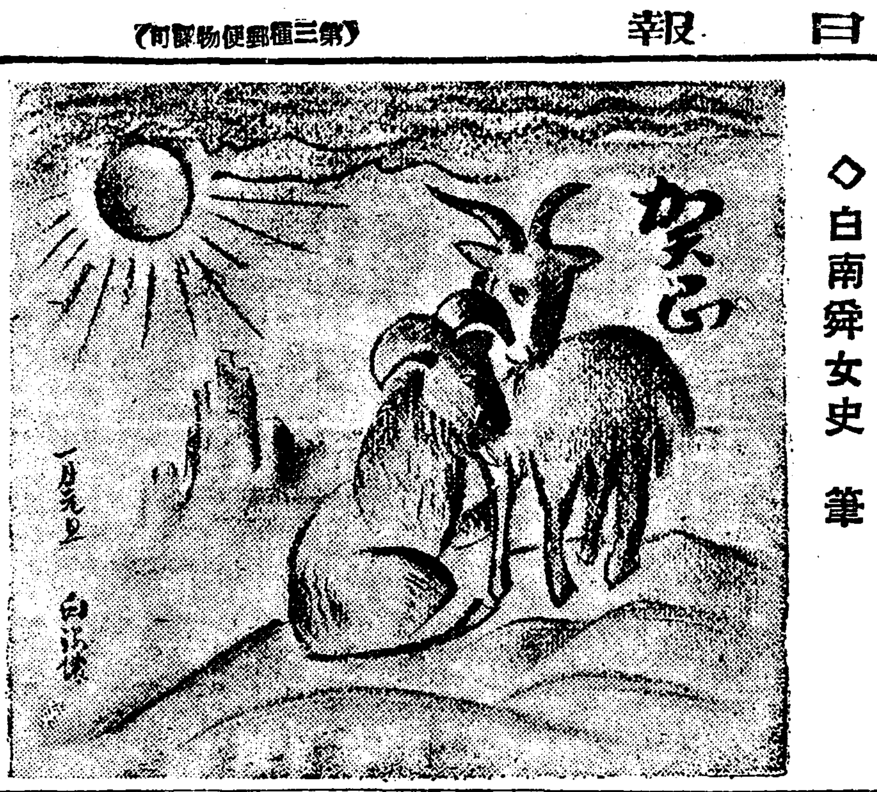
一九三〇年을보내고 新年을맞는 各社會團體의幹部들의 將來運動과의展望과衛策은 어떠한가? 展望을노코過去回顧하며 苦難中에步一步옮기는그네의 意見을各方面으로어서 紹介하여 參考의資에供코자한다

勞農運動土臺우에 新幹運動의新進路

規律的組織이必要하다

◇新幹會 徐廷禧

新幹會는一九二七年에 創立된 爾來로 新幹會가하여야할役割을遂行하지못하엿다 그外原因은 新幹會의組織自體가 過去에잇서서너무散漫하엿든點에 잇는듯한늣김이잇다 그럼으로압흐로新幹會가 힘잇는X 을展開하려면 爲先組織그것을 各層을區別하야 緊密하게하며編成을規律的으로 하여야하리라고생각한다 一九三〇年의下半期에잇서서 新幹運動의一特徵은 그內部에解消問題가 새로이擡頭한것이다 그런데이解消問題라는것은 新幹會의役割그것을 의미다하엿다는意味와또는 新幹會그것이 特殊한朝鮮의運動에잇서서 또는現下모-든運動의情勢에잇서서 賦課될만한役割이업다는意味에서 提出된것이러라 그러나前者에말한바와가티 朝鮮의現段階에잇서서新幹會가 그自體의役割을遂行해버린것이아니며 또는現下의朝鮮에잇서서 新幹會가包容한一般構成分子가 勇敢하게XX한X土로써X 할수잇는以上 最大限度로 그能率을發揮식혀서果敢한X 을 展開식힐것이다 그러고階級運動의 X營으로서의勞働運動 農民運動兩大運動을힘잇게 展開식힘에따라서新幹會運動은 그것을土臺로하야압흐로邁進하는것이 新年에新幹會의前途에 賦課된안흔課題라고생각한다



◇白南舜女史 筆

어떠케組織할가

우리몸을農民속에

◇農總… 韓炳洛

一九三〇年은 農民運動에잇서서도 참으로多端하고도 意義와敎訓이 깁흔해다 龍川 X 宜寧 漆谷等外數만흔 農民의XX은 以前의그것보다 다른色彩의表現을볼수잇는것이다 그러고 한農民의生活는 農民으로하야금 새表現을하게한것 人口의八〇%가農民이라하야서『朝鮮의問題는農民問題가 그全部이다』한 態度를가진者들의進出(勞働者의同盟軍으로서의農民을 理解하지못하고)XX의政策의 X豆的進出 오즉農民을 勞農組織이徵弱하다고 朝鮮의XX的中軸的勢力은 小부르에게 잇다는撤底하고도 惡辣한무리의進出 이모든것들을正當하게批判하며 勞農大衆의XX를어떠케組織할가에對하야 理論으로 實踐으로臨하는 極히적은 그러나極히힘잇는現象은 一九三〇年에서보앗다

X

農總은 集會禁止를當하지오래다 『어떠케하면 集會를獲得할것인가』이問題는 우리에게잇서서는『어떠케하면 小作料의減免을獲得할수잇슬가』『어떠케하면 耕作權의確立을XX할수잇슬가』와가티 重要한條件인同時 가튼方法으로야만 解決할수잇는 即XX을通하야서만 XX를完全히組織함으로서만될수잇는것이다 이것이一九三〇年이우리게게보담 더分明히가르켜준선물이다

X

一九三一年은 무엇을어떠케X워 어떠케組織할가하는것이 우리의展望일것이다

集會獲得XX 小作料減免XX 立毀差押XX XX 郡XX XX組合 借金 未組織獲得 反動農民團體에對한XX 勞働者와의XX 消解組合運動

農民을單一組合으로再組織하기爲한組織宣傳委員會 非階級的靑年同盟의解消와 組合靑年部에로의編成 婦人部活動等은 우리의當面課題인것이다

그런데우리는 實踐을떠난코-쓰를作成하야서는안된다 現實과結付식힐줄몰르는 原則主義者가되여서는안된다 大衆과떨어진組織을 가저서는안된다 XX的農民을 올치못한者들에게로가게하야서는아된다 말로가아니라 實地로우리의몸을農民의속에잇게하여야한다

X

갈수록더XX야가는 우리의살님 이것은必然的現象이다 이必然的現象은 우리에게무엇을가저올것인가

過去一年間 勞働運動의成果

—過去活動의回顧와展望—

◇勞總 李在建

一九三〇年最頭에 釜山鎭朝鮮紡織株式會社의三千名의男女勞働者는 最低賃銀三十錢을 八十錢으로 八時間勞働制實施寄宿舍食事의改善 就業中負傷에對하야 治療費와慰籍料支給罰金制度撤廢等等의 要求를들고스트라이크를 일으켯다 數週間에亘한爭議로 賃銀引上 成績에依한昇給制 解雇者에게對하야一個月分의解雇手當支給 作業道具의無料貸與 負傷者에게對한慰籍料支給罰金制度撤廢等等의要求條件의貫徹을가지고맛첫다

그다음으로는仁川에잇서서는齋藤精米所의二百名勞働者가最低賃銀八十錢制定 賃銀三割引上 日本人職工과朝鮮人職工差別撤廢什長의勞働側에依한選任 衛生設備의完備八時間勞働制定無端解雇者의復職 等等의要求條件을들고스트라이크를일으켯다

그다음으로咸北城津에잇서서는松下組紡工場의二百名勞働者가監督排斥을要求하고이러낫다

또京城에잇서서는 京城大昌織物會社의百五十名의婦人勞働者가 服務年限五個年을三個年으로短縮 期限內退職者에게積立貯金을支拂 罰金制度撤廢 年末賞與支給 賃銀引上 待遇改善 等等을들고이러낫다

또咸南新浦組紡工場에잇서서二百名勞働가 스트라이크를일으켯다

그다음으로는二月에는 慶北大邱에서全精米工場勞働者의제네스트가일어낫다 賃銀引上 解雇反對를 要求로하야 數百名의勞働者가이러낫다

또三月에는 元山德興纖詰工場의六十名婦人勞働者가 賃銀不拂에反對하야이러낫다

그다음에는 京城製菓株式會社의百名의男女勞働者와 龍山工作株式會社三百名의勞働者와 鎭南浦加藤精米百六十名의婦人勞働者는 各各要求條件을들고이러낫다

그리고四月에는 京城阿部製絲會社의二百名婦人勞働者가賃銀引下에反對하야 이러나고忠南公州에잇서 架橋工事場의百名勞働者가이러낫고 忠南秋餘水利組合工事場의 五百名의人夫가賃銀不拂을反對하야 이러낫고 平壤西京商工株式會社의二百名製靴勞働者는監督橫暴와賃銀引下에反對하야 이러낫섯다

그리고五月에는 平壤久保田고무工場의百名勞働者가 스트라이크를일으켯고 工場을閉鎖하엿다

咸興地方에잇서서는 朝鮮炭業株式會社咸興炭坑의三百名勞働者의爭議가잇섯다 待遇改善 毆打反對、賃銀引上、時間短縮 坑內危險作業反對、衛生設備의完備、解雇手當의支給、負傷者에게手當支給、勞働組合組織의承認等等의 要求로써提出되고 勞働者의압헤서 會社는그解決을約束하엿슴에도不拘하고解決條件은하나도 實行되지안어서 勞働者가炭坑을毁壞하야 作業機關을破壞하얏스며 鑛山에에로行動이잇섯다 이로因하야數十名의XX的勞働者는 체포되엿다

그리고그다음으로는 女川河川堤防工事場의 三百名勞働者가 毆打反對、日給即日支拂을要求하고爭議하엿다

그리고六月에는 釜山牧島造船社의百名勞働者가 賃銀引下를反對하얏고 全北群山各精米工場의二百餘名의勞働者가 스트라이크를일으켯고 咸興內湖에잇는 朝鮮窒素肥料株式會社炭業係員百餘名이 익을일으켯고 咸北明川場二百餘勞働者와 平壤社無煙炭礦勞働者五百名各要求條件을들고 이러낫서

그리고七月에는 平壤에잇서 十二個所의 고무工場勞働者二千名의大衆的제네스트가 이러낫다 고무企業家의同業組合에依한賃銀引下의決議에反對하야 賃銀引下의對反을條件으로하고 爭議는 發展하엿다 平壤에잇는 全고무工場에爭議가이러나고 二千餘名의고무勞働者의제네스트가 發展속되엿고 爭議는一個月以上 계하엿다 爭議는 妥協한幹部의罷免과追放을行하엿다 그리고 十二月에드러서 春川의三十名 紡績女工爭議 開城의製絲工男女勞働者七十餘名의爭議 京城의越智印刷所의職工全部가一週日동안爭議가잇섯다 職工은여러번工場을습격하엿다

過去一年間에잇서서 朝鮮의勞働者大衆은 여러번爭議를通하야成長하얏다

新年부터는 嶄新한理論의步武

우리는 [illegible]을생각하면서 緊張한속에서 [illegible]하고行할것뿐이다

◇中靑 洪宰植

一九三〇年度의 靑年運動은如何한歷史를남기엿는가? 너무나無關心하고잇다는것은누구나다가러케말하는바이지마는 그래도너머가기어려운 큰고개를 압에노코 헐덕어리면서도 쉬시안코한거름두거름 예여노앗다는것만은 또한틀님업다고생각합니다

一九二九年末學生事件이이러남을따라 靑總을爲始하야 各同盟의여러盟員이被檢되는等가진風波를격거가면서一九三〇年을마지하매 그劈頭로 X營의收拾이무엇보다도先決問題가되지안흘수업섯슴니다 그리하야鏡城靑盟의 提案으로咸北靑聯이 部府同盟代表者大會를 召集하려고하엿스나內外의多端한情勢로말미아마如意치못한것은遺憾이라하겟지만 그後靑總에남어잇는뜻잇는同志의誠意잇는努力으로臨時常務機關을두어 이事業을맛게한것은 順序로보든지法理로보든지 그歷史的瞬間에잇서서客觀的妥當性을가진 努力의一端이라고봄에 누구나認定치안흘수업슴니다

그러나이럼에도不拘하고靑總의면XX들은 X營收拾에焦燥한듯이엇든지는모르나 所謂中央委員總務會席上에서中央委員을改選할說과委員五人을選出한다는그로말미아마被選되엿다는所謂新任中央委員懇談會에서組織體變更을決議하는等等의大衆의意思를安全히떠난輕擧妄動이잇섯스니 이것은靑年運動에一大『쎈세이숀』을이르키여全的으로 靑總委員改選에對한反對의소래를놉히부르이르키면서 一九三〇年을하직하고잇습니다

이는果然歷史가附與하는必然的過程의한段階를밟고잇는飛X九三一年에나타날 새로운靑年의嶄新한理論과健全한XX의重要한步武가 여러先輩압헤顯現되리라고展望합니다

啓蒙運動에主力

解消論은時期尙早이다

槿友會 丁七星

昨年七月大會以後에 槿友會는學生事件其他로 만흔幹部를일허버리고 繼續하는XX으로槿友會가主로하여야할 一般女性啓蒙方面에까지 손이도라가지안어서 말하자면 一九三〇年一年間의槿友運動은 매우平凡하엿다고생각한다 그런데지난번擴大執行委員會前에 槿友會內의一部에 解消論이擡頭하엿스나 이것은槿友運動에對한認識錯誤에서 생긴時期尙早論이라고생각한다 原則的으로는우리는解消論을否認하지아니한다勿論槿友會는永遠한組織이아니고朝鮮社會의特殊性과 그必要에依하야發生存在하는것인즉 社會進化의엇던階段에 이르러이特殊的必要가 벗서喪失되는때에 槿友會는말할것도업시 解消될것이다 即勞農部等의各部門運動이 充分히激化할時期에는 槿友會가든 各階級을網羅한組織은 當然히解消함에이르리라 그러나 今日과가티 이러한各部門運動의分野에對하야一般朝鮮女性은當然히投入할것입에도不拘하고 맛치男性專有의男性만의分野인것처럼 認識하고잇는時期에잇서서는 一般女性의意識을促成식히기爲한啓蒙運動가큰方面이 크게意義를가지고잇다 그럼으로우리는時期尙早한 錯覺的인現在의解消論에反對하는同時에 닥쳐오는一九三一年에는槿友運動의水準을高踏的인데서大衆的인것으로引下하야 活潑하게 꾸준하게 一例를들면 文盲退治와 가튼啓蒙運動方面에 注力하려고한다 그러고學生 職業婦人 家庭婦人各層의女性을 槿友會의組織속에網羅하기에努力할것이며 더욱히年來의宿題이던 會館建築은엇더한困難을겪드라도今年內에完成하려고한다 이點에對하야는委員長趙信聖氏를비롯하야 新任幹部全體가그무슨難關을突破하여서라도 모-든實際的事業에업서서는아니되는會館의建築은期於히達成할豫定이다 最後로機關紙는 新年부터하로밧비續刊을할터인데從來보다도內容의水準을훨신低下하야一般女性에게廣汎하게吸收되기를期할것은勿論이다

婦女運動의回顧와展望

鄭解友

婦女運動의回顧와展望目次

一、國際婦人運動과一九三〇年의朝鮮婦人運動

가、國際婦人運動과朝鮮婦女의地位

나、封建遺制及資本에X하야XX한勞働婦女

다、性別組織槿友會의無能

三、一九三〇年婦女運動決算

가、農民婦女의XX에對하야

나、宗敎婦人體團와勞力婦人획득에對하야

다、婦人運動의大衆的再編成을爲한槿友會解消와그의對한時期尙早論의正體

라、우리는무엇을배웟나?

1、紳士婦女의改良性

2、勞力婦女大衆의自己XX에勇敢

3、日常XX에XX과下層統一線方針

4、優良한指導者를慾求

1、婦女運動의再組織과槿友會解消

2、婦女의特殊性과組合婦女部의役割

3、婦女의大衆的會合에對하야

4、婦女를組織에引入하기爲하야

5、朝鮮婦女運動의今노간

『婦女運動의回顧와展望』

謹賀新年

000005

京城樂園洞二一八
太平洋寫眞館
電光一二四九
同業
閔忠植
鄭炳文

京城鍾路二丁目優美館前
東洋齒科醫院

京城鳳翼洞九七
陽岡商會
電話一五六〇番

京城府寬勳洞四番地ノ二
辯護士 崔斗煥
電話光化門二一六七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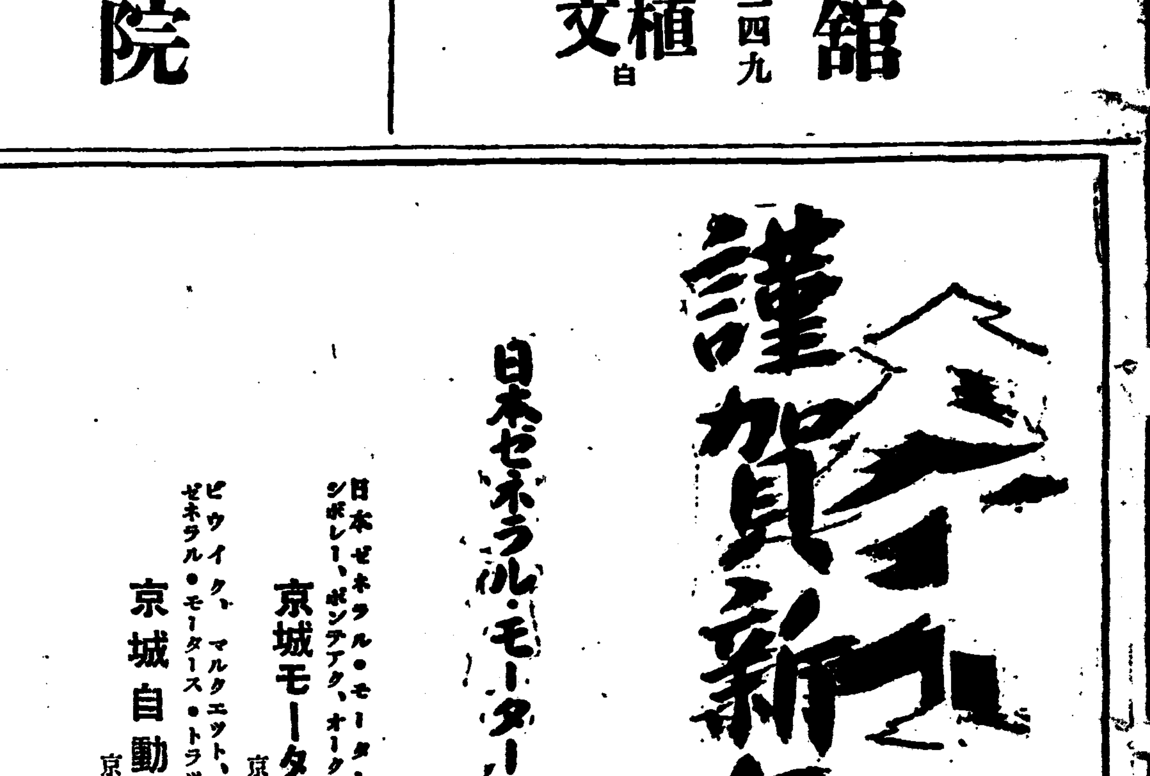
京城和泉町五
同和藥房
電光二一八番

京城府公平洞八八番地
毛物各種蚊帳 補褥簇只簾帖 조바위製造
元昌商店
電光一六七三番
振替京城九六七七番

京城樂園洞
診察 製藥
又華醫院

京城市內笠井町
李元雨

京城市內笠井町
金禎漢



朝鮮運送株式會社

於朝鮮食糧品品評會料理一等賞受領
純朝鮮式建物貳百餘坪 鮮洋式樓上一棟貳百坪
一、宮中式名物純朝鮮料理
一、書畵舞踊歌曲一流藝妓
一、送別歡迎暢叙幽情宴會
一、純朝鮮土産食料贈答品
一、婚禮壽辰高排床獨兼床
一、大園遊會運動會模擬店
一、大小宴新舊式西洋料理
右記諸般物品具備待客親切迅速酬應
食道園
朝鮮京城府南大門通一丁目一六番地
電話光化門局 四四一・一五一七番

京城南大門通
綢緞 布木
金潤冕商店
電光一六七番

四十餘萬京城市民 送舊迎新의姿態

一九三〇年十二月三十日 밤여섯시부터자정지나기까지

編輯局全員總出動

자연하게든지 혹은부자연하게든지 날마다팽창하야가는대 경성안에서살고잇는 사십만경성부민은 이제자긔가즐기어맛는지 말든지간에 붉게하고누구나한가지로닥처오는새해를 마지하게되엇다 위로는황금의세력을 자랑하는백만장자로부터 아래로는 사방일촌의성바닥하나도 가진것이업는가난뱅이에 이르기까지이날 이때에가튼 경성부민인것은사실이니과연 일천구백삼십일년을맛는 경성부민의 자태는깃븜과 슯흠과억울함과 즐거움이서로교차되어잇는『만화경』이분명하다 이제본사편즙실에서는 경성사회 각층각방면의 재해마지하는자태를 답방하야써 널리사회에 알리기위하야 일천구백삼십년십이월삼십일밤 동원령일하(動員令一下) 예전원총출동으로 여섯시부터 자정지나기까지 각각다음과가튼 천태만상의자태를발견포착하게되엇든것이다

富豪家庭 官界人과富者請해 忘年會十日間 安樂椅子엔虎皮裝飾

부호의응접실! 소격동(昭格)리영문 李榮文(假名)의집을차저갓다이것은 종전부터 부호이다주인이 금레를새쉬두는든 사람이라응접실노 양실이요 정원에는인력거군이 이구석 저구석에붕구리고잇다 초인종을 누르니안에서 룸룸등 발소리가나더니참람에 우아래가 똑씩은듯=먼저긔자를 치훌고내리훌튼다 자긔차저시요』하는데『메리야쓰』바진분안에서 열쇠로열고『누구주인을 차저오기에는 너무도가난이흐르는것가티 보힌것이 겟지……날새이게 내뒤에 타고온인력거가 잇고업는것을 삼고한다물튼 넘엇다 긔자는 상관업시당히『주인령감을뵈우려하고』그는행『지금손님이게서못뵙겟습니다』『손님이잇서도잠간만면회케하여주오』『진지상을바드서서안되어요』『진지삽숫도록컵심에서기다리지요』그는청가신듯이『글세면회가되어얼든나오시지못해요』하고어청이몹다 이때에기생두어명이 인력거를타고와서 문간에 들어서며나와말하는 자를보며 문간에는러노인 신발을보고『손님이만히오시엇구료』하다가 초라한긔자의행색을보고해죽우스떠돌이간다『너는올자리가못된다』고웃는것이엿지……이때면희를몹시켱하는소래에커편복도에히웃보이는것이 김인(金仁)(假名)이니긔자와는 숙면이다 그러나여시본체 아니하고 쏘들어간다긔자는 노치지안코『지금내다보시든 분솜좀 켱해주오』하니분간적이는『그분은주인령감아닙니다』『글세켱해주어요』그는머리를 긁으며『어렵게』하더니가 서김인씨를 켱해나온다 김인씨는무을들으며『아ー누구시라고ー오래간만입니다』어색하더『웨ー나를보고그대로들어가시니까』『아ー』『뵈왓세요』응접실안에는 파』가여기커긔노이고 그『김진호피(虎……가몃개 ……벽에걸린현……씨가걸리고 무슨의미인지 한편벽에는거북을 만들어달앗다(중국인에게는대목이다) 퀀둘러보고김씨에게

『주이령감을뵈올수업슬가요』

『글세! 오늘저녁에는연회에문에……』

『나는 연회인가요』

『그커당면회이지요』

『어떤분들이 오섯습니까안상룡(安相龍)(假名)도!』

『에ー오섯습니다 참여관도오시고 김학창(金學昌)(假名)씨도오시고』

긔자의머리에는 년컨까지 쇠마차를가지고 몰아다니든 덕대집씨를 상상하고 그가금광으로일약하야 삼백만장자가 된것이이떠올릇다 년컨가트면 이주인이눈도 거들떠보지 안을터인데황금의 위력은 일약하야 그를사교계명물로만들엇다

『무엇을하고노시나요』

『보통연회와가티술과 노래가든것이지요 별거쉬여일재 계속입니다』

셕른조아의생활이다

『주인령감이 신년부터모씨모씨와정치운동을 하신다지요』

김씨도 십여년신문긔자이라 공연히 서투르게 무슨말을하엿다가 큰일나겟다는듯이

『업는일입니다 은행가이시니가요』

『정치운동에 아조취미가업지는안으시겟지요』

『그야그러치요』

더무를말도업다 유흥실을 나올에안으로부터는 기생의 노래소래가흘러나온다(交剤過客)

(사진은남대문역삼등대합실)

宴會도節約 事務室에미리附托 이밤의料理店

××관(館)을들어스니 안내하는『뽀이』조차보히지아니한다 좀주커하라니『뽀이』가 반가운 손님이나올줄알앗든지 내다라 마커준다복도에 올러스니 이삼명의기생이왼보로 왕래할뿐이다 그중에단발하고 양장난 미인이잇서난이채를뛰운다 수만흔 방중에서겨우십여개의 방에 손님이잇다편변(片邊)의 모모 일본사람의망년회인지 희소가곡(喜笑歌曲)으로 노는양은 그래도활발한모양이다 그외는 가지각색일다재계의 모모 상계의모모로채무(債務)를연기하거나이엇달라는을비거자먹기로모되인한비극의 연석도잇는 모양이다 그런중에도한편에는 단순히 유흥의목적으로모힌주석이잇스니이곳만은좀 활기가 잇서보힌다 허든기침에 가재거름으로 다른방에점유(占有)되며잇는자긔의애인을보고커 정열에타는 마른침을배트며『뽀이』에게잠간불러주기를애걸하는유야랑도잇다

엇잿든 실업계측도 사무실에다가절약해달라고 미리 부탁한다는사무원의눈을 드려 보아도 플면의광경은볼수가 잇다 ……(오스스生)……

一年間四千名치른 朝鮮호텔에同胞한분 異域過歲하는西洋人

일천구백삼십년십이월삼십일밤!조선『호텔』아래우이로사층의딸십여개실과 물실문명의 첨단(尖端)을장식한『메이엔츄렌스』(立寶)、떠이닝·룸(食堂)、콘써트·홀(演藝場)독서실 (讀書室) 등이르는곳마다 컨광은찬란하야다

×

그러나 세모와 가두에휩쓰린불고잇는 심각한 불경긔의여파는지 손님은 영성하야사방에가득찬 쓸쓸한 분위긔(雰圍氣)는오즉 실내분수긔(噴水器)의 룸뗼어내는소래와『떠이』들의발자최소래에 고요히 흔들나고잇다지난이십오일밤 성탄일은『크리스마스』밤에『에로』『그로』의여흥(餘興)이잇슨후객창한등 (客窓寒燈)일에서 이해를보내지안코커 손님대부분은 환소(還巢)하엿고 현재남든 손님이라고는

▲米洲손님 男四人 女一人
▲佛國손님 男一人 女一人
▲朝鮮손님 男一人
▲日本손님 男五人 女一人

으로 상하층 팔십여『베드룸』(客室)에는 겨우열두분에 지나지안햇다

×

이『호텔』은내외장식이컨부구미식(歐米式)본위임으로『크리스마스』축하이외에는 커석원조(除夕元朝)의 특별한 형식이업처어시평일이나조금도다름이업다한국『설』긔분은 컨면『케로』이다

×

그러면이자본문명(資本文明)의첨단을 과장하는『호텔』을리요하는사람들은과거일년동안에얼마나되는가

▲日本人二八、五二〇人▲朝鮮人五二人▲英國人二九三人▲米國人一、一三〇人▲佛國人五五人▲露國人四一人▲獨逸人一四九人▲中國人七六人▲其他外國人一七八人◇計四、四九四人

으로이통계수자까지도경제력이비궁한조선사람의사정을여실히말하고잇는것이라한다(心耕生)

判官會分會長도活躍 食堂에는開化婦人! 大京城의百貨店內面

밤열점시시나 우선 종로네거리로갓다 거리에는 가진각색으로차린 오갓남녀들이 오거니가거니 한참부펏다 바로거게잇는 삼중백화점으로 들어가기로 한다 곱실곱실한 구슬실목도리를 칭칭감은 조그만녀학생들이 꼴독늠해서『쇼ー윈도』를 들여다보고잇다 무어야? 잇다보석을 쥐운반지허고 그외에도 귀금속(貴金屬)이퍽으만히다보얼고 들어섯다、누던이 흥성군인가! 방학뒤이틀될는다 모다생이왜만타 저편에서는 거먼두루마기에 털모자쓴 시골양반이 은비녀와 은귀이개를 골라삽고 갑슬다두는데 그엽에서는 웅우바지안은 거먼두루매기의 청년이 물분(水白粉)을한벗사고잇다 대체『관관회』의분회장(分會長)이나 상무위원(常務委員)……위층에는 사람이더욱만타 작란감을만지는이『삿스』를 뒤지는이 책보를사서차달다는이……올라조끄친불분케비가틀『모ー던』무부 한쌍이잇다 남편은 양복에외투 안해는 찔분치마에 와랑잘녹도 리들대한 여가엽누지안흔 아씨……『크리스마스』로 지난이며 송화(聖誕)를 뒤숭어리며 남도못노케 속닥속닥……쟁두엇이한쉬먼에 사긋범긋 자긔들의 구수한사랑을 이그림에서 찰건햇나보다 커ー때 한바투를자 컨느님께서엇을실(實記生)과마주서서 거실러 주는 돈을치려주는틈에 그부픈속에서도학생과의추억록(追憶錄)으로 책거리면서 나오는길에다시보니 의원문케비한쌍 아까그대로 을고덕룰속에 더허노로 일음『감원오십건애라』지르고 잇다 그『모ー던』아씨 손까락으로 똑가는다른그림을버방가르치며『커게것다니깐』……외투미창으로 비단양탈에 씌힌민맛한 종아리가ー(쉬!注意!)그길로조선은행앞을 내달어 남촌의제일큰 백화점에 들어섯다 어느층에서나 모다와글와글 조선사람、일본사람 이것뒤 다켜울수잇나? 헬십천 자리안되는 작란감딸독시계를 만지며 징을울던삼키는 두루마기입은소녀들 마누라 상투장이 몽커고리바람에모자도안쓴 아이들 조선『사라민』가념닉질은데센트』가 넘는다식당에도 쫓진머리에 아이들을반다쓰나 데리고안커 다파를자시는홍콩한개화?하신마나님이잇다각층에승강구(昇降口)마다사내며를네어른아이들이우누커니 모여서서 엘레베ー터를종다보려고기머리고잇는데 어허이거원미운시 가여운지거의다 우리사람들이다『엘레베터업』이넘우들얼누아이들을 우수면서 엇개를내밀어숑츠니『아서! 그러케 딱딱하게굴지말어』! 데체요낫에흐리는줄모르고 정신업시 몰리는가봐……(蜀口山人)

(사진은백화점내부)

父子離別의 三等改札口 ―二等改札口에선― 京城驛過歲姿態

일천구백삼십년 마지막날인 금음날밤을 마지한 경성역(京城驛)은차디찬 어둠속으로부터차차간지방을 휴진두드리고 그거체를 나타내이고잇다

『후상유기ー』

한삼십명 될가말가한 삼등대합실의 원정갓가히돌린 화식긔가 외마듸를질럿다

개찰구가열리자 주렁크、봇다리 든사람들의 행렬(行列)이 웅지이기시작한다 이렬의앤꼬리에 서서 두손결울데우삼고우는 초최한두사람이잇다 늙은이는 아버지고 젊은이는아들인듯

『커저은말고 몸성히잘가잇거라』

『이곳에서못사러서 가는놈이 그대로는 오지안흘것입니다 창피는하지만 그집에서 얼마동안만 그래도 할고거서주시오』

이것은 상등객차의 광경이여다

『자ー그러면 안녕히가』이건은변서지버일 도양이가 이것은변번지는안으나 차에서 목이나쉬기게해온!천만에……자비효자일게그런』

『얘기이사람 버릇업는소리』

양주(洋酒) 한병을 건네이고『그로』의 화신인늣한 뚱뚱한 몸을흥질이며 이동개찰구를 나아가는이영을배반한사람들……

―『유행명곡』에 애이을끄러 차의긔적이운다메향실의구지례하든사람들은 하나도 볼수업고 하안손집 을곳곳한 장사치들모자들이 올다가고 긔차의차창으로는 기름진얼굴 더숭연(呂宋煙) 문벼글벼글곳는엄꿀들과 그리고 인형가티 고흔얼굴들이 상긋거리며 머러진다 얼마뒤 게다소리 요란한승강대를올다서 나아올때에는 겸오스레ー한 버그립자가 승강대층계로웅불거릴때 일천구백 삼십년 금음밤내마음이 이서울의 금음밤가래서 목울되들 울리하고집히잡기는 그무엇이 잇는것갓햇다(紅眼生)

택시의 써걱지 ▽컨보다는심평조하 人力車房訪問

『요사이는 버리가괜찬소?』양력세말이라고 도분도 조금떠러진것이잇스니깐 인력거 손님들도 부럭슬테지?』

나는×국장모퉁이에잇는 이력거병문을방문하고커 땅배 한개를나누어피우며 이러케 수작을건늬엇다

『글세요(그는 말하기거북한듯이한 참잇다가) 낫다면픔난얘이조』

『역시손님은 밤에만흔모양이니오?』

『그렇습죠 커의들벌리야 유개밤버립시오 낫에야 별로손님잇나요』

『역시 연극장파해서들마다 손님 료리집에서나 술집에 돌아가는손님들이 커일 만안소?』

『그럿습죠……그러데 하두 밤에 두차레식어보기가 어렵슴니다!』

그려렷다……오이승(五人乘)육인승(六人乘)의『택시』가일원인데 웬만하면『택시』타지 인력거 탈친구업겟지ー입속으로내가 혼자ㅅ말할때에 그는 내말을알어들은듯이

『우리야 자동차손님의 찌억지바더서 버는것이랍니다』

한다 그러나 요사이만은망년회(忘年會)요、『보ー너스』인력이요 하야 갈지자거름것는친구들과 극장에 구경군이들어서이래커래다소간 인력거타는 사람이눈엇슬것은사실이다

『一그런데 하필요새만 그럼쑌이아니겟지만 팡년회 가튼데서 얼근히 취해가지고나와서호긔잇게 당신네들을 불러서타고가는손들은낫날예십사들니지는안소?』

『글세요거북합니다……』그의대답은 선듯나오지안는 모양이엇다 ー쓰으는 사람은 누구? 사람은누구?(八丈生)

謹賀新年

京城府鍾路三丁目九番地
海東自働車部
金大泳
電話光化門九七八番

京城府桂洞一五一番地
運轉手養成就職紹介
中央自働車研究所

京城西大門
崔昌學
電話光六三五番

京城府協議員
京城安國洞一七
韓萬熙
電話光一二二一番

京城三角町九十八番地
金東澈

京城府慶雲洞九六
月刊雜誌朝鮮農民一個月二十錢
旬刊新聞農民所聞(一年一圓)
夜學敎材農民讀本(一部四十錢)
全朝鮮農民社
電話(光)二一四八番
振替京城八六一番

新舊書籍
京城府臥龍洞二八ノ三
世昌書館
主 尹用燮
振替京城一五四二〇番

新舊書籍出版發行都散賣業
京城府禮智洞一百一番地
太華書館
主 姜夏馨
振替口座京城八七三四番

崔松雪堂

土地家屋賣買
家屋建築請負
建築材料貿易
京城府益善洞一六六의五
建陽社
電光一三一九

京城府貫鐵洞二一八番地(鍾閣後)
高麗旅館
主 高弼權
電光一二二七番

李王職

京城府長沙洞二〇五番地
崔保源
電話本一四七三

京城茶屋町二八番地
綠發俱樂部

中流家庭

설밋헤 내외싸움 文匣우엔 督促狀

곳죽어도 紅茶接待

윤湖가정! 표준이 히미하지마는 내생각에 그럴듯한집을 하나마음에 꼽나가지고 나섯다—때는 오후일곱시—마즌편쪽 우리의 단골팟죽집을지나서 광진동으로 나가다가 네거리에서 다시북쪽으로 수송동으로 올라갓다거긔서또동쪽으로 돌아들어가서 (소지명은비밀)나아는 그○○의집 대문으로 들어섯다 사랑문으로 가서보니문이닷첫스매 문앳가히가서『일보나라』를쌔내라고하다가 얼뜬내나치좀간지러운듯한 생각이낫다 이것도친구를 차자온것이라고 할것인가 작란도 분수업는작란이다하는 생각으로 나는잠간주저치아니 할수업섯다 이러할때에 안으로부터 무엇이라고중얼거리는 소리가 내귀에들리어온다 나는이때에 자든잠이나 깨인듯이 키트직업신경이발동하엿다 그리하야 부르라든것을 멈추고 밧삭안중문턱에 다아서서 귀를기우렷다 명백치는 못하나마 녀자의음성으로 무슨말을 하는모양이드니 이어서남자의 소리가나는데 그음성은 좀커서그말을들을수가잇섯다

『인제 선사고 무엇이고다그만두어요 그것도 컨시를날이지 인케는다 할수업서여보이면이 반패가란말도못들엇소』

또중얼중얼하는 녀자의 음성이들리더니 이케는 남자의볼멘소리로

『너편네는 집안에 들어안저서아무작도 모르고 쓰는것만조흔줄알아!』

이말이 그치자맛자 녀자의독쏘는소리가 들린다 이뻐는음성도컷다

『이런참 사람이죽겟지 그래쓸줄만 안다시니 내가언케그런케남과가티 흔전흔전히쉬보앗단 말슴이요 어덥나가자니 남처럼 번번하게걸치고 나갈옷이나 한번잇는줄을하는것도 내가먹자고 그런는것이요? 사람이 살아가자면 인사도 차릴것은차려야할것이니까 그것도다당선의나출 보아서 그레는것이지』

남자는 다시소리를지른다

『나출 보아서! 낫도인케몰것다보앗소 아까 빗쟁이들이들어와서 빗조릅쾨에 떠들든것을 못들엇소 세상이그런치마는 내가그런 자들에게까지 못들을소리업시다하는것못보앗소! 오늘도멧차레나겨엇소?원수의돈은두번식이나 돼서우리떠위들는터듯고비비하면서 그런욕을낭죽을지경아양뗸세말은요?』

이말이그치며 안방문의무되커여는소리가들린다 나는더기다릴수업서 물러나와 사랑문압호로와서 주인을 불렀다 좀지체해서 묵직한기침소리가나드니 중문이열리며 길음한얼굴이나오는데 그는주인이다 그는나의처름게온것을 이상히여기는듯하면서 반갑게인사하고들어오라고하야 나는주인을따라방으로 들어갓다 문갑우에는 수선화한분이노혀 쉬치방실방실피는데 그엽헤붙은종의 한장이노혓다 나는겻눈으로그종의를 얼뜬보니 그것은지세(시가지세)독촉장이다 얘면 즐팔十칠원칠십일전에독촉수수료 세줄거리합계 삼십팔원이부른것이다 얘 안즌뒤에 어린계집아이가 예반에다가홍차두잔을 바처들고나왓다 차를마시면서 이런이약이거런이약이하는중에 팔구세된 주인의셋재아들이 툭튀어들어오드니

『아버지 돈이십오전 오리만주세요』

『그건무얼하게?』

『하가끼사요연하장써요』

『엽서는왜?』

『선생님이 양력설날여러선생에게건하신년하래서요』

주인은빙그레웃으면서 주머니를 뒤저서 돈을쇠내준다 나는 더아젓는대야 별소득이업슬듯십허 그만작별하고나와섯다 —(玉缽洞人)—

저들과여기는 달른世上

夜業工場訪問

그공장을나서 ××인쇄회사의 야업하는 공장을몰들어섯다 한달에 겨우이십원내지 삼십원의일을을엇고 고력을 팔고잇는그들은 긔게나마찬가지로 긔게우에서 긔게만들도고 잇는사람이다 먹투성이가되어 사람이라고 할어보기 어려울만큼되어 가지고분주하게 왓다갓다한다 이른아츰부터 느진밤까지 공장문밧게를 나가보지 못하고일을하여야한다고한다

◇

그길로 엇던양화공장을 차젓든 공장문을 열자 코따롭두른고삭밟한 직공들이 둘러안저서몽치로 신짝을 뚝다리고바눌로가죽을 뚤키에 열중하고잇다 나이불과열두셋바게 보이지 안는어린직공들은 서서 왓다갓다하고잇는데 긔구돌 집어달라는외마듸소리만 간혹 날뿐이고 공장안은 자못 친절한긔분이 흥터나리고 잇슴뿐이다 어떤 직공을 붓들고 멧마듸맙을 들오 그들은

◇

『구두한켤레에 이원삼십전식의삭전을바며 한달을모하야 평균 이십여원이랍니다 야업을만메야 사실상버는것은 멋십원에 불과하지오 그래도일을해야살지요? 낙동이야과세를펀히하거나 무얼하거나 우리에겐 그런것이다 딴세상이야기임니다』

그들은 모두이러케말한다 그러타! 택시! 요리! 연극장! 술!이것들이 야업하는직공들에게무슨상관이잇스랴!(露吉生)

一九三〇年 十二月三十日밤의 蒼白한에로街

여보세요·이보소·이봐요

『스톱』— 『타씨』의『헤드라잇』이압박어진다렁빈골목을 샛파란 눈동자를흘기며 주린고양이가 한마리지나간다 나는큰길을 버리고 골목길을남쪽으로드러섯다 집마다회황한붉은등불을 무엇을 낙그려함인지거리에 드리우고잇다 그러나 심각한 물경긔의 삭풍(朔風)은이곳에도 휩쓰러와서손님의발길은 새벽한울의 별처럼지극히한산하야 다컴은 일천구백삼십년섯달삼십일일오전한시의서 사헌정(西四軒町)은 뭇업시 쓸쓸하다 『여보세요』『여보세요』『여보소』『여보』『여보보』『드러와요』『보이소』『자고 가세요』 찬바람에따래진녀자들의엷걸이집집의문에 매달려는 허락힌손을나에게로흔든다

▽

마음을단단이먹고한집에쓱들어서니녀자세사람이한꺼번에달려들어서 말파외투자락을 붓잡어강케로안치고모는흔다 더버린다 『자고가요네—』『올라오세요』『좀 구경을더하고—』 궁금해서 어느사이에모자와가방을쌔아서안으로드려간다 엽해방에는불을쇠고문이굿게닷처잇슴으로 하도 가티달려와서 가로막는다『못보는게요』(!)

▽

『얘들아 우우에좀를사람이잇스니 맛나보고 올케모자랑도루다구요』『안되요 커래속히고가서는 누가온다구』『그래너들이마강케로할테냐 그럼근방 파술소에가서 도난게(盜難屆)를 할테다』나는새삼스럽게 공연히은행원커럼 차리노라고 가방과모자를 점잔케가지고 온것을후회햇다

자 한여실을서로엇고 닥천맛헤 행녀자기 모자와가방을 도두내다가 내밟압해서 펀진나

『엽일다보겟네 오동일밝은손님마다 빈강챠이야하시옵이야 어서가요』—홍며자는 대단히『히스테리칼』해젓나

▽

문맛게나서서 나는이마의 구슬땀을 수건으로씻스며 그만뒤도 도라보지안코 큰거리로 쏠다름처나왓다 도라오는길『타씨』의『굿손』에흐들리우면서나는다시 한번눈압헤그려보앗다—이추운밤에 초저녁부터 네시까지문을 여러놋코 만나이면지맹광이면시 손님이면 오시사고해인는부르는 그여자들의 어려뿌어서갈려진손등—그거리로누며뒤런 기웃거리며 도라다니는청저긔갈군(性的飢渴軍)—일편一떼삼십년압의 배경성의『에로』가(街)의『곡로필』은지극히창백하고우울하얏다

貧民窟

煙突掃除하고어든 廿五錢으로過歲

七十老人放聲痛哭

총동원령(總動員令)이서포되사 빈민굴(貧民窟)에 출동명령을 바든긔자는 광희문(光熙門)외 문허진성(城)및청계천(淸溪川)하류에 농거한 빈민촌(貧民村)을찻게되엿다 화려한도회! 근대적자본문명의 꼿이필대로핀 서울의 한모롱이에서 원시적생활을하는사람이 수백호로 수천명에달한다 긔자가출전한 광희문밧벌에는『스피드』로도는긔계의소리도 들리지아니하며 눈에붙수업는대신에 밝은달파 흰파코를지르는 마쳐장치도 어 눈에차힌 움집거리에는『각설이』타는고담소리가 모창(茅窓)으로 간간히새여나올뿐으로 평화한촌락이엇섯다 그러나이외면만을보고가서는 출전병사의 임무를 다하지 못하는것임으로 한근 양초한자루는사들고『가마니거적』을두드리고 잠간쉬여가기를청하니 이세상의 사람갓지도안흔 그집의주인이 엿속에서기여나오며 대체당신은 누구시며 또무슨일로—이러한누취한곳에는 들어오지 못할것이라고 거절하는것을 억지로들어가는허가를어덧다 이케 그움집의주인을 소개하면 그는삼십삼세의장년의 최×모(崔×模)라는사람으로 로모와아홉살먹은 늙과 세식구가 사는사람인데직업은 연돌소지(煙突掃除)로 하로의생활비는이십전 가지고온 쌀과파자를 내여 노흐며 이업동을 어떠케 보내고장차파세할 준비는엇더함니까 물은후에 조선경케 상태와세정세의머장을설명하니 눈물을흠치지못하는 주인은 목메이는소리로『비—커도예전에는 문안무교정(武橋町)에서장전을벌이고 커의 종형은문부(文部)에서고관으로 잇서남부럽지 안흔생활을 하엿스나 엇지하다가이모양이 되엿습니다 죽지못하고사는인생으로 오날은 진고개에 가서 연돌 두개를소제하고 돈이오전을 어덧습니다 당신의욕돈을짐작 못하는것은 아니오 우리는 하는수업습니다 너머그러마십시오 공연히 숙히흠기만할것입니다』하면서방성통곡하는데는긔자의 눈에도 눈물이흐르고마럿다 이것이보다 인생의참한파비극이라할가 다시 돈몃십전는혀어주고 죄별의인사를파계집아해 무슨뜻이지 알아차려지도못하는듯이도는맙돌방돌니엇(R記者)

下宿屋

돈만잇스면 劇場行

女子만보아도한턱

×골목 어두어가는 저음키리 가등(街燈)아래에 삐스깃슬쓸한 국이 흐르는 하숙옥문패를더듬으며 발길을 멈첫다 조금 대문잇슴매로 다잇스나 안마당 마루박최다 쏘다저보이는 그중의한집을 골다삼고우선발소리를맛혀 래객의뜻을 전하면서 하생문패에 눈을던젓다 요란한 창문소리 그사이로낫하나는 검붉은얼골 물그럼이바라보는 그의시선은 황당이숨어버린다(뜻밧게 녀자가차저온것을 발견한 까닭인듯—)

『히히』

한마듸와함께 잠간동안 그의방은쥐죽은듯—(아마그는험상구진 그얼굴에 손장단을치가며큰발견이나한듯이 이소식을 전하엿슬것이다)

아니나다를가! 이째 반쯤열닌창문으로는 外外숭이 검은머리와 검은눈들이 이쪽저쪽에서튀여나오다가는 움출하고되드러간다 중에어떤눈은 그만햇진의도(度)를지나커 입까지 보이면서 또한순간 후다닥뒤여박는소리가나드니

『으흐 흐—』

『히히 힌』

『아하 하—』

와함께 떠드는소리가난다『아리랑』『가미고히시』『하모니카』그들은 터지려는웃음을 이헌소(喧騷)에싸버리는것이겟지— 그러면서도 그들은 그들의 활발를낫저안엇다

천연스럽게 시침이를떼고 나오는바지커고리하나 신중히것밤으로 달닌다 동시에그방창에서도 검은눈들이 번득인다 그들은 이가티 령리하고도충실한작란군들이다

『애 ××극장으로안가?극장』

『이놈 돈잇니?돈 이자식너한턱해 조흔일잇스면 한턱하는게야 오늘 돈날에』

이구석저구석에서

『히히히』

시험실옥—번득이는선생의눈을버서난 가장 자유로울이밤힘을 오히려 주인집마나님의인색한 밥술에 맛기고지내는그들에게는 어려한순간의 한막작란도 기우려지는경오(庚午)의 마지막밤에 한토막 과연을남기고갈것이다(Y生)

결녹을치고 잇는판에

『선생님은 목사님갓트시요』

돌변 내어마에다가 뜻안이한도장을 콱적어준다

『응 그런치기생시집잘보내는 목사야! 그런대나는 그러커니와 금자(가명)는 바로첫날밤 색시가튼걸』

『아이구 우수워라 빠가그러케얌컨해보이서요 알고보면 딸딸양이랍니다』

『그럼 알고난뒤까지 얌컨해서야 알고날사랑이업게』

말이 어에이르니

『그런데! 이선생님어듸서한번뵈인것가터요』

요새갓타서는 늣잠자기실혀

로이드眼鏡쓴의 雲子字부 墨妓生!

점잔케 보일가 정당케보일가 설날설날한 괘남아로보일가 와거안친 새서방님으로 보일가 농글농굴한 오입장이로보일가 술잡한번돈만흔『통』으로보일가 감흥이흥우에펀치는 링시인으로보일가 넷날에황흥(興)이가 저추진 秋錦을찻든격으로숨소리까지 강개지사(慷慨志士)불우영웅(不遇英雄)을 보일가 그러찬으면『해태끼통』내여불번서 엉뚱한수작을 걸어 강이에 기생눈살을 엿보든페누 든『공조머』가되며 기생한대들 들어보는것도 흥미잇슴 일이다 이러케 생각만은 닭음닭음해보앗스나 청진동(淸進洞)바로 그애접아레득에서 벅벅 연기를날리면서 원래말씨 성진수작으로

그래서 긴화방덤을 도라나설다 나는 식도원호통에 버텝업이 안된일이오 너우나업 생은천기를봉마두로내여든다 그리자 안바문이열니고 잔거 침소리가 나고 나는이려서고기와 그러켓지!』

『나를? 그런는지도 몰으지 안경이야 아로는 대가 업술려니까』

『안이에요 꼭한번뵈줫해요』

『그런데아는사람을 몰으는톄하고 몰으는사람을 아는톄할 때가잇는 모양인데 그졍을 묻자 에게 졸흥에이야켓지』

『왜이리셔요 선생님은내말이라면 그러케 거짓말로만 돌으실니가』

演劇場에 에로風景

어둠속에살어지는 殊常한男女

두셋에 지나지못하나마 머경성을 대표할만한 활동사진상설관으로서도 흥미와호긔심을 가지고 개관하기전부터 ××상설관문압헤가서 개관하기를 긔대려이 음맛는만치 탐방긔자의 자신으로 청관탁석 한구석에가 쭈그리고 안저 청처한눈을번해 손수건으로씨서가며 살펴보앗스나 들은 봄—스레 하게켜노흔비상전등(非常電燈)불빗이흐미한속에 반듸불모양으로 반작이는것은담배불이엇다 열시가지나서 외투『에리』를치올린친구두사람이 어두운 청계를 더듬어올라와 바로긔자가안진 엽헤잇는 빈자리로와안지며 사진에는 일업다는듯이 고개를맛대이고 수군대기시작한다

A『생각할것 무어잇나 데리고 가게』

B『감안이잇게 요전처럼되면또 창피가되면엇지하나』

A『지금잘조토록교섭을하야노앗스니까 념려업네』

A『……』

B A『무엇을그리생각하나 그만집으로갈여나?』

B『오늘밤은집에는다갓네××수형조건으로또와서기대리고잇슬터이니가!』

A『그자식나버려두게 그러케사정을하야도 아니듯는자식 돈이잇드라도천천히주게』

A B『………』

A『그만생각하고가세』

하고십어 이른키듯이 이러나충거리고 한친구는 바로밧잣흐로나가 버리고 한친구는부인석 뒤뜽하로드러간다 긔자도 문밧는곳으로와 담배하나를 물고내려오기를 기대린지 한십분하야 여염집부인으로는 너머나 사치를하얏고 그리타고 뇌접귀부인으로는 보이지아니하는 묘령부인을압세우고 극장문을 나서서는환하게밝은가두(街頭)의『네온싸인』과『비—너스』의 미네손』과를 피하야가며 컴컴한어둠속으로그림자를 감추는 것이다 비밀회견과 유혹의 란무장(亂舞場)인연극장에는『에로』풍경이에다른것이업섯다(Y生)

謹賀新年

京城府鍾路二丁目六十番地 絹布商 **金熙俊** 長電話光化門七五八番

京城仁寺洞 **三成組人力車場** 電話光三三三番

京城武橋町 **漢城券番** 電光一二〇三 一六五〇番

京城府學校評議員 **張基肇** 公平洞六六番地 電光長五二四番

花柳病科、皮膚病科 京城授恩洞一六二番地 **李冕植醫院** 電話光化門一七五八番

活動寫眞常設 **團成社** 京城府壽恩洞五六番地 電話光化門九五九

京城鍾路 和洋百貨 **和信商會** 電光二二番 振替京城九三六六番

朝鮮料理界元老 **明月館本店** 京城府敦義洞一四五番地 電話光化門六四·八六二·一五〇九番

明月館支店 京城府瑞麟洞一三七番地 電話光化門七二五·一七七八番

京城府公平洞七八番地 西洋料理 朝鮮料理 **太西館** 電光一三四 二〇五六番

實質的滿足을드리려고 親切 迅速 叮嚀 廉價四大主義를斷行코저하는 京城黃金町一丁目一四六 **長春園** 宋寬洙 電話本局二〇五八

白商會 電光一三七六番 京城大廣橋南便

京城南大門通 鐵物商 **宋東秀** 電話本二一三九番

京城穀物商組合

京城水産株式會社

京城府漢江通七番地 **龍山工作株式會社** 常務取締役 田川常治郎

喪中欠禮 京城鍾路四丁目 **方泰卿** 電光二二八番

아는것이힘 배워야산다

한글兩大運動의 庚午一年間回顧(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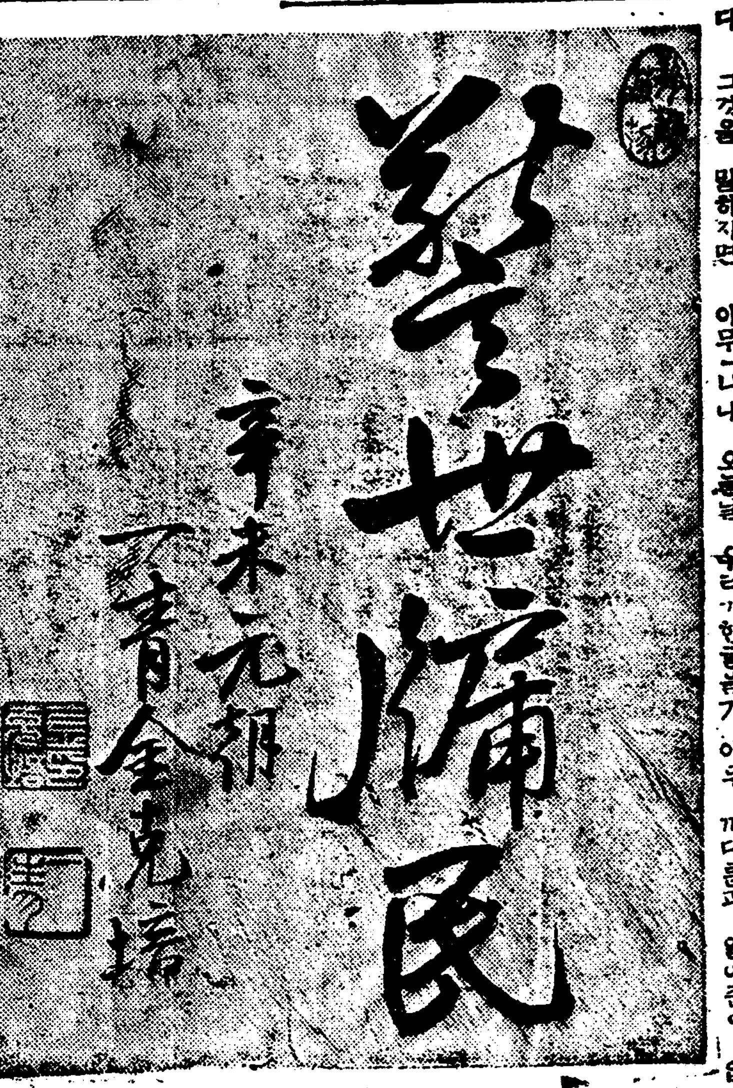
張志暎

올에는 물갈은 세월은어느덧 경오년도 흘려보내고 신미년을 맞게되였다 우리는매양한해를보내고 한해를맞을때에는 여러가지로 생각에 새로옴을 깨닫게된다 그리하야 혹은지난해 일년동안을 추억하기도하며 오는해일년을 예상하기도하였다 물론 지난것은 이미지난것이거니 다시생각하면 무슨이익이 있을것이며 올것은 지나보아야 알것이거니미리생각한들 소용이 있으랴마는우리사람이란 이지적활동을이라 흥비교와 타산을가지게되는것이니 이것으로지난날의부족을이날에채우게되고이해의잘못을오는해에고치게되는것이니여기에서 진보가 있고 개선이있는것이다 내이제 우리한글이 지난일년동안에 어떠한길을 밟았으며 얼마만한 나아감이 있었나를 이케 앉아서 생각하는것도 굳하야 묵은일은 되풀이 하자는것이 아니요 오죽 지난 경험을 설뒤아 가지고 새로 걸어 나가라는 이에에 한층더 힘이 있고 계체이 있게 하고자 하는 뜻일것이다

=한글음= 글도왜 그 존재를 인정하여 주지않든 옛날은 말할것까지도 없으나 갓갑게 한 삼십년동안에도 한글는 비록 일반에게 널리 퍼어지기는 하엿다지마는 그때도 글다운 대접을받아가면서 일호라도 존경을받았다면 그것은 지극히 적은 사람에게서 많이 경주나 개성의 고적유물을 보존하듯이 또는 외롭고 쓸어져 가는 자손이 죽은 조상의 화상을 받들듯히 한가지 호기심과 추모심에서 지나지 못하엿든것이다 그것을 말하자면 아무 타산과 방침이 없 막연한도덕적 관념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밝에는 닭이 볼것이없었는것이다 그러나 글이라는것은 우리인류가 날로살아가는데 없어서 아니되고 아니쓰래 아니쓸수 없는 참으로피료한·실용품이매 고국의유물과같이 조상의 화상과같이위해두고 보기만해서 될것은물론아니다 그럼으로 여긔에는 막연한 도덕적관념만으로는 보존도아니되는것이요 또역지로 보존된다하드래도 실상은 우리에게 족으마한 이익이나마 끼쳐줄것이 없을것이다 그글 자체가 되품이우리쓰기에 편리하고 아름다워야할것이며 또는누리가그렇게맨들기에 힘을쓰며그것을가지고우리일반민중에게 참된 이익을 끼치도록 하기에 노력한뒤에라야 이글는 비롯아 그자체의 목숨도 길어질것이며더욱 우리가 그글의 목숨을길게 맨들자는 본의도 스게될것이다『외조할미 콩죽도 값이싸야 사먹는다』이얼마나 도덕보아도 실리를 말한것이냐이말이 어듸까지 진리일것이다

=그렇다=『한글은조선글이니 조선사람된 우리로서는 마땅히 앗기고 존중하여겨야 옳다』 다만 이것만으로 이유를 삼아 한글을 받들고 나가자면 이는 한갓 도덕적 관념만을 가지고 실제이해를 떠나서 모든것을 강제하자는 헛된 이상에 그치고 마는것이다 아무리 외할미가 남보다는 갓갑지마는 번연이 그의 콩숙이 남의것보다 비싼줄을 알면서도 외할머니의것이기때문에 사먹는다기는 좀 어려울것이다 토이기사람들이 자긔의력아라비아문자를 버리고 로마문자를 쓰게된것을보아 더욱명백히 알것이아니냐 오늘날 우리가 한글을가지고앗기자 존중이 여기자함은안간 내글이다 하는좁은생각을시나서 『한글은 그구조가과하적으로 되였다 우리로서배우가쉽고 쓰기떠하다 우리말에 맞후어우리뜻을 나타냄에매우정확하고 적당하다 만일이것이 아니고는 다른것으로는 이것처럼편익을 줄수업다』 할을확실이 인정함에 있는것이다 여긔에서 비롯아우리가한글을 앗기고 존중하하여야만 옳을의의가 더욱굳어진것이다 그때여과에 따러우리에게는또 한가지 문제가일어났다 한글이 생겨난뒤로이글을 애중은커녕천대학대를하였고 선천보급은 커녕날살억압을 하였기때문에 이같은 왜운울귀노라고학리적 발달과 실체적진전을 보지못할뿐만아니라 몰이어 실실의퇴보지위의타락을 보게됨이적지 않게되였으매 이케에있어서는 이글자체를아름답고규모있게 정리할것과 우리대중이 이글도말미암아 널리 읽을얻도록 보급시길것의 이 두가지의 큰운동이 반듯이 일어나게 [illegible]

=이글을= 공사문서에 외반적으로 쓰기시작한것은십오이후삼십년간의 일이매이글이차차 널더 쓰이게 될을때려 이것을 알아보며 이것을 가다듬어보려고 뜻을두는이가 생기기를 시작하여 그몇몇분으로 부터 낡은서적에서 역사적 그본질을 찾으며 새과학에 빛우어 합리적 체계를 세우기에 힘을 상당히 들인결과 오늘에 이르러서는 자못 규모가 있게 면목이 새로워 졌음을 놋기게 되였다 그러나 그나려오는 동안에 있어 우리일반은 여긔에 아무 개다름과 알아줌이 없이 한글을 연구한다함은 그커 야릇스런학구정이 멧멧이 자긔네의 자미도 짓거리는것이거니하야 그네들을 대할때에는 아부 리톤도 없이 털어놓고 비웃고 반대하는것이 의례人일이었으나 그래도 진리는 쓸어지는 법이 없으매 그렇게 나려오는 이십여년사이에 이론는 자라기를 시작하야 부지불각중에 더가 굳어지고 자리가 잡히게 되였다 이케와서는 그이론은 일반적으로 퍼커서 우리글을 정리하여야 하겟다 우리글을 보급시겨야 하겟다하는 이두가지문케는 참된 시대적 대중적요구로서 이에 갑이 반네할 사람은 없게된것이다 이커럼 선구자멫사람의 노력으로 씨를 뿌리고 결음을 주어서 자라난것이 최근수년에 이르러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되는데 더욱 지난경오년에 와서는 우리가 잊지못할만한 큰 수확을 얻게된것이다



懸賞募集

二等當選

한글紀念歌
都鎭鎬

一
거룩할사우리한글
지으신법다하시고
모양마자고우시니
님이실새이보배를

후렴
우주의빛세종님이
훈민정음지으시사
우리겨레갈치시니
오백년전오늘이여

二
스물여듧글자로서
소리소리다그리며
온갖글월갖은말을
마음대로쓰고짓게

三
이야우리문화엄마
온누리를거느리사
무궁화무궁한봄에
길이새로노니과저

文字普及歌
李順珠

一
사천년 잠겼든 어둠을뚫고
삼천리 이땅에 울리는소리
배우자 배우자 배워야산다
어깨를 겯우어 배워야산다
어깨를 겯우어 배워야산다

후렴
공장에서나 들판에서나
어른아이든 모이는대로
한둘이면한둘이 열이면열식
배우자기어니은우리글부터

二
내것을 내맘껏 내못지니며
내살림 빛나게 내못벌임은
뜨고도 못가린 어둔탓이다
배워서 자돌힘 아는것이힘
배워서 힘돋자 아는것이힘

三
덩지큰어둠지옥깨트려붓고
슳음이서린가슴뒤집어엎어
악물고부르쥐고배워나가자
봄새벽놀에같은그날오리니
봄새벽놀에같은그날오리니

辛未年의 史的考察(一)

文一平

辛未年에 發生된 모든事件중에 먼저 생각키는것은 辛未洋擾이다

辛未洋擾는 丙寅洋擾와 아울러 大院君의 執政時代에일어난 二大洋擾로서 近代朝鮮이 東漸하는美佛의新勢力과우악스럽게 接觸하든 喜悲交錯의劇幕이엇섯다

그러나 辛未洋擾는 丙寅洋擾와는 달라 美國의眞意가 朝鮮에對한 問責보다도修交에 잇슴으로 만일朝鮮爲政家의 國際眼이 鑿明하엿슬진대 일즉日本이 『페리』提督에게 開國을 許한것과 가티 이때朝鮮도 『로-저스』提督에게 通商을約하엿스리라

맑음날라! 綿甲과羽船을 創製하야 精銳한砲彈을 막으려고하든 戲曲的 對外 經綸을 가잔怪傑大院君은 宇內大勢에逆行하야 頑冥 鎖國을 固執하든것이다

高宗[illegible]에 美船一隻이 鐵山近海에서 難破되매그船員을 淸國으로 護送하엿더니 同年七月에또美船一隻이平壤大同江에 闖入하엿다가그만 燒破되니 이것이 곳朝美間의 國際的 問題를 일으킨『서어맨』號事件으로서 그美船의 要望이 交易에잇섯스되通告업시 內河에 들어와 國禁을 犯한때문에 平安監司朴珪壽는 憤怒하야 그美船을 燒破하고 船員을 擒殺함에 이른것이다

이悲劇은 佛艦이 朝鮮에來襲(丙寅洋擾)하기 바루一二個月前에 發生하엿는데 當局者는 그것이 美船임을 아지못하다가 얼마뒤에 北京으로부터 온 淸國咨文에『據美使衛廉士稱、八月內(陽曆)有兩枝桅船一隻 在高麗擱淺 被高麗將船隻竝捉去船主水手等 二十四人 未知生死如何』云云한것을 보고서야 비로소 驚疑하게되엇스나 漢陽 朝廷은回咨하되『本年七月 洋船來泊平壤府……擱淺而自被燒溺者 卽自稱英人崔蘭軒……原無美國人兩枝桅船一隻擱淺被燒 竝無捉去船主等二十四人之事』라하야 燒破한洋船은 美船이아니오 英船임을主張하엿다 그러나 이로말미암아『서어맨』號의 遭難한事實을알게된 美國人側에서는 이機會를타서 修交通商을 트자고하는 論이 盛行하야 마츰내駐與衆修交의任務를 띄고美國亞細亞艦隊司令官『로-저스』提督이 朝鮮으로 올새먼저 淸廷을거쳐 美艦發往의通意를 聲明하엿다 그러나 當時執政者인大院君은 美國의懇懃한뜻에 對하야 朝鮮에는貿易할物品이 업다는理由밑에一言으로 그것을拒絕하는 同時에·沿海武備의 嚴修할을 命하엿다

그러더니 과연辛未四月中旬에 美艦이 江華近海에 나타나 來訪ㄴ理由를 告하며 아울러臨解를求하엿지만는回咨를 하지아니하엿더니 그케는 同海峽을 測探 하면서測上함으로 우리守兵이 砲擊을더하엿다이에 憤慨하게된 美兵은 江華島에登陸하야 廣城鎭에서 一大激戰을보게된바 彼我兩邊에 적지안흔死傷者를내엇스며鎭撫中軍 魚在淵의陣歿도 이때일이다

美艦는 이로부터 永宗島로물러가 京江의咽喉를 扼하고 얼마동안漢陽의形勢를 觀望하엿지만 大院君의手腕은갈수록辛辣하야져 『洋夷侵犯、非戰則和 主和賣國』이란 警語를 碑石에 삭여 國都의通路에 세우고 敵愾心을激勵함으로 斥洋熱이點 쓰는판에 修交라는것은 다무엇말라빠진것이냐

이리하야 江華近海에 나타나 一世를驚動하든 美艦이 一個月半만에 마츰내拔錨하야 芝罘로 退去하고말으나 이것이일은바 辛未洋擾이다

辛未洋擾란말하면 好意를敵意로써 막엇스며 玉帛을兵戈로써 몰리친것이니 朝美兩國사이의 政治的交涉은처음부터 失敗의[illegible] 그後壬午年에가서야 비롯오 美國과修交를하게되엇고 丁亥年에가서야 처음으로美國에公使를 보내게되엇거니와

朝美 條約이成立된翌年癸未에 閔泳翊氏가 報聘大臣으로 美國에갈새當時京城에 駐在한 美國公使『푸트』氏는 이朝鮮最初의 使節을 그本國政府에 紹介한글의一節에『……寔爲我國人出洋之始……凡諸政治之得失 貿易之盛衰 次第說道 俾知交際之有益 富强之有術 令朝鮮于於開進之上級』(漢城旬報) 云云하야 朝鮮을어린이가티誘掖提醒하려는 誠意가 아주야릇하엿슴에 不計하고 그리親密한關係를 짓지못하고 말은것은원악부터 國際的利害가 稀薄하든때문이다 貿易가튼것으로 말하드라도 아주僅少하얏스며將來에 크게發展식힐 希望조차 업섯슴으로 비록條約中에『互助』의 文句가 잇섯스나 아무效果를 나타내지못하고 畢竟『포-스마스』講和時에 이르러 바자버리는것으로서 兩者의 政治的交涉은 終局을 告하엿거니와 오늘날 저人道界吏者인 『홀』夫人의 醫療 事業과『언더우드』阿扁薛羅·巴布氏等의 敎育事業과其他 同國人의 傳敎事業가큰것은오히려朝美兩族사이를文化的으로따뜻하게連結하야준다

六十年前辛未에『로-저스』提督이朝鮮을 訪問하엿슬적에 銳意로 美國과굿게 握手하야 그의文物을 輸入하야 改新을圖하엿슬진대 우리네 오늘날進步는 얼마나만히되엇겟는냐 아마모르면 몰라도東亞의富强한 文明人이되여 남과가티橫行闊步할것이다

그러나 이는 한空論이오 臆說이다 그때國情으로는 修交通商을 實現하기 困難하엿다 웨그러냐하면國情을 남에게 알릴가 꺼려하야 親隣인淸國에對해서도오히려通商을許하지아니하엿거든(使价往來時에限하야 貿易을許한것은 例外로하고) 海外萬里에 隔在한美國에게通商을 허할理가 萬無한것이며

天主敎 를邪學이라해서 禁斷하는판에 洋國과 相通하면邪學이 熾盛할念慮가 업지아니한즉 이點으로도美國과 通商을허락할수 업섯다

謹賀新年

光州

光州本町 中央醫院 金興悅 電話三三二番

光州明治町四丁目 太陽醫院 曺軒煥 電話四一六番

光州 瑞石醫院 崔泳旭 電話七〇七番

光州大正町一六番地 金孝誠

谷城郡木寺洞面 高在鳳

光州本町五丁目 麥酒燒酒 正宗醬油 卸小賣商 吉丸商店 郭淳載 電話二六八番

光州大正町 湖南產業株式會社 社長 池應鉉 支配人 康道成 電話三二五番

全南光州本町一丁目 洋品雜貨 金性一商店 同洋服部

光州本町五丁目 三山堂大藥房 電話六一一番

光州本町 東亞婦人商會光州支店 李熙昇 電話二三〇番

全南自轉車運轉士共濟會直營 各種自動車部分品及附屬品 各種機械販賣自轉車及 各種發動機修繕及塗替 自轉車ホロ及ボーデ製作 全共鐵工所 會計 吳炳煥 全南光州南町九番地 長途電話三四九番 振替京城一五一二五番

光州明治町四丁目 順天光陽河東 光河自動車部 李奉煥 直通電話一〇四番

光州楊林町 私立須彼亞女學校

光州明治町五丁目七四番地 裵晋誠 電話四二四番

光州旭町一四番 鄭仲萬

光州明治町 吳[illegible]月

光州明治町 金福因

全羅南道廳 食堂員一同

光州金曜會

光州警察署

光州本町 湖南醫院 權桂洙 電話六三七番

光州本町五丁目 南鮮藥業株式會社 電話四二〇番

光州本町 綢緞布木 大昌商會 電話三三七番

光州本町 コロムビア レコード 蓄音器 電器器具 南海堂樂器店 金俊實 電話四五二番

光州本町四丁目 各種木物製造各種漆器鍋具 林鶴雲商店

光州本町四丁目 新聞雜誌 文具諸紙 光明堂 電話三一九番

光州光山町 秋野寫眞館 電話二六九番

光州本町四丁目 朝鮮紙和洋諸紙 光盛紙物商會 主 金判實

光州明治町 貨物車部 全南商會 李丙淵 電話六三五番

光州湖南町 光州自動車講習所 崔[illegible]均

光州本町 原田自動車部 電話二二〇番

光州明治町四丁目 光陽旅館 李光陽 電話六二七番

光州本町 舊光一旅館 左愛月 電話五三五番

光州本町 錦光旅館 電話六四六番

光州明治町五丁目 全一旅館

光州郡松汀里 松汀公立工業實修學校 電話一〇七番

光州明治町 池應鉉

光州明治町 朴炳昊

光州明治町 司法代書人 姜寬鳳

光州社町一四番地 尹英夏

光州大正町 具哲佑

光州不動町一五一番地 南宮熙

光州南町 金基浩 電話六二六番

光州楊林町 崔相鉉 電話五六四番

光州楊林町 朴基采

光州明治町 朴琪柱

谷城郡石谷面 金判基

清州

衡平社清州支部員一同

清州本町一丁目 各種自轉車販賣並修繕 復興商會 主 金京植

清州本町二丁目 各種紙物文房具 各種印刷 清州印刷所 電話二五二番

清州清水町 一也寫眞館

清州 布木商組合員一同

清州清水町 趙富岳

清州清水町 金尙鉉

清州朝鮮日報支局 孫振翼

清州本町四丁目 高見酒造場

清州清水町 李正華

清州清水町 布木商 福興商會 主 崔東譽

清州清水町 喪中欠禮 朴贊圭

清州本町二丁目 印章彫刻 名刺印刷 文玉堂印舖 主 韓東吉

清州江內面 美湖酒造場 主 李錫永

朝鮮日報 其四

文壇側面觀【一】
─左右派諸家에게質問─

梁柱東

昨一年동안의文壇은 果然前에업시沈滯하엿든 文壇이다원악 筆者가 遺憾에 文壇파는거의局外에잇는듯여 關心이적여서 月刊雜誌에 따달히 發表되는作品을 通讀치못한탓도잇겟지마는 大體로보아 作品의數도 그리만치못하엿스며 特히 文藝理論方面에는 한個의記憶할만한論文도 發表되지안엇다 이 沈滯의原因에對하야는 別로히長談치안코저하거니와 何如間 文壇의盛衰가 亦是 經濟界와密接한關係가잇느니만치 近者의朝鮮의社會情勢가 첫재로 作家와評家의 生氣잇는活潑한進出을 만들지못하고, 그리하야 眞作家의勢伏新作家의無力을 誘致한것이事實이다 特히 文壇上最右翼에屬하는 藝術至上主義者一群은 밀레의말맛다나 『말할아모것도업시』 마다른꿈녁에到達하엿스며 民族文學을支持하는一群에게도 當面의情勢에 相適할만한 새로운積極的理論을展開치못하기때문에 亦是 何等의括目할만한 飛躍이업섯슴으로 昨一年間의文壇은 그나마 無産派에서 相當한期待를갓지안흘수업섯다

◇

그러나그側에서도 評家는一齊히붓을停止하고 作家도別般制作上의새로운意圖조차 보이지못하엿다 내생각에는無産派의 이沈滯現象은 前速한理由外에 다시重大한意義를相伴한다 하다 무엇이냐하면 無産文學은 距今六七年前에처음으로그運動이니러난後 漸次社會情勢의急激한變遷을따라 바야흐로 本舞臺로─다시말하면글자대로 『直體』化하는듯한 이때를當하야 無産派文人의 大部分을 形成하엿든 인텔리分子들이 必然的으로 漸次低個的 回避的 微溫的─그리하야 畢竟 그一群의 終局的脫落을 보이게될것은 明若觀火한事實이다 由來 나는以下에서 詳述하려니와 인텔리의無産階級的 役割은 終局的으로 過大評價치안는者임으로 無産派文壇에서 인텔리分子 셀라리맨層 乃至프티·색르出身들이 언제外저나 그理論에忠實하고 더구나 實踐的態度를支持할外한이 내게잇서서는 한興味잇는 觀察의對象이엿다

◇

毋論이러케말한다고 現在朝鮮의左翼文壇에 인텔리分子가 당장一掃되리라하음은 決코아니다 勞農出身의作家와理論家가 文壇에 그리만히出現치못한現時에잇서서 인텔리의『代理的役割』은아즉도그意義가잇다할것이다 만은 昨一年을通하야 表示된 一個의現象─인텔리左翼文壇의無力化는 적어도如上의觀察의一部 的中이안되지못할것이다여긔서筆者一個人의獨斷을許한다면 在來에無産派文人으로 自處하는幾多의『인텔리』分子는方今漸次로深刻化하여가는 의『實體』的情勢와逆動을直面하야 或은拒然히서서 압실을瞑想하고 或은다지안께도數武의退步를할에外지니르는듯하다 前進이냐? 退步냐? 或은代價以上이냐? 여긔에 『인텔리』左翼一群의苦悶의秘密이잇다고생각한다 언젠가中外日報上에發表된林和, 安漠氏等의 『同志』에對한逆襲的態度, 朝鮮之光某月號에發表된八條의感想文斷片을보아도 消間의消息는足히엿볼만하다 이는다만筆者一個人의臆測에不過한다

◇

이러튼昨一年동안은文壇全體가例年에업시不振이엿다 그러나 나는昨一年間의一時的沈滯에對하야 只하여悲觀코저하는者아니다 마다悲觀할것만者로하야금完全히崩潰를맞하게하고 積極的理論을 찾고저하든者로하여금 暫時동안 局面打開策을瞑想케하고 『實體』化한運動에서 微溫分子로하여금快速히脫落의必然的途程을 밟게함은 일의順序로보아 至當한노릇이오 엇던意味에잇서서亦必然의『準備過程』이다 나는차라리 昨一年의文壇不振의原因을 追하야 今後各派의 積極的進展을 보고저하는者이다

鼎齋 崔禹錫 氏筆

世界文壇의一年間變動(一)

異河潤

嚴密한意味에서 우리가 一年間의海外文藝에對한 眞正한動向을 論난다는것은 거의不可能한事實일줄로생각한다 相當한時日의距離가업시는總括的으로 어느時代의思潮도 明確히規定해버릴수업는일이어든하물며 그들과數千里를 隔해안저서

新刊 파雜誌조차 自由로히 바더보지못하는 一個貧弱한朝鮮留生으로서 이러케큰問題를 엇지조금이나마解決할수가잇겟는가 더구나알흐도엇더케되여나가리라하는豫測은 우리에게잇서서는 허술한일이決코아니다 自己의專攻하는한두나라에 局限되는일이라하면多少問題는 容易하게 歸着될는지도모르나 그範圍가 世界全般에잇는것이매 또한筆者의困惑은 더욱甚하여 지는것이다 그러나 다시생각을 도리켜보면 自己가世界人의 한分子이라는 嚴然한事實알에 現下의모든問題가 全혀世界를舞臺로삼고 이러나는것을 볼수가잇나니 이제이것을가지고 多少의慰安과 勇氣를어더 붓을압흐로 옴겨나가보고저 하는바이다

在來 에잇서서 이러한問題下에 新年號에나 新年號에執筆한諸氏(筆者도包含되지안는바아니나)의글을보면 大槪十年間 或은그內外의 엇더한思潮나運動을 中心으로하야敍述하여왓고 또이것이 그自體에잇서서도 重要와價値가잇는것이라고 생각하는터이지마는 무엇보다도 重要을兼하기爲하야今般에筆者는 다만今年一年間의消息을 雖然하게나마 한자리에 報道하는것으로 이글의目的의全部를 삼고저한다그럼으로 어글은한時代 라시말하면 現代의文藝思潮를 廣汎히論하는글도 되기어렵거니와 그러타고部分的研究와 性質이비슷한것도 決코아니다

特히 이것은 新聞紙上에 報導된 外部的事實을 언지로잡아가지고 거긔關聯된 內部的敍述을 試驗하고자함이니여긔에깁이파들어가야할 여러個의研究題目이 나불거지나그러나 그것은實로 新聞의新年號的性質과는 좀先을 달니해가지고 다른機會에 討究해보려한다 그리하야 우리는임이新聞紙上으로 數年來 海外文藝에關한 總體的 個人的紹介를한同志가 만히잇는中에數年前에 東亞新年號에실린梁柱東의 論文과 再昨年新生活年號에실린徐恒錫 鄭寅燮 筆者의論文 昨年中外新年號에실린金晉燮 鄭寅燮 金晉燮의論文 그리고 東亞日報十週年紀念號에낫든 鄭寅燮 徐恒錫 金晉燮 李白華 咸大勳 金尙鎔等의各國文壇 動向의槪述과 朝鮮日報夏季特別講座에오랫동안紹介된 鄭寅燮의大戰以後 世界文學觀은 現代海外各國의 文藝思潮를 理解하는데가장基礎的根據를 잡을만한것이잇슴을 생각한다 勿論이러한 一般的概括的紹介文外에或은詩壇 或은劇壇 或은一個作家에關하야 各其 무게잇는研究文을發表하야 이方面에努力한분들도 적지안흐니 가만히생각하면 意外에 우리도海外文藝에對해關心하게되엇고 相當히그들에게 接近해감이 또한事實인모양이다

本論 에드러가기前에 數言더添付하려하는것은 여긔에말하려하는 事實의材料는 勿論外國의新聞雜誌에 依한것도잇스나 거의朝鮮의新聞 海外文藝消息欄에發表된것인바 停刊되엇든 東亞와 休刊中에잇는中外에서는 가장貴한事實外에는 材料를 남겨노치못한채다만原稿의付托을맛고서 더욱參酌해보려든것을 讀者의便宜와 系統도잇슬듯십고 筆者의煩雜도 덜가하는意味에서 朝鮮日報만을 무시하번훌터살피고 이글을草한다는것이다그리고 지난一年間 本紙上에실린丁來東의『中國新詩槪觀』과金鍾의『최후파그의新路』 片石村의『노─벨文學賞受賞者의프로필』 咸大勳의『야젠스키의巴里燒却』 張翼鳳의『카─근라일』朴英宇의『大戰以後世界劇壇槪觀』等은이글을쓰는 筆者도서 거저默過해버릴수업는種類의것이엇다하는것을 말하고저한다

다만 筆者로서 몹시遺憾으로 녁여마지안는것은 海外文藝消息을 報道하는데잇서그境遇에딸아서는 좀더仔細한解說을加햇스면 조흘리라고 생각되는일이 만흔것이다 新聞社로서도 重要한人物의要職과寫眞의常備가 必要한것과가티學藝方面의勤務者로서는 또한國內는勿論 海外의有利한 學者와 文人等에對하야의 그러한準備에留意하지안흐면 안될것이라고생각한다

그러면果然一九三〇年 實로말성만흔一九三〇年에世界文壇에는 엇더한事實이잇섯는가나는그邪路에說을솟리고자하지안코 오로지正當한文藝的現狀을보아나가며 몃마네의意見을부커보고자하는것이다 그러나或여긔記憶上不得已하야 缺치는것도잇스려니와 또

筆者 로서 重視치아니하는것은 조곰도붓잣헤올리지아니하려고한다 同時에便宜上그順序도 가장自由로운態度로排例해나가고저함으로 自然雜駁할것은말할것도업는일이다 첫재우리머리를 아직도떠나지아니한 커歐洲大戰爭으로말미암아 그것을題材로한作品이아직도 全世界를風靡하고 남어지가잇다는것을特記하지안흘수업스니 一便에서는임이『戰爭小說에倦怠를늣기지아니하는가』하는疑問을 던저노코 눈치를살피는사람도잇다

정성스러운마음으로
새벽祭壇에나아가는者와갈이

麗水

○

흰눈이 소리도없시 따우에 나리고
찬바람이 밤마다 들장을 흔들더니
해는바꾸여 벌서 새해 새아츰
새로운 感懷가 스스로 이는때외다

○

덧없이 지나간 세월이 이제또一年
생각하면 그것은 흉로방의 꿈자리외다
不幸과 苦難으로 보내인 세월이또一年
그것은 비틀거리고 걸어간 나의발자최이외다

○

그러나 過去는 이미 바람에불려간 꽃조각
永遠의 잊음바다우에 띄워버릴뿐이외다
恐懼한얼골로 그것을생각하며 무엇하리까
이제 내앞에는오직 새해 새아츰이있을뿐이외다

○

이아츰에 나는 祭壇에 나아가는者와같이
沐浴齋戒하고 새벽祭壇에 나아가는者와같이
오직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새해를 新婦커럼 마지할뿐이외다

○

惡夢같은 過去는 이아츰에 불살어 버리시다
묵은때 있거든 이아츰에 깨끗이 씻어버리십시다
그리고 앞날을바라고 한거름 또한거름
나아가십시다
그대와 나, 오직정성스러운 마음으로도─

短篇小說入賞發表
初旬부터順次揭載

二等 犧牲 李永根
二等 비오는날 宋廼淳
二等 누님뭇는날 玄鴻
三等 髮 安必承

詩, 童謠, 童話, 其他入選作品은順次揭載할時에等級을아울러發表함

三代(1)

廉想涉作 安夕影畫

두친구(一)

덕기는 안마루에서 래일가지고갈 새금침을 아범을식혀서 묵리게하고 축대우에 섯스려니까 사랑에서 조부가 뒤ㅅ짐을짓고 드러오며 덕기를보고

『애 누가 차저왓나보다 그누구냐? 대가리맡하고...... 친구를 잘사괴야하는거야 웨모두라고 차저온다는것이 『모두그더위운이냐』하고 눈살을찝흐리는 못맛당하다는 잔소리를 들어노라가 아범이 무리는 이불도 시선을 돌리며 놀란듯이

『애 얘 그게웨냐? 그게무슨이불이냐?』하며가서만저보다가

『당치안흔! 삼동주입늘이다뭐냐? 주속이란 내낫세나되어야 몸에걸치는거야 가외저련것을 공부하는애가 외국으로 싸고나가서 더럽혀버릴테란말이냐? 사람이 지각머리가......』하며부엌속에 쪽치고섯는 손주메누리를쏘아본다

덕기는 조부의꾸지람이 달은데로 올마간틈이라서 사랑으로 빠져나와왓다

머리가 덥수룩하고 꼴이말아니라는 조부의 말눈치로보아서 김병화가 온것이 짐작되엇다

『야ㅡ 그러지안하도 저녁먹고 내가 가라하얏섯네』

덕기는 이틀만에 만나는이 친구를 더욱히 래일이면 작별하고 말터이니만치 반갑게 마졋다

『자네가는 뿌르조아가 내게와서! 자네가 작별하라다닐테는 적어도 조선은행총재나......』

병화는 부여케 먼지가안즌 외투 주머니에 두손을찌른채 떡버티고서서 이러케 비꼬는 수작을하고서는껄껄웃어버린다

『맛나는족족 그러케도 짓구지 한마듸식 비꼬아보아야만 직성이 풀리겟나? 그성미를 좀버리게』

덕기는 병화에게 뿌르조아 뿌르조아 하는소리가 듯기실혀다 먹을게잇는것은 다행하다고 속으로 생각지안는게아니나 시대가 시대이니만치그런소리가ㅡ 더구나 비꼬는 소리는 듯고십지안엇다

『들어가세』

『드러가게』 무얼하나 출출한데 나가세그려 그년의하숙으로과의 눈치스밥 먹으려드러가고도 십지안흔데...... 군자금 만대게 내 조흔데 안내할게!』

『시원한소리한다 배 안내할게 자네좀 내보게』하며 덕기는 림시서재로쓰는 알에ㅅ방으로도 들어갓다

『여보게 담배누러 한아내게 버렷든 그저무어나 돌어오라는건일세』

하며 병화는 방안을 드려다보고 손을내미럿다

『나업슬때 소중 담배옥줄테그런』

덕기는 책상우에노힌 피죤갑을들어 내던지며 웃다가

『그저 담배는개라도 착취를해야 시원하겟나 자네와나와는 착취피착취의 계급적의식을 권도시키세』하며 조선옷을 흉흉벗는다

『담배한아에 치를떠는ㅡ천생 그한아버지의 그손자다!』

병화는 담배를 권권이 피어서 맛이 나는듯이 홈벅빨아 후ㅡ뿜어내면서

『여보게 난 먼저나가서 기다림세 령감님이 나와서 흰동자로 우왈엘 훌터보면될일도안될테니까!』하고 뚜벅뚜벅

사랑문밧그로 나간다

아닌게아니라 덕기도 조부가 나오기전에 얼른싸져나가라든차이다 조부는 병화가누구인지도 몰으면서 다만양복쟁이나 머리를 덥수룩하게하고 단이는것으로보아 무어나 또드라다니는 위인일것이요그런축과 어려서술을배호고돈을쓰랴단일까보아서걱정을 하는것이엇다

덕기는 병화의말에혼자픽웃으며벽에걸린 학생복을불이나케떼어입고외트를들쓰며나왓다

『래일 떼시에 떠나나?』

『글쎄, 데개 저녁이되겟지』

덕기도 유한계급인의 가정에서 자라나니만치 떼시차에갈지 분명히 작정도안하얏거니와 래일못가면 모래가고모래못가면 글피가지하는 흐리멍텅한예정이엇다

『어케 떠나든 상관잇나만은 상당이핫겟네그려?』

『령감님솜씨에 주판질안하시고 내노시겟나』

『우는소리말게 누가 기대일까봐 그러나』

『기대면 줄것은 잇쑤......』

『앗게! 그래두 한달치는해주어야 떠나보낸펠세 잇는놈의집가르면 그대로 먹어주겟지만 주인놈이 공장에를다녀서, 요새그흔한쌀갑에 되되히밥아먹네그려 참아 볼수가잇서야지......』

『흥......』하고 덕기는 동정하는눈치더니

『자네더위를 두기가 붓칠어지』하고 웃어버린다

謹賀新年

000007

京城禮智洞二五番地
痲疾 梅毒 專門
濟衆院
振替京城一五二一一番

京城鍾路三丁目十七番地
各種金物
唯一商店
振替京城一九二八二番

京城鍾路二丁目七十七番地
各種雜貨 ハモニカ 懷中電燈 卸商
金泉商店
振替京城一四一九六番

京城府水標町七六
姜栢淳
電光一九八四番

京城市內南大門通一丁目
布木 都散賣業
金命根商店
電話光一六七番

特製燒酎蒸溜機 米麵製粉機 子粉精粉粹機 麥粉製米洗米機 飽金製造機械 啤酒其他釀造機 器具製作販賣 米國製セツト石油 發動機特約店
서울鐵工社
京城府公平洞四〇番地 電話光化門二二五〇番 振替口座京城一二四三番

最新式洋靴 蹴球靴 野球ラケツト 運動具 製造一式販賣
京城鍾路二丁目七七番地
서울꼿셸製造所
主 李康旻
振替京城一五五一五番

營業品目
大工道具 建築金物 理髮器具 朝鮮金物 和洋金物 裝飾品 日用雜貨
京城府鍾路二丁目十二番地
吉川金物支店
電話光化門三八八番 振替京城一〇九七〇番

蹴球靴 野球靴 スケート靴 洋靴 其他運動具 製造販賣
京城府鍾路一丁目七五
漢陽꼿셸製造所
主 郭潤銑
電話光化門一〇七七番 振替京城五七〇五番

朝鮮料理
天香園
京城府仁寺洞百十番地 電話光化門八五九番

京城府公平洞
大昌貿易株式會社
電話光化門 六一〇 二二七二 一七三七 一四三七番

京城府樂園洞二六〇番地
樂園病院
電光二三三七番

京城府觀水洞
金溶埰內科醫院

京城府鍾路三丁目
天浩堂醫院
電話光化門六八五番

京城府授恩洞三十二番地
朝鮮商會
電話光化門一七八五番 振替口座京城一〇三八六番

京城府寬勳洞一二二番地
壽星堂藥局
藥劑師 金壽萬
振替口座京城一一二一九番

京城府冷洞二七
京城賣藥商會
獨一洋行

銀行集會所俱樂部會社團
東洋拓殖株式會社
京城電氣株式會社
三井物產株式會社京城支店
朝鮮鐵道株式會社
朝鮮郵船株式會社
金剛山電氣鐵道株式會社
京城株式現物取引市場
朝鮮火災海上保險株式會社
不二興業株式會社
朝鮮土地改良株式會社
朝鮮煙草元賣捌株式會社

金銀白金美術品製造販賣所(종로광교서편모퉁이)
金銀白金美術製造販賣 各種新舊器皿 各種記念品類 各種文具男具類 各種金銀首飾 各種金銀首飾大小 各種婦人珮物金 各種男女半指銀
漢興商會
主 趙漢傑
主務 李興鎬
京城南大門通一丁目一一三
長電話光大四二一番

先進으로서 後進에게보내는말 (1)

우리녀성은어써케살어야할가 새해의새포부,희망

槿友會 姜貞任

모든일에잇서 리론과실제는 넘어나다르다는것을우리는뼈뼈로늣김니다 현실의 실사회의모든것은책상에서생각든바밧안에서늣기든바와는넘어나 다른것입니다 이러한의미에서임니사회에말을내노코 사회의일원으로 활동하고잇는우리의선진들의귀중한 체험으로부터엇는만흔포부와희망을 새해의새활동의한낫참고로듯는것도 또한뜻깁흔일일것입니다……

▼……어느덧해는밧귀여밝아 새해가 다사왓습니다 누구나다 똑가티 마지하는 새해입니다만 특별히 남다른립장에서 살고잇스며 또남다른고욕을밧은 극히 소수의 선녀성인 우리에게는너머나 큰짐이만습니다 이러한의미에서 누구보다도 우리후진들에게 나는만흔기대를가지고 이 신미(辛未)년을마지하럼니다

▼……우리는정치적으로경제적으로의 모든사회적 조건이다 뭄나라의 그들에비하여 특수한 환경에잇습니다 우리는 좁은새 안경을벗고 좀더큰눈으로 우리의맘장을 관찰하여 자각이잇서야할것입니다

▼……또그엇입닛가? 농촌의 녀자문맹무리와 전조선의 딸일이나되는 어린동생들은 배홈에 굶주리여 갈곳업시 방황하고잇습니다 또오래ㅅ동안녀성의개성을 짓대무시하여 녀성의존재란 단지가정의노예로 남성의부속품과가티만보는 것을 아커서는안됩니다 그리하여 이모든것을위하여 분투하며 확실하게 더욱철저하게 우리녀성들의 사회적지위를 깨달어야 하겟습니다

▼……동시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과연어떠한 사회를형성하고 잇는가를알어야 할것이며 우리들의사회적 존재의가치와 똑똑히어나가야할길을 때하여 각자의힘바에 충실해야 할것입니다 눈압헤욕을쉬노아도 능히그것을 알어보지못하는 문맹의 조선녀성중에서 우리는 교육을맛은 소수의 녀성입니다

▼……그럼으로 우리 만흥은 우리에게 위대한힘을 귀해하여 우리의 사회적요구가 만흐니만큼 우리의책임은 심히중대합니다 그러나우리눈에는 분와주택의화려한 의복파 옹놀실의가진 악긔가 붙어노힌가정이 그리워질것입니다 이러한 몽상은커황홈속에서 평화와 향락을마음것 노래하는 그나라의 녀성들의던뭄이니 황새의 흉내내는뱁새에지나지못할것입니다

▼……그럼으로 우리는 오로지허영을떠나서해가거듭할수록떠라진실한태도로 우리의 압길을 개척하고커며욱배우고또한힘잇게는대로 가르켜서 새해부터는 우리들의종천의 사명을 더한층 충실하게직혀나가며 우리들의 맛당히행할바를 더욱 용감스럽게더욱지혜롭게나가기를배호신 여러분에게 절실히 바라는바입니다

사진은강정임녀사

어린동무들이 새해에생각할일

장래사회에압잡이가되십시다

丁洪敎

어린이조선

새해첫아츰을맛는 여러분에게 선물이라고는 아모것도업고 다만한살식 더먹게되는 나히밧게 업는것입니다 이날의 조선어린동모들은 엇더한 처지에잇는것입니다──

이러한 처지에잇는 여러분에게는 어른들이이렇다하는 아모 선물도 주지못하면서도 여러분이 장차자라나면 씌어가는집안이며 우리의 사회(社會)가다시금 일어날수잇다는 바람(希望)을가지고잇는것입니다 여러분은 넷날이야기에서 나오는작란감어린아희의눈이정말옥(玉)이안이라고 첬다선이업는 어린동모가아니며 압날의 깃붐을찬독실고가는뱃사공이올시다이배가닷는날에는망하면더망할수가잇고와작일어나면벌어날수잇는 가장중대한책임(責任)을가지고 잇는조선의일꾼들이올시다 그럼으로나는 생각하면 조선의어린동모가 가장행복한 사람이라고한편으로생각되는것임니다 왜?그러냐하면 닭은나라가트면어른들이 모든것을 차지한까닭에 어린사람들은 차지할부엇이업지만 조선의 어린동모들은장차조선을엇만흘어노을 훌륭한사람들인까닭이올시다 여러분은집을잘짓는다든가배를잘부린다든가 긔계를잘만든다 하면가엇덧든녀러가지 방면으로 개척자가되여야할여러분이올시다 이러한 여러분는 서로사랑하며한데뭉치여서우리의말과력사를압도록힘쓰며 장래에 대한압잡이가되도록 새해새아츰에 굿게생각하심을 바람니다

부형사회에 드리는몃말삼

崔青谷

우리조선의 가장 중대하다고 생각하는 문제는 적으나만슴니다만는 그중에서도 나는소년의 문제를들어 몃마듸를 하겟슴니다

작년의 조선을생각할때 무엇하나시원한것이 업고단지 괴로옴과 쓰라림이 남엇슬뿐이라고 아니 생각할수가 업슴니다 그러나 어린사람은 부형사회가바든 괴로움과쓰라림의 간접으로바든 괴로움과쓰라림을 어린사람이밧고도 아모말을 못햇스니 그들의마음은 어떠하엿겟슴니까?

또한 작년의 말못할사정을들어 금년의길을생각하면 한심할을마지안슴니다 이제와서는 어린이를 사랑하라! 어린이들중이역여라! 이러한 말삼는하고십지가안슴니다

부형사회가 잘되고 못되는데로 울속이는까닭이라 지금에잇서서는 압날의어린이가 당당한조선의 어린이가 되게하기위하야 부형사회는 스사로 부형사회가 잘되도록 해야만될것입니다 살려고아모리애를써도안된다는쓰라린 마음에서 인갓목숨을밧처가면서도 살려고해야 될것이며또한 일해야될것입니다 북에서 백두산 남으로제주도에일으기까지 조선의소년는 부형사회가 잘되여야 그들도조선소년으로서 존재한다는 뜻은나옹에서 지금당하고잇는 외갓과로옹과 쓰라림을 외컨히씨트러 나아갈 길을차저 남파유성은처지에서서 갈바를 몰으고헤매이는 귀여운 우리들의소년이압날의 힘잇는소년이 되게하여야할책임잇는것을아서야합니다

비오는밤

童謠當選—三等 林春吉

어머니 오빠는 무슨일이 밧버서
해다진 저녁에 떠나갑니까
몰길이 천리말리 어듸데요
애기야 오빠는 아버지 병이중해
호지(胡地)간 아버지께 시량을하려
외아들 때가지고 밤새여 간단다
어머니 이밤에 비는 웨와요
금옹방이 어두데 비衆아 오나
몰질에 지착몰라 어쩌 갑니까
애기야 부두엔 딸보내는 어머니
리별이 슯어서 목놓아 우니
한울도 슯어서 눈물진난다

거라지의꿈

童謠當選—二等 平壤 宋昌一

돌다리에 끄덕끄덕
조는거지애
꼴이꼴이 숭하다고
웃지를마라
그래봬도 거지애의
그꿈속에는
우리모를 압세상을
보고있단다
○……○
돌다리에 끄덕끄덕
조는거지애
몸이꼴이 더럽다고
충밧지마라
그래봬도 이나라땅
젊은누리들
줄기는날 나도나도
축출꿈꾼다
○……○
돌다리에 끄덕끄덕
조는거지애
꼴이꼴이 못낫다고
손질말아라
그래봬도 이땅사람
즐겨뛰는날
나도있다 압장선다
이런꿈꾼다
(庚午마지막날)

해를읽었소

童謠當選—三等 鄭刀令

새벽 닭소리 요란할적에
눈우 고갯길 넘어가면은
깜박 전긔불 좋고있지요
◇
하로 몬지속 전긔불밑에
웽웽 구으는 긔게옆에서
방울 땀짜며 벼를찧으오
◇
딸땅 밤그릇 공장나스면
거리 전긔불 빤짝거리고
바람 치불어 귀가시리오
◇
요새 해님도 둥근햇가요
밝은 빛갓인 그전긔가요
밤낫 전긔밑 해를읽었소

달구지ㅅ군

選外佳作 鄭宇烽

一
쌀밥 따슨밥 먹은놈 보담
조밥 찬ㅡ밥 먹은놈 내가
힘이 긔운이 더욱 많고나
영치기 영차영치기 영차
二
솜옷 외투를 덧닙은 놈도
발을 동당당 치워 뛰누나
무명 째진옷 닙은 내게선
주녁 같은땀 뚝뚝진는데
◇
영치기 영차영치기 영차
‖十二月七日‖

물네방아

童謠當選—二等 陸一信

돌ㅡ돌ㅡ도라가는
물네방아는
보리방아쌀방아
꿍꿍찌어서
동네방네 굶주린
가엽집집에
골고로 놈아주면
조흘테데요
◇
아니아니물네방아
청을돌라서
하로종일방아를
꿍꿍찌어선
배불으고돈많은
부자집으로
떠나려보내는게
얄미웁지요

一九三〇年에자최를남긴그들의業績 (一)

教育事業에犧牲한 崔松雪堂一生

◇전재산삼십이만원으로 金泉에高普設置

남달은가난과 설음속에서 사는우리에게 무엇이잇다면 그것은불만과 불평뿐일것이다 조고마한내집 내살림속에도불비한것 불만한것이너머나만커늘 하믈며이영의이사회와그것이야얼마나하랴!

▽……△

이러한우리현사회에 빈약한힘──간약한녀성의손으로써 혈한의 결정으로모히진권재산과권힘을 다드린몃몃의녀성이잇다 물론그들의수는 극히적은소수이다 그러나한몸의 향락을위하여서는 하룻밤의 수십금을 앗기지안코 한몸의안위를위해서는 손고락하나움직이기를실혀하는대신에 공공사업에나 사회사업에대하여는 한푼의절약을 더러히하는 수만흔그물을도리볼때 미약한그들의힘은너머나컷스며 극히적은그들의수는 너머나크고도뚜렷한 존재엿다

▽……△

그들의사업은 임에누구나다아는바이다 그러나묵은해를보내고 새해를마지함에 다시한번그들의사업을 회고하는 동시에 그들의사업되 새진권과이에대한사회켜씨의 성원을바라며또한편으로는이러한사회를위한활동자들이 이새해에는 더한층만히나기를 바라는의미에서 이글이헛되지안을것을확신한다

지난 一九三〇년에 전조선을 통하야 사회사업을 시작하야실시하고 잇는이들 가운데는경북금천(慶北金泉)에다가고등보통학교를 설립하고저 전재산삼십이만원을

제공하야 제반준비를진행하고 잇는경성무교정 구십사번지(京城武橋町九十四番地)에 거주하는최송설당(崔松雪堂)녀사도 상당한자리를 점령하고잇다 녀사는금년칠십육세의로구로서도 보기에는 아직사십여세밧게보이지안는 건강하고도 비둔한몸의 소유자로 긔상이라든지또는총명이 조곰도 쇠하지아니하고 압흐로대사업을 착수함에잇서 모든계획이 치밀하고 맹정한비판아래 사무를 진행식히고잇슴은 가히본바들만한 점이만흔터이다 이제녀사가 이사업을

착수하기까지의그의과거와그가 녀자의몸으로 삼십여만원이란 재산을모아서 대사업에성공하기까지된 경로는 엇더한가?

녀사는 정묘년팔월이십구일(丁卯年八月二十九日)생으로그부모는 시골농촌인 경북김천군금릉(慶北金泉郡金陵)이란촌락에서서당(書堂)을차리고영유사업으로아히들을가르칠뿐이라고한다녀사는 빈한한가정에서 그어머님과침공으로그가정생애를도으며그아버지에게(한문)공부를하다가 일즉그아버지는 세상을떠나시게되자 그어머니와가티현김천시가에가서 여러방면으로 상업을경영하야 그어머님을봉양하며 살어오는가운데 상당한재산을 가지게되자 이때조선시국은대

혼란상태 에빠저각지에인심이 소연할뿐만아니라 동학당이일어나 대활동을 하든터임으로 돈푼이나 잇는사람으로는 그재산을 제공하지안흘수업는현상임으로 녀자도 자긔의재산대부분을 [illegible]회당이라기 보다도 시국을표방하는 무리들에게 빼기게되자 녀자는 분연히일어나 이왕이러한시국을당하야시국의 변천되는광경을 측컴복도하야 구경이나하고 말겟다는생각으로 가컷든 권재산을팔어가지고 서울을향하야 출발하게되자 아모도아는이가 업는곳이나 시국을 료리하는 중요인물들을 맛나 구경만하고지내며 시내컥진동에 적은재방을어더 칩거로생애를하는중 모으고 모은돈이차차붓고 붊어오는날에 이십

십만원의 만원가격의토지와 현금을커축하게된그동안에 그여러가지 삽화는 일일히다 긔재할수도업거니와 지면에관계로 녀자세한소개는할수업스나 녀자가 말가운데 늦생각한것은 구순이넘은 그어머님 세상을 떠나실때에 남게둔말슴에따라 팔도에 허터커잇는 그에선산을 모다다시치산을하고 따라서 고향인 김천에다가 후생을 교양할긔관을 설치코커하든바 여러가지지장으로보류하고잇든바작년일은봄어름이 풀리기컨 컨재산을 정리하여가지고 단연히 그목컥을달성하게된것이라고한다모든 재산을인계식힌후 씨는 말하기를『나는이제무슨무거운짐을 지고가다가 버슨것갓다』고 말슴하며당국에 정식인가원을 계출하엿는바

인변동안 인가문케로 상당히 난관을겪는가운데녀사는 말하기를 고등보통학교나 무슨 학교나말할것업시 남조선에잇서고등보통학교가 무엇보다도 필요한것은 당국에서도 잘알면서어원일인가하며지내는중총독부당국에 관계자들과 루루히교섭을한결과 결국원컨히 인가하여주겟다는승락을밧게되자이십만원가격의 토지라는지 또는곡가가폭락됨에따라 사업착수 닥시와머변동이 잇슴을 유감으로생각하는동시서울에현재거주하는이만원가격의 가옥을 다시증자하게되엿다는데고보가컨조선내(全朝鮮內)에하나뿐인경북에잇서서녀사의 장거로 말미암아 교육계에 얼마나다행한 일이며 따라서 이긔관으로부터

자라나는 인물이얼마나만흘것을 조선 사람으로서는 깃버하지안흘수업는바이다녀사는사업을착수한후 감상을 다음과가티 말햇다『세상에 낫다가 단여간 표적을 남기고가라고 잇는재산 업는재산다드려 그것하나해물랴고하니 엇쎄그리지장이만흔지 말할수업스나 압흐로일반사회의 사들의 열렬한동정과 관계당국의 도음으로 잘될줄생각하며 여러가지생각은 아직다말할수업다』고한다 녀사는 친가유족 멋사람외에는 아모도 도아준다든지 또는슬하에 자녀간아모도업고 혈혈단신에 쓸쓸한생애를하고잇다고 누구나다말하겟스나 그러나 녀사는그리놉지도 안흔키에 놉히나다름업시통통한데다가칠십칠세라는 고령이실지라도 얼굴에주름사리 만치안코 총명한안광은 젊은사람보다 지내칠반큼 빗나고잇슴을보면 녀사의맘이 얼마나 낙관적인생애를 하고잇는것을 가히알수가잇스며 숨차지안흔류창한음성에 자긔의포부라든지 과거를말할때 그의리상이 놉핫든이라든지 자긔의목적을 위하야말할수업는근심과리지의

백절불굴 하는긔상을 엿볼수잇섯다 엇호로 녀사의사업이 잘됨에따라 압흐로조선사회에만흔 공헌이되기를 축하기를마지안는다(사진은동녀사)

謹賀新年

清安

陰城邑 大昌精米所 朴來洪

忠北線清安驛前 彰新醫院 朴魯鐸

忠北線清安驛前 運送店 主 崔載熙

忠北線清安驛前 天成永

忠北線清安驛前 米穀商 張基韓

槐山郡曾坪面 李徹世

忠北線清安驛前 朴哲圭

忠北線清安驛前 旅人宿 薛春五

忠北線清安驛前 穀物商 李千玉

忠北線清安驛前 衡平社清安支部 委員長 元巨富

槐山郡曾坪面松山里 區長 尹興禾

忠北線清安驛前 米穀商 陳炳順

槐山郡曾坪面龍岩里 有志 朴南圭

忠北線清安驛前 眞正堂藥院 金好眞

忠北線清安驛前 白石實

槐山郡曾坪面松山里 李聲魯

槐山郡清安面邑內里 東德商店

槐山郡清安面邑內里 中鮮自轉車舖 主 李萬權

槐山郡清安面邑內里 面協議員 李彰周

槐山郡清安面邑內里 權英植

忠北線清安驛前 商店

忠北線清安驛前 有志 孫聖福

忠北線清安驛前 徐達鉉

忠北線清安驛前 槐山青年同盟曾坪支部

忠北線清安驛前 朝鮮料理 迎春館 金香花 李玉蘭

槐山郡清安面邑內里 清一釀造場 主 曹漢翼

清安公立普通學校 職員一同

忠北線清安驛前 祐興商店 主 禹章圭 柳寅亨

忠北線清安驛前 曾坪煙草耕作組合 職員一同

忠清北道公立農業學校 校友會曾坪分會

忠北線清安驛前 曾坪釀造組合 宋寅燮 崔鳳杜 宋容燮

忠北線道安驛前 三星社釀造場 主 李正樹

槐山郡 道安面事務所 職員一同

槐山郡 曾坪面事務所 職員一同

槐山郡曾坪面德祥里 學校評議員 金榮達

清州郡 北二面事務所 職員一同

忠北線清安驛前 三光運送店 主 孫聖模

槐山郡曾坪面松山里 松山殖産組合

忠北線清安驛前 朴寅東

忠北線清安驛前 穀物貿易商 安鳳濬

忠北線清安驛前 横山虎三郎

槐山郡曾坪面 李敎泳

忠北線清安驛前 朝鮮料理 永樂館 主 黃龍一

忠北線清安驛前 穀物商 宋景燮

忠北線清安驛前 穀物商 任鳳彬 劉章烈

忠北線清安驛前 米穀商 劉興汝

忠北線清安驛前 京城昌永商店清安支店 金水根

忠北線清安驛前(曾坪市) 衡平社清安支部

槐山郡曾坪面 岡清太郎

스포-츠

市民的保健運動에는 『體力增進法』이適當

胃臟病、神經病其他에도特効 體格矯正、體力增進에最適

最經濟的、最簡易!

우리는 一九三一年의새해를 마지하야 一般市民에게가장適當한運動을紹介하여보고저한다 그러나 그것을選擇하는標準은

一、運動方法이簡易한것이라야할것

二、『팀·플레이』가안이오 單獨自家에서라도 運動할수잇는것이라야할것

三、運動繼續中에興味가생기는것이라야할것

四、可及的費用덜드는運動이라야할것

五、短時間에하는運動이라야할것

六、短時日에効果顯著한運動이라야할것

七、過激한運動이안이라야할것(그翌日큰疲勞를 늣기지안흘만한運動)

八、保健에効力이잇는同時에體格矯正、體力增進에도効果잇는運動이라야할것

九、女子와老人과少年에게까지實施할수잇는運動이라야할것(可及的一家庭全部이 다할수잇는運動)

十、虛弱한身體의所有者라도能히堪耐할수잇는運動이라야할것

等十個要目이잇슬것임으로各運動의諸特徵을 細密하게檢別하야볼必要가잇다 우리는이것을檢別코저함에잇서서現時朝鮮에서 實施되고잇는運動競技를大略枚擧하여보자

팀·플레이部

野球
蹴球(『럭비』式、『아』式)
庭球(硬球 軟球)
索戰(줄다리기)
『혹게』
籠球
排球

個人運動의部

陸上運動(『트랙』『필드』)
『스케잇트』와『스키』
乘馬運動
씨름
柔道
劍道
拳鬪
各種體操(徒手或은器械)
水泳

等인바 團體的運動競技에屬하는 모든種目은 비록그興味와 効果가크다할지라도 市民的保健運動으로는 推賞할수업는일이오 個人的運動種目가운데서만 그것을골느게된다 陸上運動은 一定한運動場所만잇스면 누구나할수잇는것이지만은 그것이 輕運動部門에屬하는 彈力運動인外에 身體動作을 輕快하게만들고 어느程度까지 體格을 바로잡는데는 効果가잇스되 大概急激疲勞한運動인外에 特殊人을 除하고는 꾸준이繼續할興味를 못가진다 더욱히 夏多兩季에는 中止하지안을수업는運動인外에 市民的日課的保健運動에는不適當하다할것이며 그다음柔道、劍道、拳鬪는各其特色가진武術인 同時에日常으로 鍛鍊하는者에게는健康增進 體格矯正 體力增進에多大한効果가잇는것이나 그運動은 元來護身術인것만큼 이것을學習하는데는 諸般設備잇는一定한場所가잇서야할것은 勿論이오 늘—師範이必要할만큼 입으로學習이 困難한것이오또中年以上者에게는 거의 無理한 運動方法이 複雜하고어려운것하다할만큼 過激한運動임으로 그것을또한市民一般의 健康及體力增進運動으로는推獎키困難한것이안이라할수업다 其他名種機械及徒手體操가 잇스나『現代體力增進法』中에 保健運動만한 効果的인方法이업슬것이니 더욱積極的體力增進方法에 잇서서는 그右에나아갈方法이 決코업슬것을밋는다

過去一年間의 運動競技界 (一)

李源容

우리運動競技界에잇서서 스포-스의種類는 비록 相異하나 閒斷업시活躍을繼續하든過去一年동안을回顧하야 그變遷된것을『오리콜리트』하는것도無意味한일은아닐것가틈으로拙筆과淺見을무릅쓰고 敢히執筆하는바이나 每年同一한事項을거듭하게되는것은 讀者諸氏를爲하야깁히陳謝의意를表하는바이다

○ ○

우리運動競技界는지난庚午年에도 依然히潑潮한活躍으로써終是하엿다고말할수잇다 一九三○年度의運動競技界는一言으로써此를代하라면 過去數年來의 傾向이다시助長되어 縱으로나橫으로나進展업는發展을 드되어世界의運動王國으로서의權威를把握하라는道程에잇는一年間의實務를完全이 遂行하엿다할수잇다

○ 우리運動競技界에서 例年을건대蹴球熱의普遍的勃興과此上競技界의新出女子運動界의劃時的進步 庭球 野球技의完熟等이에對한國民의熱狂과 盛况等의事實을回想하고 또한이에酬動되어그波及되는影響이如何히重且大한것을諒解할수잇는現象은斯界를爲하야慶賀함을마지아니하는바이다

○ ○

우리運動競技界에서 眞實로國民體育의實績을擧하고 스포-스의健全한發達을期하기爲하야斯界의 關係되는團體나 先驅들이 漸大積極的態度를取하야從來의보지못하든各種大會와統制機關인協會의創立을보게되는議論은大衆的正當한 理解와完全한[illegible]로하는點으로보아斯界를爲하야欣幸할일이다

○ ○

우리運動競技界에서이와反面으로大勢에逆行되는思想이며態度가어느一部에서濃厚하여지는事實은그대로看過할수업는現象이다 即運動選手의審判員毆打問題 一部觀衆들의入場券關係로暴行을演出하는等의事實은 우리運動競技界의將來를爲하야看過할수업는事實인즉그原因을探究하야 그가는隱想을打破치아니하면아니될것이다

○ ○

우리運動競技界에서 過去의統制가充分치못한點에起因된弊害에對한反動과 또는스포-스도하여금規定된限度를超越하야너무露骨化한態度에對한反動이上記한不祥事를誘因하는것갓다이點에關하야는爲先內部에存在한關係가잇는方面에서나업는方面을不問하고一線으로協力할것이다

○ ○

우리運動競技界는建設期에잇서서 過去一年間完全히實務를遂한것을衷心으로 歡喜함과同時에다시將來의發展期에잇는斯界를爲하야서로反省하고相戒하야益益斯界의淨化를圖하며그基礎를鞏固케하야써健康이무엇보다도率先의첫재要求가된다는眞理를實行하기를切望하는바이다

○ ○

우리運動競技界의過去一年間을回顧하야 總評을加한과同時에 希望이充盈한새해年末의將來를爲하야所望의一部를述코저하는바 沒落되는點과或重複된點에對하야는讀者諸位의親切한指導와敎示를懇切히願하는바이다

살자면건강 내힘이보배

蹴球篇(一)

諸般團體競技中 가장活潑한態度가 最高潮에達하야 內容의充實이나 또는興味의焦點이되어잇는것은 오직蹴球競技이엇다 가장오랜歷史를가진 아式蹴球界에서 庚午年의特色을말하면 平壤崇實中學의 超中學級技術과이에對한徽新 實專의健鬪되아올너 專門學校의延專 普專의難兄難弟될만한對抗과 崇實蹴球團의新興한氣勢와 가장絶大의人氣와—祟다한本社主催京平對抗蹴球戰等의活躍은

日全京城軍과對戰하야五十二對零의未曾有의記錄으로大勝하고 朝鮮蹴界에多大한感銘을남기고退京하엿다

猛虎團優勝 全馬山蹴球聯盟戰

沈滯氣分에잠기어잇는馬山蹴球界의活氣를勃興하라는同聯盟戰은五月二十六日부터擧行한바 實業 商校 北馬山 猛虎等이參加하야對戰한結果猛虎團이三勝하야優勝의榮冠을占領하엿다

英艦足員(?)號來京 普專과對抗

朝鮮아式蹴球界一方의覇者普專軍은仁川에入港한英國軍艦足員號를迎接하야 五月四日蒙雨를무릅쓰고 徽文校庭에서相對하야開戰한바 好球家의熱狂한聲援裡에前半『타임·업』되기二分前에普專軍『윤』一點을빼앗겨서二對一로惜敗하고말엇다

英艦이大勝 對全京城軍에도

同艦對全京城軍의戰은同日京城運動場에서擧行한바 英艦은前後半에各六點式合計十二點을奪取하엿슴에反하야 全京城軍은終是得點할機會를得치못하고大敗하고마럿다

關西體育會主催 全朝鮮蹴球大會

關西體育會主催第六回全朝鮮蹴球大會는年例에依하야五月十四日부터盛况裡에開始한바靑年團決勝戰 崇專對普專試合에 드러가 兩方選手同志의毆打事件으로말미아머紛爭이 이러나 圓滿한解決을보지못하고主催側關係와 崇專校側에서互相聲明書를 發表하는不祥事를演하엿다

小學團優勝은 光成普通校

同大會小學團對抗은豫選에光成普校對彰德學校는六對一로光成이得勝하야準決勝戰에 光成對徽信은徽信側에不正選手出戰問題로光成이又決勝戰에

崇實中學校 中學團優勝은

同大會中學團對抗은豫選에明新中學對新義州工業은 一對零으로 明新이勝하고 崇中對平高는一對零으로 崇中이得勝하고 準決勝戰에 京城實業對明新은六對零으로 京實이得勝하고 崇中對[illegible]은 四對零의記錄으로崇中이得勝하고 마침내全南順天으로부터出場한俳山파實業은一對零으로 實業이得勝하야結果 最後決勝戰에 光成은一對零의記錄으로[illegible]을擊破하야優勝의榮冠을차지하엿다

實業團決勝中止

同大會實業團對抗은豫選에大阪對西京은二對一 平安對世昌은二對零의記錄으로西京과平安이得勝하고 準決勝에平電對西京은 一對零大吉對平安도一對零의 記錄으로 平電과大吉이得勝하야 兩者間에 優勝戰을決行하게되바 大吉側에不正選手가잇다는平電側의抗議로結局問題의落着을보지못하고翌秋는中止하엿다

靑年決勝도中止

同大會靑年團은豫選에鷲村對戊午는鷲村棄權으로戊午와崇新倉은 新倉의棄權으로戊午와崇專이得勝하야 準決勝에普專對戊午는一對零 崇專對大邱鷲龍은三對零의記錄으로 普專과崇專이得勝하야 兩者間에優勝戰을決行하다가 競技中의 紛糾로結局에는 選手同志間에서로毆打外지演出하야 中止하고마럿다

大朝主催蹴球 올徽新優勝

大阪朝日新聞社 京城支局主催 第四回全朝鮮蹴球大會는 五月十六日부터 龍山鐵道運動場에서 第一回豫選은[illegible] 徽新이優勝하엿다

鐵道優勝 春季럭비-그

럭비蹴球의序幕戰은三月二十一日龍山球場에서新興普專과京電이最初로對抗하야三對○으로普專이惜敗한것을비롯하야 京中俱樂部 總督府 京師俱樂部等이 亂鬪를繼續하다가鐵道軍이優勝하고 中學級에는京師 京商 京中 龍中이出戰하야 京師三勝無負 京商二勝一敗 京中一勝二敗 龍中無勝三敗의成績으로 京師軍依然히 群拔의勢로優勝하얏다 歡할만큼엉차잇든場面을展開한一方 럭비蹴球界의新興의勢로進出한것은斯界에一大光彩를放하엿다

立敎大學의來京

在京各팀이亂鬪를繼續하는동안에東京六大學럭비蹴球界의覇者立敎大學은朝鮮럭비蹴球協會와鐵道局의招聘으로來京하야四月三日京城運動場에서鐵道軍과對戰하야四十七對○ 同六

正月一日에上映될映畫 사진은 경성시내조선인측상설관에 상영될영화이니 (上右)는조선극장(朝鮮劇場)의(突擊)(下左)(猛進와勝利)의한장면(上圖)과 단성사(團成社)의『스파베라』와(下圖)『달마치』의한장면

映 畫

一九三一년의 朝鮮映畫界

—밋興行界는어듸로가나— 새進運에선映興兩界

—映畫界—

一九三○년의조선영화계는예년에비하야 번성하엿다고 볼수잇스니 어느해에 비기든지제작상으로보아 그만치 다량으로영화를 생산한 해가업섯다고해도 과언이아니엿는바 라운규(羅雲奎)씨의『아리랑후편』과『철인도』『동양영화사의『승방비곡』왕덕성(王德星)씨감독의『회심곡』안종화(安鍾和)씨감독의『노래하는시절』대구며동가테마의도적품『또한가튼 대구의독성키네마작품『바다와싸호는사람들』등등의만흔영화다 창립만되고작품이라고는하나도 제작치못하고서 유야무야로키네마가 해산되고 작품을반출

케작한때에 침포하고 몰리해한 자본주와 영화인들과의 감정문데로 중단되다든시하는 관난을 몰파하고서 그만한수의 영화를 나하노혼다는것은 조선의 영화인들의 로력이엇섯다고 아니할수업다 압흐로도제작중인서울키노의 『화륜』(火輪)과 미구에촬영을개시할청복(靑服)키노강호(姜湖)씨감독의『풍어가는무리들』에스키네마의『큰무덤』예고중인량철(梁哲)씨감독의『님을이저버린사람들』이며리구영(李龜永)씨감독의『수일과순애』등 一九三一년의 영화계도 큰발전을보혀주겟스며 크게괴머되는바가만타하겟다 그러나조선의 영화계는 아주

—興行界—

조선의 흥행계는 사실괴혀적이니아축도 조선사람의 소유인 극장이업시 다른사람의 극장을 세를어더서 근근히경영하여오는터로 외인들 살찌게하든 소위명화쟁탈전도 된향으로인하야 숨을죽이고 갑싼영화를 상영하고서 소위심건방을 부르는데도잇서 一九三○年의 흥행계야말도 아무런수획도 남시새해를낫게되엿다 더구나 근일에와서는 각배급소(配給所)의 활동도 볼수업고다만 순회극단의 정청방문이언케나한산한 상설관의 의자를로 희찡거리게할뿐 그러나 압흐로 각상설관이솔선하야 외국영화를 중심으로 흥행권이개시될터이니 一九三一년의 흥행계역시 한장관을 이루울모양갓다 조선사람의 경영하는 상설관의 신춘부터의 봉절될외국영화를 드러탐하자면 며개아래갓다

도한경이한경이니만큼활영소하나도업는터에 임이 외래자본이드러오게되어 조선의 영화계의장래를생각지아니치못하게되엿스니영화인촌(映畫人村)을 발고로 영화인들이 이에대응책을 삼으라함으로써 소식도 들니며 一九三一年의조선영화계는실로주목할만하리라하겟다

朝鮮劇場

세계적 감독인로시아『복도프킨』의감독작품이(亞細亞의大亂)『アジアの嵐』독일『우파』회사의 천생영화(歸鄕)『헝거리아狂想曲』『에밀야닝스』주연의『版逆者』『크라라보』주연의『暗黑街의女子』세계적문제소설인『레마르크』의『西部戰線異狀업다』등만니며영화를봉결할터이라하며

團成社는

특히구라파영화를 전문으로 봉절한다는데『에밀야닝스』의귀국작품을 소개하엿다하며 미국 영화에도 우수한 작품만을선택상영하리라한다

수일과순애 撮影開始

今月三日부터

국제영화사(國際映畫社)製作한다 『승방비곡』을 감독한 리구영(李龜永)씨의 각색감독으로『순애와수일』올리명우(李明雨)씨의촬영으로 금월삼일 부러촬영을개시 하리라는데 재래의장한몽(長恨夢)의주인공의일홍수리청성문제를 취급하야 장한몽시대의 련애관과는 아조다른사회적배경으로한 새로운 련애관을보혀주는영화라한다

謹賀新年

京城府蓬萊町一丁目七十七番地 新舊書林主 盧益煥 電話本局六二一番 振替口座京城二八五二番

白斗鏞

京城府鍾路二丁目八六番地 合資會社 東洋書院 電話光化門一一八一番 振替口座京城四九二番

京城府壽松洞四四 財團法人 朝鮮佛敎中央敎務院 電話光化門一〇二二番

京城府鍾路二丁目二〇 新舊書籍出版發行都賣散賣業 德興書林 主 金東縉 振替京城三九〇一番 電話光化門二八九番

京城府鍾路三丁目八十番地 圖書出版 和光書林 主 姜範馨 振替京城一三九一九

京城府鍾路二丁目四十二番地 新舊書籍出版發行都賣散賣 廣韓書林 主 金天熙 振替京城九五四五番

京城府南大門通二丁目一一三番地 舒川産業組合 韓山苧發賣元 東京廠糸紡績株式會社 朝鮮總代理店 橫濱火災海上運送保險株式會社 中央代理店 海東木綿 海東苧 海東紗 總發賣元 興一社 電話長光一八七五番 振替口座京城一四三九九番 發電略號(一一)

京城南大門通一丁目一一四 宋在榮

運動具專門商 崔學基運動具店 工場 京城府中學洞一二番地 電話光化門二二四二番 振替京城一二〇六四番

京城鍾路二丁目七十五番地 鐵南紙物舖 金貞烈 電話光化門一一七六番 振替京城二三一八番

三國商會

京城長谷川町百十一番地 朝鮮水産會

朝鮮運輸計算株式會社

合資會社 間組朝鮮支店 (京城)

京城現物取引市場仲買人組合

京城府永樂町二ノ二五 共濟無盡株式會社

京城長谷川町五十八 朝鮮製藥合資會社 代表者 須藤久左衛門

三越

京城官立中等學校長會

社團法人 京城放送局

京城酒類卸商組合

荒井初太郎

京城府南大門通 堀井謄寫堂出張所 電話本局四〇二番